

PRSR STD
U.S. Postage
PAID
Elk Grove VLG. IL
Permit #1320



美 京 大 同 窓 會 報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사무국 및 편집국
790 Busse R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usa@ameritech.net
website : http://www.snuaa.org

발행인 : 李龍洛
편집위원총무 : 具璟會
편집인 : 金正守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런 동문들

월간 107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 A.

2003년 1월 28일

WHO 사무총장 李鍾郁 동문

全世界 인류의 보건 복지와 예방의학에 큰 공헌 기대

지난 1월 28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본부에서 열린 집행



이사회의 사무총장 선거 결과 李鍾郁 동문(의대 76년 졸)이 7차에 걸친 투표 끝에 벨기에의 피오프 후보를 누르고 사무총장 후보로 당선되어 오는 5월에 열리는 WHO 56차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7월부터 5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WHO는 1948년 4월 7일 헌장발효 후 192개국 회원으로 가입된 전 세계 인류의 보건문제를 관장하는 UN 산하의 최대의 국제 전문기구이다. WHO는 年 예산이 22억 달러이고 전문직원이 5천명에 이르며, AIDS와 결핵 등의 질병의 퇴치와 예방, 세계 각국의 보건통계 및 보건 의료행정 지원 등 건강과 복지에 관련된 일을 총괄한다. 한국인이 이 세계機構의 首長으로 선출된 것은 처음이다(2001년 가을부터 2002년까지 한국의 한승수 외무부 장관이 UN총회 의장직을 맡은 바 있으나 이는 UN 회원국간의 順番制에 따라 한국이 차지한 당연직 직책이었다). WHO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본부와 6개의 지역본부(서태평양(마닐라), 동남 및 남부아시아(뉴델리), 아프리카(브라자

빌), 중동(카이로), 아메리카(워싱턴 DC), 유럽(코펜하겐)에 있다. 이 기구에 1949년 8월 17일 가입한 한국은 서태평양 지역본부에, 그리고 북한은 동남 및 남부아시아 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다.

李동문은 母校 工大를 수학한 후 醫大를 졸업하였다. 母校 재학 시절 내내 경기도 안양 나자로 마을에서 나병(癩病) 환자를 돌보았고 渡美후 하와이대에서 공중보건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WHO에 들어가서도 피지, 사모아 등의 奧地에 근무하며 나병 퇴치를 위해 헌신해왔다. 지난 1983년 남태평양 피지에서 한센병 관리 책임자로 근무를 시작한 이래, 93년부터 서태평양 지역 본부 질병 관리 국장, 예방백신 사업국장, 세계야동 백신운동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였는데, 특히 이 박사는 미국의 과학잡지 "Scientific American"부터 '백신의 황제'로 불릴 정도로 예방의학 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이다. 1998년 이후 할렘 브루트란트 사무총장이 취임한 이후 수석 정책보좌관, 정보기술사업담당관을 역임 후 2000년부터 결핵관리 국장으로 재임함으로써 WHO에서 20년째 봉직하고 있다.

<3면에 계속>

<사진설명> <바야오는 癸未年> 사진 右로부터 母國 남해안의 鎭山의 望臺, 倭寇의 출몰시 烽火를 서울로 올리던 그 頂上(681m)에서 바라보는 태평양의 日出. 그 山下의 尙州浦에는 同窓號가 滿船의 소망으로 달빛이 교교한 豊漁場 世尊島로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

록키마운틴즈 동창회

21번째 지부로 정식 창립

이용락 재미서울대총동창회장은 지난 1월 27일 콜로라도의 덴버에서 열린 서울대 록키마운틴즈 동창회(회장 김봉전, 공대 68년입)의 초청으로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동창회 발족에 합심한 동문들을 격려하고 동창회 발전에 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동창회는 38명의 동문부부들이 참석하여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이루었고 금년 남가주에서 열릴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제 12차 평의원회에서 21번째의 지부로 인준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정관조직 등의 문제를 회장단에 위임하였고 인근주인 와이오밍과 뉴멕시코 지역의 동문들을 동창회 안에 포용하고자 그 명칭을 "록키마운틴즈 지역동창회"로 하기로 하였다.李회장은 축사에서 선배 동문들이 앞장서서 동창회의 조직에 큰 힘이 되었으나 동창회를 이끌 회장단에 젊은 동문들을 추대한 사려깊은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지역동창회와 총동창회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재미동창회가 역동적인 조직으로 발전하여 동문들의 상호발전을 성원하고 母校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시키는데 함께 힘을 모으기를 희망하였다. 이 총회 후 콜로라도 동문들은 재미동창회보의 발전 지원금 \$300을 보내왔다.

목차

- 제 1부 : 총동창회 소식
- 제 2부 : 문필과 논고 - 4면
- 제 3부 : 동문 및 지역동창회 소식 - 19면

오하이오 동창회 창립총회

3월 2일(일) 오후 5시 콜롬버스 경천식당

120여명의 동문들이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별다른 동창회 활동이 없었던 오하이오 지역에서 동창회 발족을 준비해온 오하이오 지부 창립 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오는 3월 2일 오후 5시부터 콜롬버스의 경천 식당에서 갖게 되었다. 이 창립총회에는 이용락 재미총동창회장이 참석하여 오하이오 동문들이 재미총동창회의 22번째 지부로의 발족을 축하하며 동문들과 함께 동창회 발전에 관한 交驩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동안 동창회 발족을 위하여 수고하여온 오하이오 지역동문들은 지난 1월 3일의 Fiesta Bowl의 National Champion 이 된 Ohio State University의 승리를 축하하며 力動的인 동창회의 발족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창회 發起人은 다음과 같다. 이장섭(의대 52년입), 이주영(의대 58년

입), 장은숙(문리대 53년입), 김옥자(약대 62년입), 김승자(사대 59년입), Dayton 김광일(사대 59년입), 이성우(상대 72년입), 현혜영(음대 60년입), Dayton 김난영(공대 54년입), Dayton 최용완(공대 57년입), 이경훈(공대 85년입), 최인갑(공대 57년입), Cincinnati 김종혁(공대 73년입), Toledo 정운행(문리대 53년입) 동문들이다. 그리고 Cleveland 이동하(공대 57년입), Akron 김동광(공대), Athen 김승호(문리대) 동문들과도 지역대표로 연락 추진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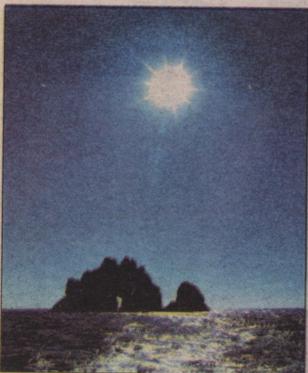
연락처: 최 인갑 동문 614-436-5780(H), 614-447-3600 ext. 3225 (O)

또는 1-800-848-6538 ext. 3225, 614-447-3844(F)

새해 아침에

어김없이 떠오르는 저 태양을 보아라!
부드러운 환한 얼굴로 따뜻한 가슴을 열어보아는
저 생명의 根源을 느껴보아라!
한 평생을 오직 태양에게서 받기만 하고,
단 한번도 준 적이 없음을 슬퍼하여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느님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어리석은 질문들은 아예 잊어버리고...
저 태양처럼 따뜻한 마음만 갖고, 아무런 불평도 없이,
그냥 그냥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이 새해 아침에 다시 한번 다짐해 보자!

李相奉(문리대 69년졸, 哲學博士)작



록키마운틴즈 지역동창회 창립을 축하합니다

이용락 재미서울대총동창회장(공대 53년졸)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Colorado 지역 동창회[총회에서 록키마운틴즈 지역동창회라 하기로 함] 창립총회에 오신 동문 선배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보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 다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문들께서 美大陸 서부의 大幹인 록키 산맥에서 다양한 開拓者의 삶을 살고 있는 중에서도 同門修學의 인연과 近隣의 兄弟의 情으로 모여 동창회를 창설하려는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본인을 초청해 주신 김봉진 회장님과 동창회를 발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로 발족하는 Colorado 동창회는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산하의 21번째 지역 동창회가 됩니다. 이에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를 대표하여 Colorado 동창회의 창립을 충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동창회 발족을 위하여 준비하는 동안 총동창회 사무실로 이 지역의 산재한 동문들의 자료를 요청하여 왔으나 인원과 data base 등 여러 가지 부족하여 도움을 주지 못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동창회를 발족시키고 年富力強한 젊은 동문들을 동창회 활동의 견인자로 추대한 선배님들의 사려 깊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성주 선배님, 유광현 동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창회보를 보실 기회가 없었던 동문들을 위하여 재미 서울대 총동창회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금년에 그 발족 12주년이 되며, 총동창회보다 발족이 앞섰던 각 지역동창회까지를 망라하였으나 총동창회는 아직도 그 활동의 內實化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 기간 사업으로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를 매달 발간하여 미주 전역과 캐나다에 있는 7천명 이상의 동문들을 서로 연결하여 각 지역 동창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본부가 2001년 시카고로 이전한 후 본인과 제6대 집행부는

재미서울대동창회보의 면모를 일신하여 격조있고 내용있게 간행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 회보는 미주 전역의 주류사회의 각 분야에서 이바지하고 있는 7천여 동문들의 유대와 상호발전을 위한 견인차(牽引車)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보의 질적 수준과 다양한 내용의 발전에는 모든 동문들께서 동창회보를 통한 대화의 광장에 참여가 그 관건입니다. 여러분 동문 한 분, 한 분이 記者가 되고 筆者가 되실 때만 우리 동창회보가 살아있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지난 해 8월에는 母校 舊대 학생으로 구성된 "서울대 舊대 미주순회단"이 시카고를 시작으로 8개 지역동창회가 위치한 8개 도시에서 9회에 걸친 공연을 가졌습니다. 이 사업은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주축이 되고, 서울의 총동창회와 모교의 재정 후원, 그리고 각 지역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비로 가는 곳마다 그 공연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 공연에서 관악산의 후배들이 보여준 우리 전통국악과 서양음악의 "신선한 和音의 충격"은 2,500여명의 청중들로부터 기갈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연례행사로 계속되고자 추진 중입니다.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창립된지도 이미 1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6대 집행부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동문들과 母校의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이 계속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창회를 美移民社會에도 크게 기여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대한 목표의 기초를 다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2002년 6월 시카고에서 개최되었던 제11차 평의원의 前夜에, 동창회의 지난간 10년을 돌아보며 미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심포지움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 때 우리는 이민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동문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母校와 祖國뿐 만 아니라 美移民社會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우리 재미 서울대 동창회로 발전시키고자 각오를 다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과 목표들이 성공하는 것은 Colorado 지역동창회 같이 개최자

<祝詩>

眞理의 셋별

강신용(사법대 73입)

6척의 별들도

하늘의 별들도

외로운 별들이여

우리 속의 별이여

앞서가는 별이여

내 가슴에 별이여

그대는 진리의 별이여라

태고의 모습에서

셋별로 환생하는

신대륙의 은하수

그 별은 진리의 셋별이여라

신으로 단합하는 力動的인 지역동창회의 발전이 그 토대가 되며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는 조직으로 발전하느라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5월말에는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제 12차 평의원의회가 Los Angeles에서 개최됩니다. 이 연례 회의는 재미총동창회의 제반 사업을 심의 결정하며 전 미주동창회가 결속하는 모임입니다. 각 지역동창회는 2명 이상의 평의원으로서 지역 동창회를 대표하게 됩니다. 이 평의원회에서 Colorado 지역동창회는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의 21번째 지부로 인준됩니다.

끝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동창회보에 투고한 강신용 동문(사대 73입)의 詩 한편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관악산의 바른 기운과 이 백여 년 전 美大陸西部를 탐험한 "Lewis/Clark"의 開拓 精神으로 Colorado 동창회에 결속하신 모든 동문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이용락
2003년 1월 26일

新年辭

서로 도와 발전하는 동창회

吳仁錫 (法大 62年卒,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명예회장)



존경하는 재미서울대 선후배 同門 여러분, 한 해가 언뜻 지나고 2003 癸未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同門 여러분과 가정에 健康과 萬福이 깃들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美國과 母國 한국을 포함하여 온 세계가 全人類의 世界平和에 직결되는 힘든 문제들로 가득찬 해였습니다. 母校도 "학내사태"로 신임 鄭雲燦 총장님의 취임을 맞게되는 변동의 한해였습니다.

새해도 우리 同門들의 주위와 母國, 母校는 계속 중요하고 힘든 과제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라과 北韓核 문제를 포함한 外交, 國防문제는 물론 우려되는 침체된 미국내 景氣의 회복이라는 어려운 문제들을 올바르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 서울대 同門들은 우리의 지혜를 계속 슬기롭게 구사하는 모범 市民이 되어야겠습니다.

母國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世紀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도 새로 선출되어 다음 달부터 北韓 核문제와 對美外交, 그리고 변동하는 사회구조의 어려운 문제들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 에 母校는 모교대로 새 총장님이 사랑하는 우리 後進들에게, "정에 교육을 받고 사회를 이끄는 棟樑으로 커나아가 한다"는 신념 아래 "學內 民主的 의사결정 과정과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연구환경을 개선하며 學力低下에 대처하기 위

해 헌신봉사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母校에 대한 羨望과 노골적인 嫉妬가 더해가는 여건이기에, 우리 동문은 모두가 두 손 모아 모교를 세계에서 으뜸가는 대학으로 키워나갈 수 있게 배전의 성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새해는 재미서울대총동창회 운영이 Chicago 동문들로부터 Los Angeles 동문들에게로 옮겨가는 해이기도 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동창회 활동을 계속 다져나가기 위해 盡力하고 계시는 李龍洛 회장님 이하 모든 Chicago 동문들이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우리 在美同門들은 모두 힘을 모아 계속 激勵과 後援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吳興植 차기회장님과 LA 지역 동문들이 在美同門과 母校, 後進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在美同門 모두가 더욱 분발하여야 하겠습니다.



록키마운틴즈 동창회 창립총회에 모인 지역동문들과 재미서울대총동창회장. 뒷줄 왼쪽부터 안홍식(48 공대기계입), 류광현(58 불문과입) 감사, Mrs. 안홍식, 고길산(69 약대입), Mrs. 임단일, 김성수(59 의대의예), 박성주(47 공대기계입) 지역원로선배님, 김종정(56 의대의예), 이종환(62 문리대 외교), Mrs. 이종환, 송요준, Mrs. 송요준, 주진철(92 공대 토목), 박성식(73 의대의예), 김상원(89 공대기계), 기운태(61 사대), 최덕상(73 농대) 재무, Mrs. 최덕상, Mrs. 류광현, Mrs. 김종정, 민중순(72 의대 간호), Mrs. 박성식, 왕경자(54 음대), 임단일(52 의대의예), 이용락 재미서울대총동창회장, 곽윤태(49 문리대), Mrs. 김봉진, 김봉진(68 공대공교) 록키마운틴즈 동창회장.

PSALM 133:1
 BEHOLD, how good and how pleasant it is for brethren to dwell together in unity!
 -King James Version

美无姊妹和睦相愛
 是多麼幸福並快樂

二〇〇三年元月
 邊萬植書

邊萬植(사대 53년졸, 6대 워싱턴 DC동창회장 역임) 동문이 서로 돕고 사랑하는 서울대동창회의 한 해를 기원하며 기독교 성경 시편 133편 1절을 새해 아침에 題書하다.

新年辭

당당한 서울大人像 다함께 구축해 나갑시다

林光洙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공대 52년 졸)

敬愛하는 서울大 同門과 家族 여러분!

癸未年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20萬 同門의 家庭마다 萬福이 깃들고 하시는 모든 일에 成就와 보람 거두시기를 衷心으로 祈願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우리 母校 總長에 鄭雲燦 博士가 就任함으로써 變化와 改革을 통한 發展基盤이 새로이 닦인 해입니다.

또 同窓會는 19代 會長團의 出帆으로 同門社會의 結束을 다지면서 母校發展 支援力量을 強化해온 한 해였습니다.

이와같은 變化와 發展은 서울大 人들의 曠心과 활발한 參與가 있었기 때문에 可能했으며, 學校 敎職員은 勿論 同窓會 任員陣을 비롯한 各界 同門들의 애정 어린 聲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生覺합니다.

이에 앞으로도 우리는 20萬 同門을 비롯해 國民들이 서울大와 서울大人에 가는 期待와 要求에 最大한 副應할 수 있도록 無限한 責任感을 가지고 母校와 祖國의 發展을 위해 最善의 努力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대가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라는 모토를 中心으로 모인 서울大人입니다.

開校 草創期에 萬難을 무릅쓰고 解放祖國의 建設을 爲해 우리가 오로지 忍耐와 協同만으로 荒蕪地 위에 오늘의 서울大를 이룬 것처럼, 統一祖國을 맞이하기 爲해서는 다시 한번 非常한 覺悟로 서울大를 世界의 名門大로 우뚱 세우기 爲해 倍前의 努力으로 挑戰할 때가 왔음을 銘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爲해 우리는 자기 分野에



서 最高의 專門能力, 健康한 職業倫理意識, 世界化, 情報化 時代를 리드할 수 있는 유연한 思考, 어떠한 狀況도 突破할 수 있는 實踐力을 두루 갖춘 人材를 養成하면서, 道德적으로 떳떳하고 堂堂한 서울大人像을 다함께 構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간에 서울大人답게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祖國의 未來를 設計하며, 國民의 꿈과 希望을 具現하는 道德的 責任을 自覺하십니다.

아무쪼록 急變하는 對内外 狀況속에서 서울大人으로서의 矜持를 지켜 나갑시다. 더불어 率先垂範함으로써 보다 正直하고 透明한 組織文化를 만들어 나가며, 地域社會等 이웃에 대한 社會寄與와 奉仕活動도 변함없이, 그리고 조용히 實踐하는 成熟한 서울大人의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저 역시 同窓會長으로서 우리의 母校 서울대가 永遠하고, 나날이 發展하여 온 國民의 眞正한 자랑이 될 수 있도록 渾身의 熱과 誠을 다할 것입니다.

敬愛하는 同門들의 健勝을 거듭 祈願하면서 새해인사에 가름합니다.

感謝합니다.

시대 변화 맞춰 자기 혁신의 노력 다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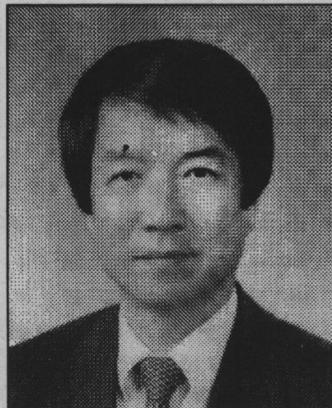
鄭雲燦 서울대학교 총장 (상대 70년 졸)

친애하는 서울대학교 가족 여러분.

2003년 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누리에 희망의 빛이 가득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지난 해 저는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새로 업무를 익히고 주위의 건의와 조언을 경청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업무가 익숙해질수록 우리 학교처럼 복잡하고 방대한 조직의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동료 교수, 직원, 학생, 동문 그리고 사회의 기대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학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시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올해 안으로는 구체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직원의 처우개선과 교수아파트 확충도 계획이 거의 선 단계이므로 곧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BIO-MAX 사업과 한국학연구, 통일 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글쓰기 교육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해 보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국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대도 변화하는 국가와 사회의 기대에 걸맞는 자기혁신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교수와 학생들은 교육과 학습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과 보직자들은 이들이 다른 불편없이 오직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계미년 새해는 제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약속드렸던 여러 가지 일들이 터를 잡고 뿌리를 내리는 중요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일들은 많은 돈이 필요하고 어떤 일들은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합니다. 또 교수와 학생을 비롯한 학교의 내부 구성원들의 합의를 구해야 하는 일도 많습니다. 모두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신념과 애정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하나둘씩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모두 지혜를 모아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저도 최선을 다해 학교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서울대인 여러분. 목은해를 넘기고 대망의 2003년을 여는 신선한 아침입니다. 더욱 힘차고, 더욱 부지런히 분발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서울대를 세계 으뜸의 대학으로 키워나가는 원년으로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新年詩

잉카로 가는 길

李典九(농대 64년졸)

Urubamba 江(Ⅰ)

우루밤바강 황토물은 어찌그리 더럽더냐!
잉카땅을 무너뜨린 흉탕물이라 그렇다네
"피자로"의 탁한 마음은 걸러내고 가려무나

Urubamba 江(Ⅱ)

우루밤바 흉탕물쌀 무에그리 급하더냐!
선인장꽃 노란들꽃 강둑따라 만발하고
뜬구름 언덕에 걸렸으니 쉬며 배우며 걸르거라

쌀칸타이(Salcantay)III

백두산들을 포개놓고 북한산 하나 더있는 산
쌀칸타이 산 꼭대기 萬年雪이 눈부시네
너만 높으면 무엇하나 네 주인이 낮은것을

Machupichu (Ⅰ)

마추어보니 안맞아서 쪼아내고 잘라내어
삐죽삐죽 못생긴 돌 같아내고 맞추어서
그래서 그 이름을 마추삐추라 불렀을까?

Machupichu (Ⅱ)

太陽과 가까운 곳 하늘과 맞닿은 도시
회고 키 큰 원수들아 네 어찌 여기를 알라
잉카帝國 마지막 城 하늘밖엔 더 갈 곳 없네

성벽틈 사이 Begonia 꽃

종잇장끼울 틈도 없는 城壁의 돌틈사이
수백년 쌓인 이끼 속에 한뼉뼉 뿌리내려
마지막 잉카公主의 붉은 냇이 피었구나

이종욱 WHO 사무총장 <1면에서 계속>

그는 이번에 사무총장 후보로 선출된 후 WHO의 관료주의와 정치적 싸움에 따라 보건정책이 좌우되는 폐해를 막기 위하여 이 조직의 개혁과 기금 조성의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AIDS 하나만을 위해서도 매년 1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정도로 전 세계 보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모금운동을 확산해나가겠다고 밝혔다(97년 유명 테니스선수 마르티나 힝기스로부터 백신연구기금 7만5천 달러의 기부금을 출연받은 바 있다). 또 그는 조직의 分權化를 추진하고 예산의 75%를 제네바 본부보다 실제 현장에서 질병과 싸우는 세계 6개 지역 사무소에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李동문의 자랑스럽고 보람된 날이 있기까지는 발전하는 한국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부와 母校 동문들의 노력이 컸다고 한다. 현재 한국은 WHO에 내는 정규 분담금이 2002년도에 417만 달러로 192개 회원국 중 17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서태평양 국가 중에서 일본, 호주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분담금이다. 한국은 정규 분담금 외에 북한을 비롯한 말라리아 발생국에 질병 퇴치사업비와 의약품 및 장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禁煙사업 지원금을 내기도 했다.

지금까지 北韓에 6만명분의 結核약을 공급하는 등 19개 국가의 結核퇴치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李동문이 이번에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WHO의 보건 의료분야의 지원도 확대될 기회가 되며 북한의 보건 의료기구의 구축 및 질병퇴치사업에

대한 기술적 물질 지원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증대와 南北韓 分斷民族간의 신뢰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박사의 사무총장 취임으로 국내의 생명과학, 백신 및 제약 산업의 발전과 한국의 유능한 보건인력의 국제기구 진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동문이 WHO 사무총장으로 선출되기까지 한국정부기관(보건복지부와 외교통상부)과 同門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지난 해 10월 15일 정부는 이박사를 사무총장 후보로 추천하여 外交力을 가동하기 시작하였고, 10월 24일 이 동문이 대한의사회를 방문

하였고,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계는 11월 22일 이종욱 박사 선거후원회(위원장 권이혁, 전 母校총장, 복지부장관 역임, 현 성균관대 이사장)를 결성하였고 대한의사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제약협회 등에서 후원회를 결성하여 지원하였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5, 6차 투표에서 잇달아 同點이 나오자 美國측 집행 이사가 英國측 집행이사를 설득하여 7차 투표에서 결정적인 한표를 행사하도록 외교전이 펼쳐졌다 는 後圖이다.

李동문은 수영, 스키 등 운동과 여행을 좋아하고 사진에도 조예가 깊다고 한다. 학창시절 카톨릭 신자로 한국에 불사활동을 온 일본인 동갑내기

레이코 여사와 79년 결혼하여 현재 WH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해외출장이 잦아 집에 머무르는 기간은 짧지만 틈이 나면 부인과 함께 도시락을 싸서 레만호 등 인근 호숫가를 찾는다고 한다. 아들 충호(25)씨는 미국 코넬대에서 전기공학과 박사과정에 있다. 李박사의 친동생인 이종오(50.계명대 사회학과 교수)씨는 한국 차기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참여센터 본부장직을 맡고 있다. 막내 동생인 이종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도 학계에서 활동 범위가 넓다. (자료원: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2003년 1월 28일자 보도와 醫協新報 및 NYT 보도 종합)

이브의 탄생을 계기로 내다본 클론과학의 전망

姜洙祥 (의대 53년 졸, Rush의대 遺傳學 교수)

지난 12월과 1월에 클로닝(cloning)이라는 방법으로 시험관 안에서 체세포핵으로 수정이 된 난자로 임신한 두 여자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그동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짐작은 하였지만 놀라운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다. 더구나 이런 발표가 라엘리안(Raelian)이란 人類는 外界에서 온 클론으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宗教團體가 불과 5년 전에 창설한 회사에서 있었으니 과연 이런 실험실에서 클론으로 인간이 태어나게 한 것이 사실인지 이것이 사실이라면 태어난 아이가 정상일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과 동시에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이런 방법의 임신을 불법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에 없이 커져가고 있다.

그런데 한편 이런 문제를 즉각적으로 처리할 만큼 중론이 성숙되었는지 혹은 너무 서둘러야 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인류역사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사실이나 생각이 나왔을 때 이것이 순탄하게 사회에 수용된 일이 없었던 것은 불행한 일이다. 地動說이 그랬고 進化論이 그랬으며 30년 전에 있었던 시험관 수정(IVF)이 성공하였을 때도 성토의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누르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력의 행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클로닝의 중론을 모으기 위해서는 먼저 클로닝의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먼저 긍정적인 입장에서서 클로닝이 어떤 것이며 과학적으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인류의 복지에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지를 들여다 보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

1. 클로닝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약 100조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 출발은 한 개의 수정(성숙) 난자로 시작하여 50회 정도의 세포분열을 되풀이하며 각 조직으로 분화되어 한 인간이 된다. 수정(성숙) 난자는 인체로 자라날 수 있는 완전한 유전기구를 갖춘 성세포를 말하는데 100조의 체세포도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난자가 가진 것 같은 조건만 갖추어지면 어느 세포나 하나의 인간으로 자라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 유성생식을 하는 동물의 난자는 체세포가 가진 유전자의 반을 가지고 있어 다른 반의 유전자를 가진 정자가 들어가서 체세포와 같은 완전한 유전자를 가지게 된 수정 난자가 된다. 클로닝은 미수정 난자 안의 반쪽의 유전자를 가진 핵을 빼내고 그 대신 완전한 유전자를 가진 체세포의 핵을 주입하여 수정 난자를 만드는 조작을 말한다. 정상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성합에 의하여 수정란이 생겨지지 않을 때 시험관에 난자와 정자를 섞거나 이런 방법으로도 되지 않을 때는 유리모세포관으로 정자를 난자 안으로 주입하여 수정란을 만드는

방법을 시험관 수정법(IVF)이라고 한다. 클로닝은 정자를 주입하는 대신 체세포 핵을 주입하는 시험관 수정법이다. 어떤 방법으로 수정란이 되었든 간에 다음 단계는 여자의 자궁벽에 착상이 되어 열 달 동안의 자궁생활을 거쳐야만 신생아로 태어날 수 있다는 데는 차이가 없다.

클로닝의 방법을 써서 태어난 사람도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人間이지 外界에서 왔거나 工場에서 찍어낸 사람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클론을 "복제(replica)"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혼란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사람이 전적으로 핵유전자만으로 만들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난자라는 한 세포가 주축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수정란이란 그 속에 46개의 핵 염색체에 난자 고유의 유전자를 가진 미토콘드리아와 그 밖의 복잡한 난자의 생기기구가 들어 있어 핵 유전자가 변역이 된다. 핵 유전자가 바로 인간으로 찍혀 나오는 것 같은 인상이 내포된 복제라는 어휘는 클론의 참모를 오도시킬 위험이 있다. 더구나 난자와 정자의 유전자가 합쳐진 것이 체세포가 가진 유전자이다. 다시 말하면 반쪽식의 유전자가 합쳐져서 수정 난자의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 대신 이미 합쳐진 체세포 유전자로 대체하여 임신하게 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한 사람이 되는 한 개의 수정란에서 두 사람이 생기는 일란성 쌍둥이에 비하면 체세포의 제공자와 클론으로 임신이 되어 태어나는 아이 사이에는 난자가 다르고 자궁생활이 다르고 출생후의 환경이 달라 동일성을 주장하는데 무리가 많다. 따라서 동일성을 이유로 비윤리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2. 클로닝과 人間 태생의 가능성

라엘리안들이 1997년 창설한 "클로네이드"라는 회사는 역사도 짧거니와 경험이 있는 이 분야의 과학자가 참여한 곳도 아니며 회사의 내용이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따라서 그들의 수행능력에 의구심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클로닝의 성공을 입증하는 재료가 현재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 회사가 발표한 내용의 진위에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조작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시설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원숭이를 제외한 여러 동물에서 이미 성공한 전례가 있는 한, 사람의 경우 불가능할 것이라 단정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 물론 원숭이에서 클론의 성공을 아직 보지 못한 사실은 원숭이가 사람과 제일 가까운 동물이라는 점에서 무시 못할 중요한 반론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12월에 태어난 "이브"라는 별명을 가진 아이는 31세 여인이 자신의 체세포를 자기 난자에 넣은 수정란으로 임신을



한 것이니 이 여인과 태어난 아이는 같은 자궁에서 자라 같은 날 태어나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란성 쌍둥이와 같은 것이다. 클론의 성공률을 그만큼 높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클로네이드가 하루만을 내다보고 허위발표를 할만큼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클로닝을 입증하는 DNA검사는 당사자의 결정에 따른 문제인 만큼 경우에 따라 당분간은 그들 개인의 사정으로 공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본다.

3. 클로닝 新生兒는 기형아(畸形兒)인가?

1997년 달리(Dolly)라는 이름이 지어진 양이 클론으로 스코트랜드에서 태어났을 때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 장기의 기형이 생기는 빈도가 높고 수명이 정상생식이 된 경우보다 짧을 가능성을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확실하게 할 만한 충분한 연구자료가 현재로는 구비되어 있지 않다. 정상적인 임신과 분만을 통해서 태어나는 경우에도 5 내지 8 퍼센트의 기형아가 생긴다. 당뇨병이 있는 임신부를 치료하지 않을 때 대부분의 경우 보통보다 큰 아이를 분만에 정일보다 늦게 출산할 뿐 아니라 기형발생률이 월등하게 높아진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혈당이 높은 임신부는 임신 중 정상 혈당을 유지하도록 조치한다. 그뿐이 아니다. 많은 환경 여건 즉 임신 중 감염질환 약물치료 방사선 화학물질의 흡수 같은 것이 기형률을 높이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난자의 핵을 빼내고 다른 핵을 넣는 기술이 수정란의 분열과 분화에 부담을 주어 기형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이 말이 클로닝으로 수정된 난자로는 정상적인 임신이나 정상적인 아이의 출산이 불가능한 것처럼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울스트리트 저널에 게재한 "생물학의 체르노빌(Chernobyl)"이라는 과학자가 리드리의 기사가 재미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는 빈약한 기안과 부적절한 운영으로 수는 적지만 몇 사람의 아까운 생명을 희생시켰고 그 주변에 암의 발생률을 높게 했다. 다행한 것은 이런 原子爐 폭발 사고가 그래도 석탄이나 오일 혹은 폭풍으로 오는 피해에 비하면 엄청난 사고는 아니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이 사고는 불행하게도 모든 핵에너지 이용은 위험한 것이라는 과장된 인상을 일반에게 안겨

주었다고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클론에 대한 懷疑의 社會의 識見에 유전학을 이용한 클로닝이 우리 삶에 이득을 준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과학자들의 노력에 클로네이드의 이번 보도가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클로닝은 不妊者에게 受胎과 당뇨병, 암종양, 신경 뇌질환 같은 여러 어려운 분야에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약속하는 새 영역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새 분야도 반드시 거쳐 가야 할 문제들이 있다. 그 으뜸이 안전성의 문제이다.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걸림돌이 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기형 유인조건을 최소화함으로써 줄이는 연구는 사람보다 먼저 다른 동물에서 연구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 같다. 이런 기초 연구를 통해 검증이 되지 않은 방법을 급하게 사람에게 적용하는데만 역점을 두는 편법을 막는 방법은 이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고 장려하는데 있다고 본다.

4. 倫理的 問題

현재로서는 클로닝의 방법으로 수정란을 만들어 임신이 되게 하는 방법은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중론이 더 크다. 남자와 여자의 성합에 의한 수임 즉 자연적 임신이 아닌 인공적인 조작이 비윤리적이라는 성토는 시험관 수정이 알려진 3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시험관 수정은 사회의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25년 전에 첫 아이가 출생한 후 현재까지 50만에 가까운 생명이 이 시술에 의하여 태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시험관 수정은 받아들여져 체세포핵으로 수정시킨 난자는 윤리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원래의 통념에 수정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 아니면 임신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열망을 제재하는 것만이 능사인지는 심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하나의 자유인으로서 누구나 자기의 유전자는 자기 개인의 소유이며 누구도 이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流産의 윤리문제를 놓고 찬성자와 반대자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기의 주장을 자기 문제에 적용시킬 자유는 있지만 유산을 시키고자하는 다른 사람의 선택을 강압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생각할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비윤리적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남의 조직이나 장기의 이식수술을 받는 것은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니다. 조직이나 장기는 수천억의 체세포의 집합체이고 이식이 되는 체세포 하나 하나는 조건만 갖추면 각개의 인간으로 자라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을 아는 이상 클로닝의 시술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정자를 가지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수정 난자를 얻을 수 없는 경우 그 대신 체세포 핵으로 수정 난자를 얻는 것은 자기의 난자로는 수정 난자를 얻지 못하는 경우 남의 난자로 수정 난자를 얻어

임신되는 것 같이 한 자유인으로서 당연한 선택이며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만약 클로닝의 방법으로 수정란을 얻는 것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유산반대자나 인공수정반대자들이 유산이나 인공수정을 거부하듯이 클로닝을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유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자유선택을 강압적으로 박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5. 클로닝의 전망과 기대

클로닝이라는 체세포 핵에 의한 난자의 분열과 분화과정은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 이어서 경험을 쌓지 않고서는 성공률이 떨어진다. 그러나 이 관문만 통과하면 앞으로 인류복지에 줄 밝은 전망은 과거에 있었던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불임 부부를 위한 생식 클론은 그 한 영역에 불과하다. 클론으로 현재까지 해결을 하지 못한 많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큰 희망을 주는 의학(치료) 클로닝은 또 하나의 방대한 영역이다.

이번 클로네이드가 발표한 일이 줄기세포의 연구에까지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사건을 계기로 클론 과학의 이해가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려 연구활동의 지원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없으라는 법도 없다.

같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遺傳機構이기는 하지만 체세포의 유전기구는 난자와 정자의 유전기구가 합쳐진 경우와는 분열과 분화과정을 거치는데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여야만 실패율을 줄일 수 있고 기형을 유도하는 비정상 분화과정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한 인간이 클로닝으로 태어나기까지의 성공률이 대부분의 동물에서 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이상 분화로 오는 기형화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클로닝의 기본문제가 해결된 이상 이런 문제는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문제로서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많은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우생학(優生學, eugenics)은 과학의 불완전한 해석 위에 여러 나라에서 법을 정하여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에게 단종을 한 일은 20세기에 있던 불행한 일이다. 인종개량이라는 취지가 정신박약이나 지능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 사회에서 제거하거나 단종을 함으로서 이루어진다는 사상이 정치적 신조로까지 자라서 저지른 역사의 오점이다. 이런 과오가 우여곡절 끝에 해결을 본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이와 비슷한 일이 또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과학자의 양식을 신뢰한 바탕에서 클로닝의 오도를 막는 윤리규정을 관리하는 기구를 두는 정도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리의 테두리 속에서 클론의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과학적인 좋은 성과가 얻어져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날이 머지 않은 장래에 올 것으로 필자는 전망하고 있다.

美國時論

天然生態界의 寶庫 非武裝地帶

The Land That War Protected (NYT December 10, 2002)

By KE CHUNG KIM EDWARD O. WILSON

The demilitarized zone, a ribbon of land running 155 miles across the entire Korean peninsula, was established in 1953 to separate the two Koreas and diminish hostile confrontation between them. During the half century following the Korean War, a new kind of peace has descended on the fallow land: its forests and other wild habitats have rebounded luxuriantly, and with them an abundance of wildlife. Rare and endangered animal and plant species, including leopards and possibly tigers, have increased in population. In addition, the demilitarized zone now offers a secure refuge for endangered migratory birds, most notably white-naped and red-crowned cranes and the black-faced spoonbill. Thus the conflict's unforeseen legacy includes the peninsula's largest and best nature preserve. Fenced off, guarded and mined, nearly the entire zone was until recently a place where no human had set foot

since Dwight D. Eisenhower was president. As conditions ease between the two Koreas, the zone offers a superb opportunity to help cement the peace, and at virtually no cost. If set aside as a wildlife park, it will protect in perpetuity a substantial segment of the region's native biodiversity, a benefit for the Korean people and the world at large. It would be a tribute to the country sometimes called Keum-Su-Gang-San, which means "land of embroidered mountains and rivers." And if consecrated as a peace park, it will serve as exactly the right symbol of the political process that brought the two Koreas back together. In fact, a preserve carved from the demilitarized zone could be the source for replenishing endangered plants and animals lost to development in both North and South. It could also serve as a laboratory to study nature's resilience. In little more than five decades, the natural world has reclaimed an area devastated by war. There is no comparable place on earth.

However, the window of opportunity for preservation



may be closing. In September the two Koreas signed an agreement to build two rail lines and adjacent highways through the zone. Efforts to remove mines have already begun. Roads are likely to follow, and thereafter harm to the environment. That would be a tremendous loss, particularly because preserving this refuge and promoting ties between the Koreas are not mutually exclusive. All it takes is planning. Routes could be established to avoid endangered species' habitats, wetlands and flyways. Vehicles crossing the zone could be restricted to the least-polluting fuels. Passengers could be prohibited from getting out in the corridor until

[편집자주: 韓國戰 휴전 후 50년간의 時間의 妙藥은 세계에서 가장 요새화 된 군사대치지대인 DMZ를 자연생태계인 寶庫로 바꾸어 늘었다. 민족분단의 傷痕의 痕跡을 자연계의 極樂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저명한 Bio-sociology 교수와 우리 동포가 쓴 비무장지대의 활용방안에 대한 글을 여기 소개하여 韓民族의 통일의 날을 내다보는 새해소망으로 부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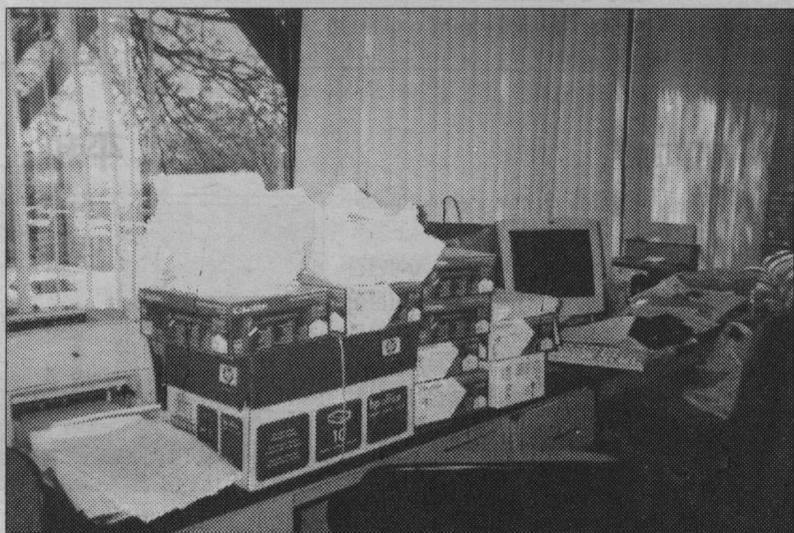
the area is explored, its species cataloged and its critical habitat protected. Workers could enter the zone only to build the roads and rail, leaving no other permanent structures. Environmentally sensitive development is not rocket science. It's standard practice in nature preserve planning and in highway construction in the United States. In southern Florida, for example, underpasses keep roads from interfering with paths used by panthers, black bears and other animals. Canada built underpasses and overpasses for large and small animals to cross the Trans-Canada highway in Banff National Park. President Kim Dae Jung of South Korea campaigned for a "sunshine" policy of warmer relations with the North. Mr. Kim, who leaves office in January, likely sees the roads and rail as his contribution toward achieving that aim. That could explain why he left environmental concerns out of the planning process and put the military

in charge of the project. But destroying the last chance to restore the beauty of Keum-Su-Gang-San is a high and unnecessary price. A more lasting foundation for peace would be the common North-South enterprise of a nature preserve. The United Nations should encourage and offer assistance to the two Koreas to form a peace park. Our colleagues in the scientific world could be mobilized to help. It may seem a forlorn hope that an insular nation with a habit of threatening its neighbors with nuclear weapons would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ts enemy of 50 years) to preserve nature. But the benefits are great, the costs small and the contribution to our planet invaluable.

[필자소개: Ke Chung Kim is professor of entomology at Penn State. Edward O. Wilson is emeritus professor of biology at Harvard. Both are members of the DMZ Forum, an organization to preserve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우리 동창회보는 동문들이 보내주시는 誠金인 구독료로써 발간됩니다.

재미서울대 동창회보의 발행재원을 마련하고 동문들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보내는 "구독료 청구서". 5000여명의 동문들의 주소를 정



비하여 동문들의 성금을 모금하기 위한 "청구서"를 전부 발송하기 위해서는 2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동문들께서 주소 변경시에는 동창회 사무실로 새주소를 알려 주시면 행방불명되는 동창회보로부터 생기는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동창회보가

배달중 분실되는 경우가 있으니 받지 못하는 경우 동창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미주익대 동창회 장학생 선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주동창회에서는 2003년도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동문 자녀 및 동포 학생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대상: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각 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동포 자녀 및 유학생, 서울대학교와 서울의대 동문의 자녀로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

▶분야: 의학, 과학, 경제, 법률, 문학, 신문방송, 예술분야 및 체육특기자 등 전공분야

▶모집인원: 5-6명

▶구비서류: 신청서(동창회 사무실에 비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자필소개서, 추천서 2통, 단체장 추천서(단체 또는 협의회 추천서)

▶신청마감일: 2003년 3월 31일

▶접수 및 문의처: SNUCAA of North America/142-04 Suite 10U-A Bayside Ave., Flushing, NY 11354 (전화 718-888-2622, 팩스 718-888-260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주동창회 장학위원장 한 기 현

美國時論

外交政策의 秘方

[편집자주: 昨속에 국제정세는 911테러 사태의 근원을 발본하고자 한다는 이름아래 歐羅巴와 美國內의 강력한 반대여론이 접중할 예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전복하기 위한 "豫防의 攻撃"의 戰爭의 구름이 감도는 가운데, 핵무기개발과 장거리 미사일개발위협으로 잠재적인 미국의 공격위협을 대처하고자하는 北韓의 버랑글 위기 정책은, 自主外交를 주장하고 나선 신한국 정부에 難題를 제기하고 있다. 不信과 外交修辭學의 亂舞속에서 時宜適切한 有效한 自主外交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기 위하여 여기에 美國의 한 관측자의 글을 우리 동문들의 투고에 참고자료로 부친다.]

Secret Diplomacy: Rules of the Road (NYT, January 19, 2003) By STEVEN R. WEISMAN

WASHINGTON - Secret diplomacy between enemies, a tactic as old as the Peloponnesian War, is back in fashion as the United States searches for the right signal to resolve the confrontation over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The Russians, Chinese and South Koreans are all probing the intentions of the North Koreans to see if there is anything in their threat to create a "sea of fire" if the United States tries to increase military or economic pressure to get its way. The Bush administration says it wants a diplomatic solution, but also insists there is nothing to negotiate until North Korea does what Washington

wants - commit to dismantling its armaments. All this leaves the United States in the peculiar situation of seeking negotiations without appearing to do so, sending messages publicly and through back channels. Veterans of clandestine diplomacy say that experience offers a number of rules the Bush administration would do well to consider.

1) Find the right intermediary.

According to former Secretary of State George P. Shultz, people often offer to serve as a go-between - or agree to, as Gov. Bill Richardson of New Mexico, a former representative at the United Nations under President Bill Clinton, did with the North Koreans in Santa Fe a week ago. "Back channels offer a chance for a lot of people to get into the act," Mr. Shultz said. "You don't want the people you're negotiating with to pick the negotiator. You also don't want your negotiator to be a semi-independent wild card." President Ronald Reagan, he noted, used his private sessions with Russia's ambassador, Anatoly Dobrynin, to send messages to Moscow, though many in the administration feared that Mr. Reagan's messages needed to be vetted.

The Bush administration has so far spurned Mr. Richardson's offer to continue as a mediator, though they approved his initial talks, in part because of his

ties to Mr. Clinton.

2) Look for signals and then pick the one you prefer. The most famous case of secret diplomacy, President Richard M. Nixon's contacts with China, had trouble getting off the ground because of missed signals. Early in his term, Mr. Nixon began looking for avenues to reach Mao Zedong. Because Washington had no relations with Beijing, inquiries were made through Poland, Pakistan and other nations. Mao, at the same time, was trying to reach out to Mr. Nixon by giving an interview to Edgar Snow, the China expert, for Life magazine, then a widely read publication. But, Richard Reeves, author of a book about Nixon, said nobody in the White House or the State Department at that time read Life. "The Chinese and the Americans were going on parallel tracks, unaware of each other's attempts," Mr. Reeves said. As for picking the right signal, this was illustrated by the Cuban missile crisis, when President John F. Kennedy used a secret go-between to the Russian leader, Nikita S. Khrushchev. When conflicting messages about Moscow's intentions came into the White House, Kennedy simply responded to the most conciliatory one. Some experts say that if President Bush were to follow this model, he would only heed the message of a willingness to talk that came through Mr. Richardson, not the public threats.

3) Excessive secrecy may

no longer be necessary, and it may even backfire.

"It is less necessary to use back channels," said John Lewis Gaddis, the Yale historian. "People have gotten used to the idea of secret diplomacy." While engaging in confidential negotiations for President Nixon, the secretary of state, Henry A. Kissinger, was so anxious about keeping his contacts secret that he instructed the Russians not to disclose some of their agreements to the State Department. "That was probably carrying the back channel to an extreme," Mr. Gaddis said. The public now might even believe that secret diplomacy is going on when it is not - including reports of Arab countries making contact with Saddam Hussein to tell him come clean on his weapons programs to avoid being ousted. American officials fear such contacts might give Mr. Hussein a false impression that Washington wants a compromise deal.

4) Make sure what is said in public resembles what is said in private.

During the secret contacts with North Vietnam that led to talks to end the Vietnam War, American officials often asked the North Vietnamese government to corroborate something said in private with a public signal via Radio Hanoi. "You need to ask the other side to respond publicly so you know it's authoritative," said Leslie H. Gelb, president of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nd a former Pentagon and State Department official.

He said signals often were buried in statements issued by Radio Hanoi. If signals are not issued, private negotiations might founder on the public record, many experts say. For example, the public record is that Saudi Arabia and Turkey oppose an invasion of Iraq led by Washington. Though officials may be receptive in private, it might be hard to go back on that public record, which has been broadcast throughout the Arab world. Similarly, it may be hard for President Bush to negotiate with President Kim Jong Il of North Korea because Mr. Bush has said he loathes him.

5) When other avenues fail, try the second track.

The so-called second track has become increasingly popular, Mr. Gelb says, whereby former diplomats and interested parties outside of government meet with counterparts on the other side in a private dialogue that eventually leads to the governments' exchanging messages. The Israeli-Palestinian talks under the aegis of Norwegian mediators in Oslo began with such contacts. But in the end, all these rules are secondary to luck, timing and instinct. "There are windows of opportunity that open and close very quickly," said Robert S. Strauss, a longtime adviser to presidents and Middle East envoy for President Jimmy Carter. "Somebody has to have the authority to move when the window opens and to know what they want."

지혜의 샘 (The Melian Dialogue)

帝國의 平和(PAX-AMERICANA)와 自主外交를 위한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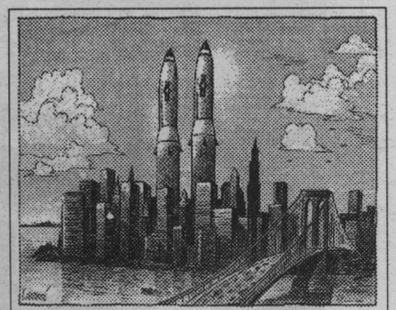
THUCYDIDES, THE PELOPONNESIAN WAR: a comprehensive guide to the Peloponnesian War, ed. by Robert Strassler, New York, Free Press, 1996

"The Melian Dialogue"은 고대 희랍의 역사가 Thucydides 가 쓴 고대희랍세계를 뒤흔든 20여년간 (BC. 431-11)의 Athenian Empire 가 이야기한 戰爭史에 나오는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외교협상과 그 비정한 결말을 기록하고 있다. Thucydides의 이 전쟁사는 동양의 고전적 소설 三國志演義(나관중 作)이상으로 흥미진진하며 삼국지와는 달리 전쟁의 고비마다 펼쳐지는 政策路線의 대결의 論理를 극명하게 재구성하여 帝國主義 戰爭構造와 이 전쟁이 미치는 國內에 미치는 영향력을 필진하게 그려 정치학도에게는 필독의 서적임. 戰雲이 감도는 요즘의 "하수상한 시절"에 권장할만한 古典이며 自主外交의 여지를 모색하는 낭만적 理想主義者들과 帝國의 平和주의자들에게, 냉엄한 國際政治構造와 전쟁정책의 문제점을 寸鐵殺人的 劇本으로 보여준다. 이 賢者의 教훈을 名著, The History, 특히 BK 5: 85-111에 있는 "The Melian Dialogue"는 南北韓의 當路者들에게 또 帝國의 平和主義者들에게는 시실리 원정에서 아테네가 얻은 준엄한 自滅의 教훈을 오늘에도 전한다. 冊으로부터 오는 知慧는 通讀 끝에 옴으로 政治의 세계를 觀照하고자하는 동문들에게 이 책의 一讀과 完讀을 권장함.



평양의 군중대회

帝國의 平和



2002년 12월 시카고대 강의실 C106에 붙은 어느 학생작품(原題는 The Bush Memorial)

백년의 삶 백년의 꿈

육길원 (사대 63년졸)

미주 이민 100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이 달은 이민의 달이다. 아니, 금년 내내 이민의 해가 될 것 같다. 한미 양국 정부는 올해를 '한국 이민의 해'로 선포했다.

지난 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100주년 기념 최대 하이라이트인 기념식과 만찬이 국내외 많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11일에는 젊은이들의 단체인 한미연합회(KAC)가 전국 조직으로 재도약했다. 12일에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담긴 기념비 제막식과 퍼레이드가 이어졌다. 그리고 14일에는 기념식 뒤풀이로 패티김, 조영남 등 인기가수들이 대거 출연한 '열린 음악회'가 호놀룰루 와이키키 해변에서 펼쳐졌다. 수구와 폐쇄로 기울어 가던 대한민국, 백년전 그 겨울 갤릭(Gaelic)호를 타고 제물포항을 떠나 20여일 항해 끝에 미지의 신천지에 내린 102명의 용감한 개척자들을 기리기 위해 거행된 역사적인 행사에 참석한 나는 감동의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가진 것이라고는 맨손에 용기 뿐, 칼 같은 사탕수수 뽑으며 피흘린 거친 손, 피약별과 채찍을 인고로 이기고 광복과 지식 교육에 몰두했던 흰 옷 입은 선각들을 떠올리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제 그 피땀의 결실인 '백년의 삶'은 그윽한 향기 뿜으며 '백년의 꿈'으로 비상하고 있다.

얼마 전 사탕수수밭 노동자의 후손인 80세의 한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떠났던 제물포(인천)를 찾아 "8시간 비행도 힘든데 20여일의 배팅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때 얼어붙었던 제물포 항구는 이제 국력의 상징인 인천국제공항이 되었으니 상전벽해를 실감나게 한다. 지난 해 6월 월드컵 4강 신화 창조, 12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

올해 미주 이민 100주년 기념으로 이어지는 민족사의 전개 과정을 보면서 박찬 감회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

개척의 1번지 하와이 땅은 이제 농노의 한이 서린 남의 땅이 아니고 박찬 희망으로 다가선 우리의 땅임을 웅변하고 있다. 하와이 주민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있는 인물은 문대양 대법원장이다. 그는 농노 이민의 3세 후손으로 우뚝 서있다. 빅 아일랜드의 민선시장 해리 김도 사탕수수밭의 후예이다. 하와이주 검찰총장이 데니 현, 미스 유니버스 부르크 이 양도 한국계이다. 한국 젊은이들의 모델인 하와이 주 의회 부의장 실비아도 한국계이다.

통칭 7만명의 한국인들은 각계 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거액의 사재를 회사에서 100주년 행사를 필생의 사업으로 여기고 헌신하고 있는 김창원 기념사업회 총회장의 아버지도 갤릭호 출신이고 어머니는 '사진신부'였다.

이들이 낯설고 물신 척박한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민들레와 같은 강인한 생명력과 용감한 개척정신 때문이다. 그들의 불굴의 의지는 미주 땅에 2백만명이라는 거대한 뿌리를 내리게 했으며, 이를 시발로 세계방방곡곡에 한국인이 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뻗어나갔다. '대한민국의 장엄한 일대 서사시'를 기록한 것이다.

개척정신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민족의 저력은 바로 기독교 정신에서 나왔다. 초기 이민자들은 그들의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금을 했다. 자식들에게 철저히 기독교 교육을 시켰다.

기념식에서 주제강연을 한 문대양 대법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교회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



나라 의무적이었다. 정직 근면 겸손을 강조했던 아버지는 거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했다.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 신도회장 등 교회봉사에 열심이었던 아버지의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다. 내가 12살 때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었다. 하루는 한 소년이 가게에 들어와 고민스러운 얼굴로 물건을 고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소년에게 무엇을 사려고 하는냐고 묻자, 소년은 어머니날 선물을 찾겠다고 했다. 얼마 후 소년은 여자 손지갑을 들고 와서 얼마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소년에게 얼마를 갖고 있는지 물었다. 소년은 65전이 전부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그 물건값이 마침 65전이더라면서 소년에게 지갑을 팔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실제 가격은 2불 50전 짜리다. 나는 그 때 그 소년이 행복한 표정으로 가게를 나가던 뒷모습과 잘 가라고 아이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의 가르침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문대양 대법원장은 말했다.

오 헨리의 동화वाद과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 교과서처럼 잔잔한 감동을 안겨준다.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삶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100주년은 우리의 응집력과 각성의 계기를 마련했다.

100년의 삶이 100년의 꿈으로 이어지는 2003년은 도약의 이정표가 되어야 하는 특별한 뜻을 지닌 해이다.

하와이에서. <한국일보 2003년 1월 23일자에서 전재>

假本籍

나수섭 (의대 50년졸)

나의 기억에 따르면 내 본적지는 평안남도 순천군 순천면 전산리 9번지였다. 나의 할아버지는 관리셨는데 41세에 피부에 생긴 감염증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우리 아버지는 남자만 네 형제로서 조모님 편모 슬하에서 자라나셨다. 나의 이 본적지는 우리 할머니의 고향 지명이다. 나는 우리 아버지께서 소학교 교원으로 계실 때 태어났다. 내가 세 살 때에 나의 출생지 진남포를 떠나서 순천에 한동안 살았고 그 뒤에 내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평양 류정(야나기 마찌) 이후의 유년기로부터 시작된다.

서루에 기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본적지는 평남 순천이었던 것이 서울로 월남하고 나서 한국 전쟁을 겪은 뒤 얼마 있다가 행정령 개정 따라 이북출신 사람들은 원래의 본적지를 쓰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에 가본적이라 하여 서울의 현주소를 적어 넣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서 내과 소아과를 개업하시던 이층 셋방의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197번지를 쓰게 되었다. 처음부터 이 가본적은 내 마음에 별로 달갑지 않았고 평안남도의 우리 본적지를 쓰지 말라는 처사에 대하여 뭔가 마음에 좋지 않게 느껴졌다.

이제는 우리 가족이 멀리 바다를 건너와서 미국인으로 살고 있다. 나에게 자주 기억나는 것이 우리가 소학교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서 나오던 일본인 재미교포에 관한 글들이 있었는데 그 때에는 나도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먼 데 가서 살고 있을까 하고 좀 이상해 하는 느낌이었다. 앞으로의 한국의 후세들은 먼 뒷날에 미국에서 사는 동포들의 모습을 어떤 심정으로 읽게 되겠는가 하고 생각에 잠기는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 해 전에 들은 바로는 같

은 동창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을 "남이야 어찌



되던 나부터 먼저 잘 살아보기 위하여 갔다"하며 비난하는 어조로 평한다고 들은 바 있었다. 사실 미국에서 살면서 왜 나는 고향을 떠나 여기서 살게 되었나 하고 한탄하는 조로 생각에 잠기는 때도 있는데 그것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이라. 한마디로 말한다면 38선이 유죄라 할 것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미국에 건너가 자리 잡게 된 우리들을 대략 두 개의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생활 형편이 좋아지지 않으니 영어로 말해서 "Could not be worse"라고 할 신세라 할 수 없이 이민해온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뭔가 좀더 화려하게 살아보겠다는 마음에서 출발한 사람들로 구분할 수도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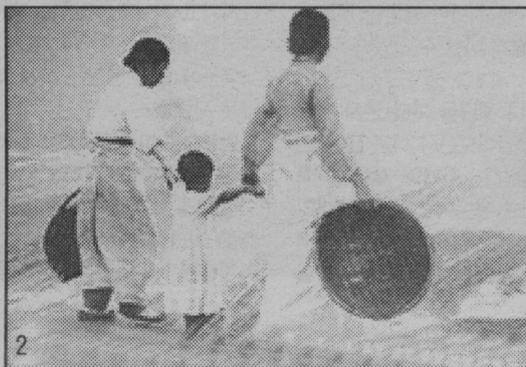
어떻게든 같은 재능을 가지고 노력해도 좀더 좋은 환경 속에서 누구든지 더 빨리 비약할 수 있겠고 또 그럼으로써 과학이나 경제나 어떤 분야에서든 세계의 첨단으로 치솟을 수 있다면 어차피 어디에 살든지 "Korean"의 이름을 떨치는 결과가 되겠으니 다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서양의 나라인 미국에서 동양인으로서의 삶은 뭔가 "가본적"의 명패를 지니고 살고 있다는 느낌을 부인할 수 없는 터이다.

인간은 창조주의 지으심을 받아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잠시 다 지나가는 인간의 삶은 천상분향에 들기 바라며 걷는 순례의 여정이기에 그것은 나그네길이요 그곳에 들기까지 지상에서의 삶은 만년 가본적을 지니고 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韓人 미주 移民 100주년 기념화보

- ①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자들을 실어나르던 증기선
- ② 사탕수수밭 노동자들의 부인 '사진신부'들이 교된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귀가
- ③ 조국을 그리던 이민선조들의 한때
- ④ 이민100주년 기념식장에 온 생존한 초기이민 2세 할머니들



韓人 海外同胞들의 영원한 마음의 故鄉 "아리랑"

-하와이 한인 이민 백주년 기념 행사에 다녀와서-

朴京民(의대 53년입, 뉴잉글랜드 미주한인 백주년기념 사업회 회장)

< I >

지난 1월 10일 雪國을 방불케 할만큼 산더미 같이 쌓인 눈 속에 과묵히 버린 추운 뉴잉글랜드 겨울 날씨의 보스턴에서 나는 겨울옷차림 그대로 비행기를 뒀다. 하와이 韓人 移民 백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십여 시간의 긴 航路로 막막한 太平洋을 건너 常夏의 땅, 地上의樂園이라고 불리는 호놀룰루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時差로 어둠이 내려갈리는 저녁에 착륙하는 순간, 피부에 닿는 섬 특유의 훈훈한 공기와 부슬부슬 내리는 약간의 비와 함께 구름이 짙게 깔린 하늘, 아자수 잎들을 살랑살랑 흔들어대는 바람소리, 이름 모를 꽃들의 향기와 여러 종류의 새들이 찾아온다. 쌓인 피로가 말끔히 씻어 내리는 것 같았다. 하와이는 이미 몇 차례의 관광 및 학술대회등으로 둘러싸여 낯설지 않은 곳이지만 올 때마다 느끼는 감회가 달랐다. 금년은 1903년 1월 13일에 사탕수수밭 노동자로 102명의 우리 先祖 移民者들이 1902년 12월 22일 濟物補를 떠나 美國籍 蒸氣船 S.S. GAELIC 號에 몸을 싣고 太平洋의 波高를 넘어 20여 일의 기나긴 航海 끝에 호놀룰루 항구에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해로부터 백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더욱 감회가 교차되었다.

실은 나도 30여 년 전 1960년대 말 취업이민자로서 Northwest 비행기편으로 가족들과 함께 미국 본토로 가는 도중 며칠간의 觀光을 위해 하와이에 내려 미국입국 수속절차를 밟았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새겨진다. 백년 전 당시 "Aloha"의 뜻도 모르고 물설고 낯설은 땅, 음식이 다르고 생활습관이 다른 未知의 땅, 이민 선조들의 뼈아팠던 과거의 역사가 담겨진 이 땅에 와서 映畫에서나 본 와이키키 海邊을 찾아 悠悠自適하다 本土로 떠났던 나 자신을 이제 되돌아본다. 개척자의 고난의 삶을 살다가선 先祖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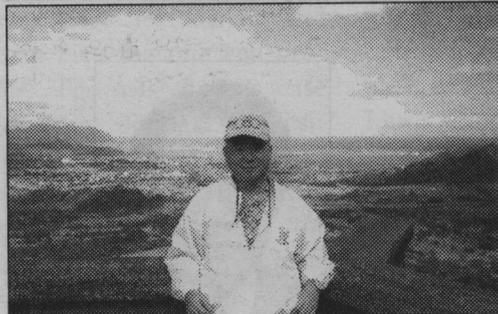
돌아보면 나 자신은 전문직을 그대로 살려 미국 주류사회에서 당당하게 미국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하며 어렵지 않게 삶의 터전을 이루었던 것 같다. 이런 自慢에서 "자기 배부르면 종의 배고픔을 모른다"는 옛말이 있듯이, 나는 이민 선조자들의 피눈물나는 역경과 고난으로 점철된 誇란만장한 역사를 잘 몰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자리잡고 살면서 同胞사회와 관계를 맺고 봉사하게 됨으로써 자연히 미주한인사회의 형성과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여 "과거의 역사를 모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지나간 이민역사에 눈을 돌려 공부하게 되었다. 이제 "미주한인백주년기념사업회"의 일원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져 다시 하와이를 찾게 되었다.

"Aloha!" 하와이를 찾는 外地人들에게 歡迎의 뜻으로 널리 쓰이는 이 인사는, 목에 걸어주는 꽃 목거리와 합

께 하와이인 특유의 손님을 맞이하는 傳統禮儀이다. 이민 백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屋內外 집회를 마른하고 내내 이 단어를 목청 높게 같이 부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와이 전체인구는 약 130만 가량이며 그 중에 韓人 동포수는 현재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수는 적지만 이민 5세까지 배출한 백년의 역사 속에서 사탕수수밭 노동자에 종사했던 1세들로부터 미국 市民權을 취득한 1.5세, 2세들이 專門職에 진출하여 3세에 이르러 현 하와이주 대법원장인 Ronald 문(文大洋)을 위시해서 많은 이들이 하와이 主流社會에 진출하였다. 또한 1960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후기 이민자들도 각종 牛業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어 마음 뿌듯하였다. 그러나 하와이는 전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日本系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 한인동포들은 적은 비율이지만, 이민백주년을 맞는 하와이는 祝祭분위기에 들떠 있었으며 각 호텔마다 한국, 美國本土, 일본 등에서 기념식에 참가하기 위한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1월 12일 오전에는 관광버스로 시내를 둘러보고 미주 한인 이민백주년 기념 조형물 제막식에 참가하였다. 오후에 와이키키 해변에서 화려하게 펼쳐진 "코리안 퍼레이드"에는 대한민국 海軍軍악대와 미국 海兵軍악대 그리고 하와이를 비롯한 미주 각주의 다양한 문화 공연팀 등 약 2천여 명이 참가하여 한인사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이민 후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이날 저녁에는 우연히 대학 졸업 후 40여 년 만에 만난 金海岩 선배님(의대 52년입 정신과전문의, NY 거주)과 함께 KAC(한미연합회) 주최의 夕陽의 巡航船上("Sunset Cruise")의 晚餐에 초대받았다. 여기에는 이민 백주년을 기념하여 하와이 현지에서 녹화제작되는 KBS 특집공연에 출연하려 온 페티김, 조영남 등의 유명 연예인들과 함께 호놀룰루 앞 바다의 붉은 落照를 바라보며 船上에서 하와이 원주민의 음악과 춤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 13일 오전 10시에는 역사적인 이민 백주년 기념식이 힐튼 하와이 언 빌리지 Coral Ballroom에서 하와이를 비롯하여 한국, 미 본토 등에서 참석한 천여명의 인사들과 김창원 미주한인백주년기념사업회 총회장, 하와이주 Linda Lingle 주지사, 박관용 대한민국 국회의장 등을 비롯한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양국의 깃발아래 한국해군 군악대의 연주에 맞추어서 "The Star-Spangled Banner"와 "애국가"가 제창되었고 선조 이민자들의 개척자 정신을 추앙하는 각계 대표들의 축사가 있었다. 특히 Guest Speaker인 Ronald 문 하와이주 대법원장(이민 3세)의 心響을 울리는 기조연설은 매우 감명깊었다. 저녁에는 같은 장소에서 약 1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주 이민백주년 기념만찬이 한국계 미스 유니버스



이민 선조들의 고난사를 생각하며 오하우섬을 방문하고 있는 필자

출신인 브룩 리의 사회로 박찬웅 오하이오 주립대학 교수의 관소리를 비롯해 여러 가지 문화공연이 펼쳐지면서 상대적으로 치루어졌다. 서울에서 孤兒로 지내다 10대에 미국 가정에 입양되어 워싱턴주 주 상원의 부의장이 된 "폴 신"(신호범)의 기조연설은 감동적 이었으며 몇 년 전 보스턴에서 만난 적이 있어 더욱 반가웠다.

14일 오전에는 "하와이 한국 독립기념관" 개막식과 "무명 애국선열 추모비" 제막식에 참가하여 조국 독립을 위해 生命을 바친 수많은 이민 선조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들 가슴속에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다. 그동안 이곳에 살고 있는 2세, 3세들과 동포들의 간절한 소망이며 열원이었는데 이 추모비 건립은 이제 이 땅에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이민역사로 남겨주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오후에는 백주년 기념행사의 白眉인 "KBS 열린 음악회"가 와이키키 해변의 野外 音樂堂 (Waikiki Shell)에서 개최되어 무료공연이었으나 입장권을 지참한 수천명의 관객으로 山人海를 이루었다. 하와이의 인기스타들과 설운도, 현철, 송대관, 태진아, 조영남, 인순이, 패티김 등의 국내 일류 대중가요 연예인들이 뽐내내는 熱唱속에 어울린 관객들의 열띤 호응은 둥근 달이 환하게 비친 야자수 그늘이 드리운 해변을 뜨겁게 달구었다.

페티김의 "서울의 찬가", 하와이 민요인 "알로하오에", 세계 4강의 월드컵 신화를 이루게 한 구호인 "대한민국"과 응원가인 "오! 필승 코리아"는 전출연자가 민요팀, 하와이 민속춤, 하와이 교민합창단과 어울려 관중들과 함께 불렀다. 이 축제는 苦難과 榮光이 뒤엉킨 100년의 미주 한인이민역사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한 것 같았다. 또한 100분 공연의 大尾는 지난 월드컵 축구경기와 아세아 올림픽에서 울려 퍼진 "아리랑"의 합창이었다. 수천명의 관중이 모두 일어서서 太極扇을 흔들고 소형 電池불을 반짝이면서 향수에 젖은 타향살이의 설움을 달래며 눈물을 머금고 부른 이 노래는 하와이의 민요 "Aloha Oe"와 같이 우리 韓民族의 恨이 서린 영원한 民族의 노래이며 故鄉이 아닐 수 없었다.

< II >

공연이 끝나 해변을 따라 혼자 발길을 호텔까지 걸어오면서 나는 많은 想念에 사로잡혔다. 첫째의 話頭는 "왜 우리는 미국에 왔는가?" 둘째는 "아리랑은 우리 海外同胞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5박 6일의 백주년 기념행사 일

정을 마감하면서 나 자신에게 묻는 이 질문들은 기념행사에 참석한 우리 한인 동포들의 머릿속에도 맴돌고 있지 않았을까?

첫째, 한민족의 해외 이주 역사는 대한 제국 말기인 20세기 초 일제 합병전후와 또는 일제 식민치하의 수탈정책으로 생존마저 위협받던 빈곤한

농민들의 경제적 이민과 주권회복 운동에 앞장섰던 先賢들의 정치적 망명으로 시작되었다. 移住地는 주로 국경 넘어 인접지역인 북간도, 연해주, 만주, 중국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의 강권이나 강제 동원으로 일본방, 사할린, 중국, 만주, 남태평양 島嶼로 끌려간 군인, 군속, 징용자, 정신대원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일부와 취업 移民者들이었던 많은 在日동포들은 解放이 되었으나 조국의 분단으로 그리운 고향을 지적에 두고도 돌아오지 못한 채 집콕의 지난 역사를 되짚으며 望鄉의 恨을 품고 살아가는 듯하다.

미국땅에는 공식적 기록상 한국인의 집단 이주는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한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 이민자 102명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백년간 다사다난했던 우리 조국의 최근대사와 함께 해외 이민수는 오늘날 5백 50만 명이 넘으며 2백만 가까이 되는 한인들이 자리잡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수많은 韓人들이 미국 땅에 와서 살아야만 했는가? 현재에도 이민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가? 美國은 "移民者의 나라". 세계의 각양 의 人種과 民族들이 大西洋과 太平洋의 물결을 타고 각기 다른 이유로 미국 땅을 찾아왔지만 무엇보다도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 피난처로서 미국을 새로운 조국으로 선택한 것으로 안다. 물론 그 밑바닥에는 "American Dream"을 통해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Better Life, Better Future)를 이루려는 간절한 소망이 깔려 있다고 믿는 바이다.

그간 미국은 1620년이래 "세계의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왔으며 이는 1886년 미국 건국 백주년을 기념하여 불란서로부터 기증된 "自由의女神像" 제막식에서 러시아계 유대인 후손의 여류시인 엠마 라자르스가 쓴 "새로운 巨人"이라는 獻呈詩를 통해 잘 표현되고 있다.

"여기 바닷물에 씻기고 저녁 노을이 지는 날에 그녀는 햇불을 들고 서있다. 그녀는 쫓겨난 사람들의 어머니, 햇불을 든 그녀의 손은 세상을 향해 환영의 불꽃을 피우고 있다.

지치고 가난한 사람들, 자유롭게 숨쉬기를 갈망하는 무리들, 폭풍에 물려 해안에 지쳐 쓰러진 가없는 사람들,

방황하며 머무를 곳이 없는 사람들을 모두 나에게 보내다오"

그러나 이렇게 "祝福 받은 나라"도 時節 따라 달라져간다. 少數民族들의 이민생활도 근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9.11 테러사태이후 미국은 自國의 利蝕과 安全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펴서 "富強의 나라, 소수 민족에게 관용을 베푸는 나라"에서 "強者의 위엄을 지키는 나라"로 변하고 있다. 미주 한인사회는 이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설계하여 성공한 이민자가 되기 위하여 피땀 어린 노력을 더욱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거기서 얻어지고 경험할 귀중한 歷史와 精神과 資產을 이 땅에 뿌리박고 살아갈 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이다.

백년 전 초기 이민자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교육에 힘쓰며 조국독립운동을 물심 양면으로 후원하여 오늘을 사는 후기 이민자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긴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우리들에게 미국 이민의 목적이 오직 가난을 면하고 돈만 벌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 잘먹고 잘살며 자식교육 잘 시키는 것으로 끝난다면 미주 동포사회의 장래는 발전이 없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성공한 유대인들이 離散(Diaspora)의 상황이지만 투철한 정신으로 노력하여 미국 각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미국을 그들의 "제2의 가나안"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도 "기회의 땅"인 미국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우리는 中國人들의 同族愛를 바탕으로 한 사고방식과 단결력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조상의 나라 韓國과 새로운 조국의 땅 美國을 위해, 또한 同胞社會를 위해 더 나아가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자문자답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동포사회, 조국과 미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海外에 나와 살면서도 조국을 위한 길이 아닐까?

이를 위해 미주 한인백주년기념사업회가 하와이를 시작으로 LA, SF, NY, 워싱턴 DC, Chicago, Atlanta, Philadelphia, New England(Boston), Miami, 북아리조나, Houston, 캔터키주 루이빌, 신시내티 오하이오, 시애틀, 후레스노 지역과 한국 내에서도 조직되었다. 지역마다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하와이의 김창원 전국 회장(모교 공대 수확후 하와이대 졸업)을 비롯하여 많은 서울대 동문들이 참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New England 지역도 필자와 함께 김은환(의대), 정정욱(의대), 이의인(공대), 윤상래(수의대), 신상철(공대), 변화경(음대), 윤용훈(공대), 이영길(의대), 주봉갑(의대) 김영호(치대), 김동희(간호대), 백린(명예회원), 인준식(사대), 김문소(수의대), 이강원(공대), 정태진(의대), 안광원(의대), 손정호(의대)<無順> 제 동문들이 이 역사적 의의가 담긴 사업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더 많은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1면에 계속>

<10면에서 계속>

▲아리랑의 다양한 가사들

-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이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정선)
- 아리 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리랑이 냐네
- 아리랑 아리랑이 날 넘겨 주소 (밀양)
- 아리 당다중 쓰리 당다중 아리랑이 냐네
- 아리랑 아리랑이 잘 넘어간다. (밀양)
-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리랑이 냐네
- 아리랑 응용 아리랑이 냐네. (진도)
-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리랑이
-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강원도)
- 아리랑이 아리랑이
- 아리랑 아리랑이 아리랑이. (여주)

둘째로 민족의 노래 '아리랑'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이 노래는 지난해 한국이 월드컵 축구에서 4강에 도달한 "기적", 부산에서 개최된 아세안 올림픽 대회에서는 南北이 같이 불렀고,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화해의 무드가 조성됨으로써 南北韓이 각자의 國歌를 따로 부르면서도 理念과 體制를 넘어 7천만 한국인들이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아니 거부할 수 없는 노래가 아닌가 한다. 이 "아리랑"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재의 동포들에게는 무의식 속에도 조국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精神的 支柱가 아닐까?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라는 이 구슬픈 노래가

락은 과연 우리 조국 韓國에게는 어떤 존재이며 또 언제부터 우리 韓國民과 어떤 인연을 맺어 왔는가? 특히 우리 재의 동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선 "아리랑"하면 1920년대의 無聲 映畫시대가 생각난다. 3.1운동 이후 암울한 식민지 상황에서 미처버릴 정도로 슬막하고 고통스러웠던 시기에 "映畫의 鬼才" 羅雲奎 감독이 (1902-1937) 제작한 영화 "아리랑"에서 미처 버린 주인공인 영진 역을 맡아 일제 식민지하의 한국 청년의 고민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이 영화 내용은 辯士의 구성진 목소리로 영화의 마지막 대목에서 모든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고 영화의 주제곡인 "아리랑"을 다같이 불렀다고 한다. [편집자주: 연극평론가 柳敏榮은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이 편찬한 한국문화사 대사전의 나운규편에서 그를 評하기를, "15년 동안 29편의 작품을 남기고 26편의 영화에 출연하였으며 직접 각본, 감독, 주연을 맡은 영화가 15편이나 되며 그는 투철한 민족정신과 예술관을 가진 최초의 시나리오 작가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배우양성자이며 연기지도자였다"라고 하였다]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던 이 영화는 기록에 의하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 순회 상영에서 2년 6개월 간 수많은 관객을 동원하였고 1926년 상반기에만 110만 명의 관객이 이 영화를 찾은 것은 당시의 우리 현실과 대중의 정서를 잘 묘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현재 가장 흔히 부르는 "아리랑"의 가사는 "경이 아리랑"을 모태로 하여 신 민요조의 曲調를 빌려만

든 것이라고 하는데 가사 내용은 나운규의 創作영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아리랑은 地方的 특색에 따라 각기 다른 내용을 담고, 살아온 시대에 따라 庶民들에 의해 當代의 삶을 한풀이하고 있다. 특정한 형식을 따른 전통음악인 雅樂과는 달리 봉건 시대에 억눌려 살았던 하층계급인 농민, 상인들과 같은 서민들의 哀愁를 담고 그들의 감정을 뒤트는 일정한 가락으로 자연스럽게 어느 격식에도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고쳐져 입에서 입으로 꾸준히 전해져왔다. 하여 아리랑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하듯이 앞으로도 우리 한민족과 함께 같이 웃고 울면서 불리워지지 않을까?

여하간 이러한 "아리랑" 노래를 들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國內동포들뿐 아니라 海外동포들 모두에게 다를 바가 없다. 舊韓末 祖國이 힘이 없고 위정자들이 못나서 나라의 主權을 日本에게 넘겨주고 일제의 식민지로 36년을 사는 동안 우리 민족은 日帝에 의해 財產을 빼앗기고 精神을 도둑질 당하였지만 우리민족의 노래 "아리랑"만은 日帝가 빼앗아 갈 수 없었다. 그 노래는 1919년 이름없는 백성들이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강력히 저항하며 조국의 독립을 울부짖었던 3.1독립운동 만세 속에서도 울려 나왔다. 일제의 핍박과 가난을 벗어나려고 북간도, 시베리아, 하와이, 미국, 멕시코로 떠났던 移民者들에 묻혀 따라 불려졌던 그 노래. 일제 말 강제로 군인, 군속, 징용, 挺身隊에 끌려가 일본, 만주, 중국, 남태평양 섬에서 고향을

그리며 그들이 몰래 불렀던 그 노래, 민족을 걱정하며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으려고 만주, 중국, 소련, 미국 등의 해외에서 독립군으로 또는 독립투사로 일제와 싸우면서 선구자들이 목매어 불렀던 그 노래, 윤동주 詩人과 같은 수많은 愛國志士들이 일제의 監獄에서도 부르던 그 노래가 "아리랑"이었다. 그러나 그때 "아리랑"을 부르며 고향의 삶을 살았던 그들... 激動의 역사에 휩쓸려 빠이른 상처와 굴욕적인 민족의 수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歷史의 證人들이었던 우리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가까이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제 거의 세상을 떠났고 그 굴욕과 수난의 역사는 이제 우리의 기억에만 희미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때 그 시절 아리랑을 부르며 고향을 달랐던 先祖들의 간절한 소원은 오늘날 과연 이루어졌는가? 이민 백주년을 맞은 이 때에, 祖國光復 60주년을 2년 앞둔 이 時點에, 우리는 自問하게 된다. 나는 故國을 떠나 미국 땅에 살고 있는 在外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자칫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잊혀질 수 있는 초기 이민 1세들의 강인한 開拓者 정신과 愛國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그런데 현재 그들의 많은 後孫들은 갈 곳 없어 하와이 養老院에서 "아리랑"을 부르며 쓸쓸히 외롭게 삶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이 모습은 내일의 우리 自畫像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와이의 Hilo 共同墓地에는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일하기 위해 102명의 노동 이민자들이 도착한 후 1905년까지 약 7천명으로

늘어난 이민 1세들과 가족들이 겪었던 사탕수수밭에서의 피눈물나는 고초 (苦楚)와 亡國의 설움, 그리고 望鄉의 恨을 담은 獻呈詩가 韓人移民祖上紀念碑에 새겨져 있는데 그 제목은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이며 그 詩歌는 다음과 같다:

흰옷 입은 조선사람 태평양 건너와서
 낯선 하와이 푸른 꿈을 심었었네.
 앞사간 선조들의 뜻 백년 두고 새로워
 사탕수수 그 농사는 채찍질에 해 저물고
 사근신부 고운 손엔 마디마디 거친 세월
 받고랑 배어 있는 맘 속숨 거른 아슬아!
 잃은 나라 되찾으려 한민족 한이 맺혀
 파궂는 가슴으로 가니 갈려 독립자금
 어뎀던 그 하늘 아래 불 밝히던 사람아!
 바람 타고 구름 타고 고향산천 대보내고
 눈물로 별 헤던 밤 이젠 잊고 쉬소서!
 목매어 부르던 아리랑 우리 불려드러리.

사진설명

①하와이 한인이민100주년을 기념하는 조형물 제막식 ②독립문화원 입구에 장식된 무궁화꽃과 독립문 ③2003년 1월 14일에 열린 無名愛國志士 추모비 제막식에서 ④호놀룰루 총영사관내에 있는 하와이 광복운동기념탑 ⑤필자와 김해암 선배님(의대 52년)과 Miss 하와이 ⑥李朝王朝 마지막 왕세자인 이구씨의 전 부인 주리아 여사와 함께 ⑦이민 100주년기념 KBS올림피아드 ⑧호놀룰루 앞 바다의 유럽선상에서 본 落照 ⑨코리아an 퍼레이드에 참석한 미스 하와이 美女들의 무개차 행렬 ⑩농악대와 사물놀이단 ⑪한국해군사관생도들의 행진 ⑫1993년에 하와이주 대법원장에 임명되어 2010년까지 재임했던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자의 아들 자랑스런 이민 2세 文大洋씨(Ronald Moon) ⑬고아로 자라나 워싱턴주 상원부의장이 된 자랑스런 교포 신호범씨

하와이 이민 100주년 기념식장의 이모저모 (2003년 1월 10일~15일)



하이티 醫療宣敎를 다녀와서

鄭正旭(의대 66년졸, Brown 의대 교수)

지난 4월 동남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중의 하나인 라오스에 宣敎여행을 다녀온 후 이번에는 서반구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인 하이티에 2002년 11월 7일부터 선교여행을 다녀왔다. 예방약, 말라리아 예방약, 모금, 의약품, 칫솔, 학용품, 비누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하이티는 콜럼버스가 1492년 발견한 섬으로 서쪽 삼분의 일이 하이티이고 동쪽 삼분의 이가 도미니카 공화국이다. 보스톤에서 비행기로 4시간 반 마이아미에서 2시간 반 남쪽 카리비안해에 있는 메리랜드 주보다 작은 나라이다. 잠깐 그 역사를 살펴보면 원래 섬 전체가 스페인 통치하에 있었으나 불란서계 海賊들이 섬 서쪽에 거점에 두고 여러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 노예로 쓰며 사탕무, 커피, 목화, 럼주를 공급하는 중요한 佛蘭西 植民地가 되었다. 1791-1803 13년간의 흑인 노예의 蜂起로 나폴레옹이 軍隊을 파견하였으나 반란진압에 실패하였고 1804년 서반구에서 2번째의 공화국으로 독립하면서 代價로 불란서에 1억 5천만 프랑을 배상금으로 지불했다. 1915-1934년 미국해병대가 주둔하였고 30년간의 듀발리에의 獨裁 후 1991년 Aristide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군인들의 정치참여로 政變을 겪은 후 2001년부터 그의 두번째 임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 人口는 7백만명이 넘고 95% 이상이 흑인이고 백인은 5%미만이며 높은 幼兒死亡率과 5%이상의 면역결핍증 감염으로 평균수명이 50세에 불과하다. 宗教는 85%가 카톨릭이고 15%미만이 改新敎 신자이며 아프리카 迷信(Voodoo)의 주민들에게 영향력이 크다. 현재 人口의 70%가 직장이 없고 電氣 공급이 하루 3시간 정도이며 많은 家庭에 전기가 없고 電話도 없다. 가끔 쌍룡, 기아차 광고는 보았으나 중국, 일본, 한국 음식점은 보이지 않았고 臺灣에서 空港와 首都에 공원과 축구장을 지어주었다 한다.

로드아일랜드 연합교단과 하이티 EMBB 교단과의 선교관계는 10년 전에 시작되었으나 활발한 왕래와 의료선교가 있는 지는 겨우 3년째이다. 보통 宣敎團은 10명 정도이나 이번에는 목사님 5명을 포함 15명이 선출되었다. 어떤 이는 3번째로 선교단을 인솔하며 하이티 방문은 이번이 16번째라고 들었다. 醫療陣은 필자와 산부인과 전문의인 이길자, 미국인 소아과 의사와 간호원 2명이었고 醫藥品으로는 항생제, 연고, 비타민, 제산제, 타이레놀, 붕대, 반창고 등을 구입 또는 준비하였고 送料가 비싸므로 각 임

원이 70파운드 짜리 가방 2개씩을 직접 운반하였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전북노회에서 노회장과 선교 협회장 두 목사님이 참관차 오셔서 우리 夫婦는 진료와 통역을 겸하였고 전북노회에서 가져온 회사금은 진료지에서 우물을 퍼 올리는 펌프 설치 비용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11월 7일 새벽 4시에 집을 떠나 보스톤, 마이아미를 거쳐 오후 3시경 하이티의 포트오 프린스 空港 (Port au France)에 도착하였다. 국제공항치고는 너무 초라했고 熱帶氣候地인데도 설치된 扇風機 몇 대는 장식품에 불과하였다. 탱 탱이라는 작은 軍用三輪車 모양의 차량에 짐과 사람이 타고 먼지로 가득 찬 首都 포트오 프린스를 달렸다. 이 수도는 3백만 인구가 밀집한 도시로 쓰레기로 가득 차고 車가 많고 貧富隔差가 심하며 더운 날씨치고는 행인들의 衣服이 깨끗하고 단정해 보였다. 작동하는 신호등이나 경찰이 별로 보이지 않아 모두들 눈치로 재치있게 운전을 하는 것 같다.

宿所가 부족하여 5명은 호텔을 이용하였다. 150년 된 유명 호텔인데 유리창에 에어컨디션이 있고, 천정에 선풍기가 돌고 밤새 電氣가 있다는 것으로는 숙박료 하루80불은 너무 비쌌다. 더운물은 가는 물줄기 몇 방울이고, 수건은 낡아서 구멍이 났고 TV도 잘 작동하지 않았다.

우리는 4일동안 약 500명의 患者를 진료하였는데 이틀동안은 교회와 보건소가 같이 있는 都市에서, 하루는 1시간 반 떨어진 한 농촌의 학교에서 있었고 마지막 하루는 5시간 떨어진 도미니카 국경의 山岳地帶의 교회에서 진료를 하였다. 마지막 진료지는 도로포장이 안 되어있는 험한 돌길이라 정비사 두 사람이 동승하였고 먼지가 심하게 붙어 마스크를 하고 차를 탔으나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150명 정도의 환자가 기다리고 있어 점심 저녁을 굶으며 진료를 마쳤으며 下山路에는 타이어가 네 번이나 펑크가 나서 즉석수리와 원시적인 공기 펌프를 사용하여 겨우 한밤 주 12시 가까이 도착했을 때는 식당문도 닫혀서 이날은 식사도 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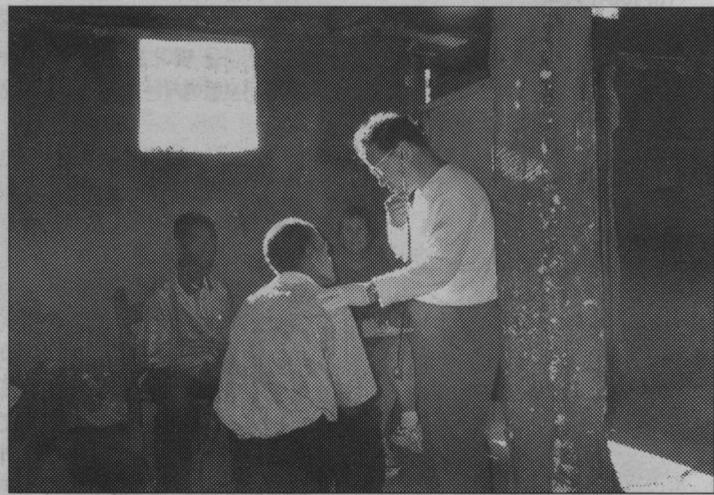
모든 男子환자는 내가, 女子환자는 이길자 산부인과 의사, 小兒科 환자는 다른 의사가 치료하였다. 주민들은 너무 가난해 의사에게 갈 여유가 없고, 비싸서 담배도 피우지 않고, 굶주려 속이 쓰린 환자가 많았으나 지금까지 함부로 약을 쓰지 못한 탓에 抵抗力이 적어 간단한 항생제로도 치료가 되었다. 나

의 전문분야인 皮膚病이 많아 항생제, 곰팡이병의 연고가 준비한 대로 많이 사용되었다. 급성신장염으로 고열, 통증, 혼수상태로 고통받는 여자환자, 피부가 헐어 고름이 고여있는 환자 등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거의 모든 진료환자에게 비타민 한 병, 타이레놀, 칫솔 등을 나누어 주었다. 많은 家庭에 칫솔이 없어 어떤 집은 9인 가족이 칫솔 1개를 돌려 사용한다고 들었다. 사용言語는 佛語와 흑인들이 만든 크레올이라는 公用語가 있고 매일 통역할 수 있는 학생들을 고용하여 진료와 의사소통에 지장은 없었다. 미리 준비한 돈으로 우물 파는 회사를 방문하여 농촌 학교 앞에 2개월 내에 食水 펌프를 설치하도록 계약하여 5000명의 농촌 주민에 혜택을 주고 지난 여름의 태풍(hurricane)으로 무너진 敎會를 방문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주민들은 깨끗한 복장으로 열심히 찬양,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10여년 전 洪水로 天主敎會가 무너져 180명이 죽었다고 전하는 허물어진 교회터도 보았고 홍수로 다리가 무너져 100명이 죽었다는 江에 새로 만든 鐵橋도 보았다. 교회 방문 중 학용품, 칫솔, 비누, 의복을 전해주기도 하였다. 죽음의 계곡과 같이 고통스러웠던 山岳地方의 진료 등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美國行 비행기를 타는데 情이든 하이티 사람들과 惜別의 아쉬움을 나누고 일행은 5번의 여권검사와 2차례 엑스레이 검사대를 통과하여 비행기에 탔을 때는 온갖 피로가 쏟아졌고 비로서 美國에 왔구나 하는 안도감으로 가득 찼다.

미국에 사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가난과 고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돕지 못하는 利己主義者인가를 생각해보며 또 다시 醫療宣敎를 가볼까 계획해 본다.

<사진>

- 맨 위로부터
- 1. 하이티와 도미니카 국경지방 높은 산악지대 교회에서 진료하는 필자. 뒤에 통역관과 간호사가 있음.
- 2. 진료 후 이웃 기정을 방문. 비타민과 학용품, 칫솔을 전하는 필자와 부인 이길자 산부인과 의사, 젓먹이까지 7명의 자녀 중 5명과 부모가 같이함.
- 3. 의료선교를 마치고 공항으로 떠나는 선교단. 앞줄 가운데가 필자, 왼쪽은 부인 이길자 의사, 오른쪽은 소아과 의사, 간호원 2명, 목사님 5명, 통역관과 보조원.
- 4. 허리케인으로 무너진 교회 뒷뜰에 샘물 펌프를 파기로 계약하고 그 자리에서 기념촬영. 샘은 약 230-250피트 깊이 예상.
- 5. 걸어서 시장에 가는 원주민. 차가 지나간 후 먼지 때문에 길이 흐려 보인다.



서울대 신입생 선발은 公共材의 分配인가?

“서울대학 신입생 선발제 논란에 관하여” 라는
오테회 동문의 기고문(재미동창회보 106호 6면) 을 읽고
韓昌燮(문리대 62년졸, 전뉴욕지구 동창회장)

뉴욕일원의 원로 동문들이 정
운찬 선임 서울대총장의 소위
신입생지역할당제 선발방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
한데 대하여 이를 비판한 오테
회 동문(의대 64년졸)은 분명
하게 정총장의 신입생 선발방
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으나, 정총장의 새로운 방
안에 반대한 동문들이 사용한
“언어 표현”에 대하여 못마땅함
을 말함과 동시에 그를 두둔하
는 입장을 시사하였다.

그는 재미동창회보 10월호 1
면 기사에서 의견을 밝힌 원로
동문들의 표현이 거칠다고 지
적하면서, “서울대학 출신의 언
어”가 아니라는 의견을 말하였
다. 나도 지난 40여 년간 언론
계에서 몸담아오면서 서울대
출신의 올바른 언어가 무엇일
까에 대하여 고민해왔다. 그러
나 이 경우에 원로 동문들이 사
용한 언어는 대단히 적절한 것
이라고 나는 본다. 정총장은
2002년 8월 13일에 가진 기자
회견에서 “신입생지역할당제
선발” 방안을 발표하면서 미국 특
히 하버드 대학을 예로 들었다.
즉 정총장은 미국에서도 지역
할당제입학을 실시하고 있으니
서울대도 그러한 제도를 선진
국을 모방하여 실시한다는 뜻
이었다. 그러나 정총장은 미국
의 신입생 선발제도를 잘 몰라
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임석태 동문이 그의
솔직한 의견을 말한 것이 무엇
이 잘못 되었는지 오동문은 해
명하기 바란다.

그리고 미국에 비하면 손바
닥만한 나라에서, 그리고 다인
종 사회인 미국과는 달리 단일
민족의 사회인 한국에서 서울
대 신입생 지역할당제를 실시
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과연 정상적일까? 내가
접한 동문들의 반응은 하나같
이 지역할당제신입생선발방안
에 대하여 “이상한” 사람의 발
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좁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
고 반문한 것이 무엇이 잘못 되
었는지 오동문은 설명하기 바
란다.

신입생을 어떤 방법으로 선
발하느냐는 서울대의 장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外交的인
言辭보다는 솔직한 의견을 밝
히는 것이 동문들 간에 진행되
는 진정한 對話의 방식이 아닐

까? 10
월호 기
사에서
반대의
견을 말
한 뉴욕
동문들
도 오동
문과 마찬가지로 정운찬 총장
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며 그에 대하여 아무런 편견도
없다. 우리는 그를 비하시키려
고 하지도 않았으며 그가 나이
어린 사람으로도 보지 않는다.
다만 그가 주장한 색다른 신입
생선발방안에 반대하고 있을
뿐이다. 오동문이 기술한 “그
친구가 몇 년도 출신이야. 그런
데 벌써 총장이야 하고” 라는
하는 표현은 뉴욕 원로 동문들
의 발언은 아니며 아마도 그런
“선배”는 오동문이 가상 추
측하는 선배들이 것 같다. 우리
는 오동문처럼 무조건 서울대
총장이 그릇된 길로 가도 지지
하는 서울대 동문들이 아니다.



서울대의 장래에 가장 중요한
일에 신입총장의 정책이 돌이
킬 수 없이 잘못된 길로 진입하
려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면 “퇴진운동”을 벌리겠
다는 것인데 무엇이 잘못 되었
는가?

미국에서도 왕년의 일류대학
이 우수한 학생들을 받지 못하
여 2류, 3류 대학으로 전락하
는 경우도 많이 있다. 서울대학
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
디 있는가?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또는 우리가 항상 이
용하는 백화점 또는 음식점도
마찬가지이다. 일류 음식점이
음식의 내용이나 서비스가 나
빠지면 수년 내에 3류 음식점
으로 전락하고 백화점도 상품
이 저질이면 3류 백화점으로
떨어진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
문에 우리가 정총장의 소위 신
입생 지역할당제 선발방법을
반대하는 것이다.

23년의 역사를 가진 뉴욕동
창회의 원로 동문들이 서울대
장래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
하여 그러한 의견을 밝힌 것은
결코 오동문이 주장한 것처럼
부적절하다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연말에 가진 기
자회견에서 정총장은 또다시
서울대 신입생 지역할당제 선
발방안이 서울대 교수들의 반
이상이 반대하지만 이의 실현
은 자기의 소신으로 내년부터

이를 실현시키겠다는 굳은 결
의를 표명하였다. 이는 이미 뉴
욕일원의 동문들이 우려하였
던 예측이 적중한 것이다. 어
는 시대나 강자에게 아무
하는 부류는 있는 법이다. 또
한 무조건 권력층을 지지하는
자들도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 서울대학교 同門들의 참
된 知性人으로서의 言行은 이
러한 時流와는 다르다고 생각
한다.

母校의 우수신입생 선발방안
을 모색하는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 나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韓國사회가 형성하는 중앙집중
적인 社會構造가 제기하는 社
會正義의 문제를 잊은 적은 없
다. 그러나 창의적인 學者를 키
우고 조국과 세계를 이끌 우수
한 棟樑之材를 기르는 세계적
인 수준의 고등교육 기관으로
母校를 발전시키는 과제는 이
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한
국의 최고대학인 서울대학교가
세계적인 수준의 고등교육연구
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은 우리
서울대 동문들만의 관심사는
아닐 것이다. 賦存資源이 부족
한 한국으로서는 탁월하고도
創意的인 人才들을 키우는 것
만이 급변하는 “世界化 시대”의
生存전략이 아닐까? 신입생 지
역할당제는 이러한 당면한 국
가적 과제를 생각하는데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신입생지역할당제의 방안이
示唆하는바 처럼, 母校의 신입
생선발방안은 국가예산으로 뒷
받침되는 한국 최고 國立大學
의 聲價를 公共財貨로 간주하
여 지역적으로 할당하여 공평
하게 分配하는 문제로 보아서
는 안될 것이다.

만약에 母校가 시행하기로
한 “신입생지역할당제”가 우수
한 신입생을 선발하는 좋은 방
안이라고 주장한다면 鄭총장은
그 논거를 분명하게 밝혀 줄 것
을 바란다. 서울대학교가 진정
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
로 발전하기를 열망하고 걱정
하는 많은 同門들에게 이 새로
운 제도의 합리적인 시행방안
과 그 논거를 분명하게 밝혀주
기를 바란다. 아마도 이번 논란
의 진정한 쟁점은 서울대학교
가 自律적으로 우수한 신입생
을 선발하는데 있어 모교가 당
면하는 장애요인이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토론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를 위하여 우리 동문들과
우리 동창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를 숙고하고 솔직
하게 토론하는 것이 우리 재미
서울대동창회보 論壇의 소명이
아닐까?

미국 租稅制度와 所得의 개념

이경림 (상대 68년졸, 뉴욕공인회계사)

미국의 세금 제도의 가장 기본을 이
루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조세를 계
산하는 근거인 소득의 개념일 것이
다. 이것은 소득이다 아니다하고 서
로 주장하는 납세자와 국세청의 끈질
긴 법정 싸움을 보더라도 그리 간단히
규정할 수 없는 것이 곧 소득의 개념
이다.

필자가 자주 전화로나 대화에서 질
문을 받는 것 중에서도 이 소득에 대
한 것이 가장 많은 것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는 한국에서 가지
고 있던 재산을 처분해 송금된 것이
세금을 내야되는 소득인지 아닌지를
묻는 경우와 심지어 자신이 남에게 빌
려주었던 돈을 되돌려 받아 입금했을
때 이것도 소득세를 내는 소득인가하
고 묻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소득세 계산의 근거가 되는 소득에 대
해 확고한 개념을 넣어둘 필요가 있
다.

위에서 언급했던 납세자와 국세청
간의 법정 싸움에서 미국의 최고 재판
소인 대법원에서 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소득이란 노동과
자본으로부터 얻어지는 대가이며 노
동과 자본이 합쳐져서 얻어지는 대가
이다.

다시말해서 노동을 해서 얻는 금전
적 대가, 자본을 투자하여 증식된 금
전적 가치, 또는 노동과 자본을 합해
서 얻어진 증가된 가치 및 대가라는
뜻이 된다. 소득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되어지는 것이 있게 마련
이다. 노동이라는 신체적 고통이 있
은 후에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자본
이라는 화폐나 화폐에 준하는 투자를
통하여 위험부담이 있는 후 증식된 자
본이 곧 소득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회사원이나 가게
종업원이 일을 하고 주급이나 월급을
받는 것은 가장 알기 쉬운 소득이 된
다. 은행에 이자가 발생하는 저금을
통해 상당 기간이 경과하게되면 이자
수입이라는 소득을 받게된다. 이는
자본의 투자에서 얻는 소득이 되는 것
이다. 봉급과 은행이자도 물론 증권
에 투자하여 투자 금액이 늘어났거나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자본의 투자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것이다. 매일 복
권을 사서 그 중에 하나가 당첨되었다
면 복권 구입에 얼마를 투자한 후 생
긴 소득이 되고 이는 어떻게 보면 불
로 소득이다. 그러나 불로 소득도 소
득이긴 마찬가지이다. TV에 출연하
여 상금을 받았거나 우수한 종업원에
게 고용주가 주는 상금은 받는 사람에
게 모두 소득이 된다.

위에서 설명한 소득 개념과 상관없
이, 이혼한 부부가 배우자에게 지불
하는 위자료, 생활비 지급 등은 받는
측에게 소득이 되며 지불하는 측에서
는 공제 항목이 된다. 특별한 예로 회
사원이 회사로부터 해고당했을 때 노

동국에 가서
실업수당
(Unem-
ployment
Compensa-
tion)을 받게
되는데 이것
도 소득에 속
하며, 65세 이후 받는 사회보장연금
도 일정금액의 기존 소득이 있으면 지
급된 연금의 반이 소득세를 내는 소득
이 되는 것이다.



한국 이민교포가 많이 종사하고 있
는 청과상, 식료품상, 세탁업 기타 자
영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법인 형태가
아닌) 일년 간 영업을 통해 손익 계산을
하여 얻은 순이익이 주인의 개인
소득이 된다.

어느 분의 경우 가게의 총매상이 소
득인가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총매상
에서 물건구입 원가와 가게의 각종 경
비를 제외하고 난 잔액이 소득이 되는
것이다.

세금보고 때가 되면 납세자들이 세
금을 낼 여유가 없으니 소득의 숫자를
줄여달라고 부탁하고 무책임한 회계
사는 일년 기본 생계비도 안되는 낮은
숫자로 소득을 계산하였다가 훗날 세
무감사를 받게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업 형태를 법인(회사) 형태
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 법인으로부터
월급이나 주급(Salary)으로 받는
부분과 법인이 일년 결산을 하고 법인
세를 납부하고 남게되는 영업 이월 잉
여금이 배당금으로 지불되는 부분이
주인의 개인소득이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말한 소득 이외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도 있다. 기부금,
상속재산 등은 받는 사람에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며 생명보험
의 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 수혜자
(Beneficiary)가 받는 보험금도 과
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생이 대학
으로부터 받는 장학금(Scholar-
ship)이 수업료와 책구입으로 쓰이
게 되는 한 이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투자소득 중에서 주정부나 시정부에
서 발행하는 공채 이자는 면세되는 투
자소득이 되며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세든 사람이 건물 내장 수리를 해 건
물 가치가 늘어났다면 그 증가된 가치
는 건물주에게 과세 대상의 소득이 되
지 않는다.

살고 있는 집의 소유자가 집을 팔아
이익이 났으면 부부가 살아 있는 경우
오십만 달러까지의 이익은 소득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물론 부부중
한사람만 살아 있다면 50만 달러의 반
인 25만 달러만 면세 소득이 된다.

끝으로 모든 납세자는 소득이 있는
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소위 ‘답세
개념’(Pay-as-you-go)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노벨과학자들 <2>

박사학위 없이 化學賞 받은 다나카 技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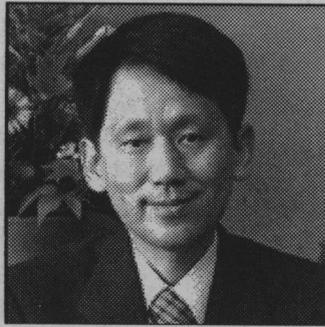
金日勳(의대 57년졸)

이번에는 어떻게 요즘 흔한 박사 학위없이도 노벨 화학상을 받은 평범한 직장인 연구원 다나카 기사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다. 2002년 12월10일 스웨덴 수도에서 萬人의 주시 가운데 스웨덴국왕으로부터 노벨상을 받는 2인의 日本人이 시선을 끌었는데 한사람은 物理學賞을 받는 東京大學 명예교수 고시바(小柴昌俊, 76세) 박사요, 다른 한사람은 3년 연속 일본이 차지한 化學賞 부문의 2002년도 수상자 다나카 고이찌(田中耕一, 1959년 생, 43세)씨였다. 紅顏少年 같이 젊은 미남자 다나카와 지팡이를 옆에 끼고 앉아있는 연로한 고시바 教授는 서로 대조되는 모습이지만 두 사람은 시종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얼마나 기쁘겠는가!

醫療革命 이룰 연구업적

2002년도 노벨화학상은 4등분되어 세 사람에게 시상되었는데 (3인의 공동수상공적사유; for the development of methods for identification and structure analyses of biological macromolecules) 그 半은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교수 John B. Fenn과 일본인 Koichi Tanaka 기사에게 돌아갔고 (2인의 공적사유; for the development of soft desorption ionization methods for mass spectrometric analyses of biological macromolecules), 나머지 半은 스위스의 연방 기술연구소의 Kurt Wuehrich씨(수상공적사유; for his development of 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for determining the three-dimensional structure of biological macromolecules in solution)에게 주어졌다.

이 수상자 중에서 世人들의 특별한 주목을 받은 다나카의 수상 연구업적은 "생명고분자의 질량분석에 있어서 소프트 탈리(脫離)이온화法개발이다. 다나카가 발명한, 단백질과 같은 고분자질량을 측정하는 분석계(分析計)는 단백질에 관여하는 생명과학연구와 의약품개발에 불가결한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재 일반인에게도 쉽게 화제에 오르는 사람의 유전정보를 얻는 인간게놈(Genom)의 관독은 거의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이즈음, 포스트게놈(post-Genom)의 계획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단백질을 총체적으로 조사하는 연구"이다. 그리고 21세기 생명과학의 열쇠를 쥐고있다고 할



다나카 고이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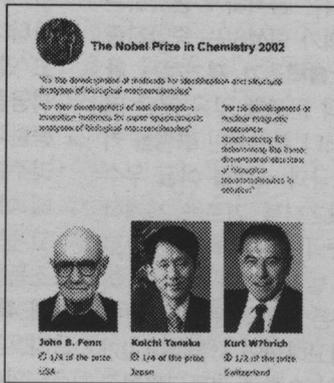
이 연구의 해석을 위해서蛋白質의 質量과 構造를 탐색하는 分析機가 필수적이다. 금년 노벨화학상은 이 새로운 "단백질의 질량 측정법"을 개발한 사람들의 공적을 빛내주었으니 하나는 다나카씨가 고안한 "소프트 레이저 탈리법(脫離法)"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수상자인 미국의 John Fenn 박사(85세, 예일대 명예교수)가 발명한 "Electrospray ionization" 법이다.

다나카는 노벨상 수상기념강연에서의 자기소개에서 "높은 전문 지식이나 學歴(박사)도 없고,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가 화학의 최대대전자가 되어 화학기술발전에 공헌하게 되었다"면서 無名의 산업체의 연구자인 자신의 모습을 알렸다. 常識에서 벗어난 자기행위 때문에 색다른 (unique) 발명이 가능했다고 고백하면서, 세계의 여러분 특히 산업체 기술자들이 용기와 꿈을 가진다면 자신과 같은 노벨상 수상이 가능하다고 동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蛋白質 등의 질량 분석장치를 개발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공동연구자 4명의 이름을 열거하여 그의 업적은 5인의 공동연구자의 성과임을 강조했다. 기자 회견에서도, 우연한 기회에 된 일이 잘못된 결과 이 賞을 타게된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즉 실험실에서 실수로 구리세린 액체를 코발트분말에 떨어트린 결과 큰 분자의 이온이 측정되었다고, 예기치 않았던 幸運을 고백하는 겸손을 보였다. 또한 그 자신이 대학의 전기공학과 출신이나 회사에 취직하면서 專攻과 다른 生化學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으며, 높은 학위와 전문지식이 없는 신분이므로 아무런 競争感이나 심리적 부담 없이 어떤 연구나 시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이지 다나카의 開發은 그 이상 진전을 못보고 實用化하기엔 不足했지만, 1988년 영어논문으로 외국에 소개되어 차츰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 發明은 훗날 독일에서 계승되어 수 천명의 연구결과 그의 발명을 실용화하는 "

MALDI 法" 개발에 성공했으며, 현재 醫學界를 비롯한 세계도처의 研究室에서 이 장치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다나카 연구를 이어받아 산업분야이용에 큰 업적을 낸 獨逸學界는 애석하게도 이번 수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이다. 과학의 진정한 開拓者를 존중하는 노벨 심사위원회에서는 "高分子 質量分析"의 업적을 과거 日本의 지방회사까지 추적하여, 최초의 업적은 다나카의 發明이라는 것을 認定하였다.

先驅의 과학업적은 그것을 탄생케 한 個人의 공로를 중요시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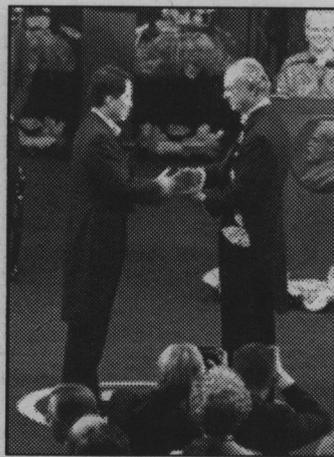


2002년도 노벨상 메달과 3인 수상자의 공적사항과 수상자

그런 점에서 養母보다 生母에게 준다는 것이 "노벨文化"가 되고 있다. 그래서 幼兒와 같은 연구성과를 훌륭하게 키운 獨逸學界는 生母가 아니기 때문에 수상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 대하여 일본 노벨 물리학상수상자 (1973)이자 교육가인 에사키(江崎)는 평하기를 "노벨상은 반드시 수상자의 學問的 造詣와 깊이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우수한 업적의 총점에 대해서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의 특별한 驚異 (Surprise)에 대한 상이다. 그리고 有名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成就한 業績에 대한 상이다"고 말하며 博士도 碩士도 아닌 다나카의 創意的 업적을 칭찬했다. 허다한 科學賞이 있는 가운데 노벨상이 세계최고 권위의 상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벨의 遺言에 따라 운영하며, 외부의 압력이나 정실 없이 수상자를 엄격하게 선정하기 때문이다. 선정기준은 새로운 분야개척과 연관된 과학의 획기적인 발견과, 기술면 개발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본적 발명이다. 과학과 기술발전의 역사를 추적해 볼 때, 노벨상의 선정이 거이 정확했다는 사실이 노벨상의 名譽를 더욱 높이고 있다. 여기서 無名人士 다나카의 업적은 技術開發에 대해 基本이 되는 研究業績인 것이다.

보통회사원 다나카 군

다나카는 노벨상수상자 중에서도 특수한 존재다. 그는 교토(京都)에 있는 민간회사의 기사며, 역대과학상수상자 중 박사나 석사 학위가 없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



다나카 고이찌 技士가 2002년 12월 10일에 스웨덴의 스톡홀름 연주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스웨덴 國王 Carl Gustaf 16세로부터 노벨상 메달과 증서를 받고 있다.

문이다. 1983년 센다이의 동북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후 바로 민간회사 시미즈(島津)제작소의 생명과학연구소에 입소했다. 현재직책은 직원 61명 가운데서 50명이나 되는 主任의 한 사람에 불과하여 물론 연구소 所長도 課長도 아닌 평범한 연구원에 불과하다. 다나카는 進級시험을 쳐서 課長이 될 기회도 있었지만, 연구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進급시험을 거절해 왔다고 한다.

그는 研究에만 몰두한 결과 1885년에 "레이저 이온화 質量分析計用 시료작성방법"이라는 단백질분석의 신기술을 발명했으며, 이 업적이 일본특허에 등록되어 그 사례금으로 회사에서 1만 1천 엔(지금 돈으로 약 130 달러)을 받았다. 이렇듯 입사한지 2년만에 큰 개가를 올렸으나 이 연구는 그 이상 진전을 못 보았고, 훗날 유럽에서 결실을 맺었다(앞에 언급). 1백 달러상금의 업적이 17년만에 노벨상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꿈같은 이야기다. 다나카의 上司인 N과장은 노벨상보도를 처음 듣고 "혹시 발음이 비슷한 다른 사람이 아닌가?"고 의심했다고 한다. 평소 직장에서 상관이나 동료들이 그를 "다나카"군으로 부르는데, 이전 "다나카"선생이라 불려야겠다고 모두들 말한다.

다나카의 노벨상소식을 전해 듣고 가장 놀란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婦人이었다고 한다. 착실한 회사연구원인 남편과 월세 아파트에서 보통생활을 하고있는 자기네부부가 평범한 보통사람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7년 전에 맞선보고 결혼했으며, 남편의 첫인상이 "순하고 친절한 듯 해서 싫지 않았다"고 말한다. 신혼여행지는 신부가 아직 보지 못한 東京을 택했다. 지금도 남편을 가리켜 "첫 인상대로 순하고, 직장에 너무나 착실한 사람"이라고 한다.

다나카의 일상은 6시 반에 기

상, 빵과 우유로 간단한 아침식사를 하고서 木棉바지에 셔츠만 걸치고 전철 타고 회사에 출근한다. 요즘은 노벨상유명세 때문에 가는 곳마다 모르는 사람들 인사받기에 바쁘며, 앞으로 전철을 타지 못하게 될까 염려한다. 국민학교 때 전자운전사가 되겠다고 했던 그는, 이번 東京출장시 가장 비싼 신간센(급행열차)을 탈수 있어 기뻐했다. 그런데 驛에서는 귀빈실에 안내 받고서야 역에 貴賓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되었다고! 신사복은 몇 벌 있지만 입을 기회가 드물고, 부부동반 외출 때도 잠바나 자켓 걸치는 것이 婦人의 불만이다. 몇 년만에 아내와 백화점에 가서 수상식에 입을 양복과, 넥타이 구두를 샀다. 노벨상시상식 만찬회 일정에 식사 후 댄스가 있어 마음에 걸렸으나, 다행히도 강제규제가 아니어서 일찍이 자리를 뜰 수가 있었다.

앞으로의 연구와 생활계획에 대해 "노벨상 수상이 없었던 것으로 치고서, 이전과 다름없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회사와 사회에 도움 주는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말하는 다나카는 부인 말대로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母校인 東北大學에 객원교수로 초대되어, 연간 30시간 정도의 출장강의를 맡게될 예정이다. 대학시절 자기가 入養兒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의 충격은 노벨상 수상소식보다 더 컸다고 文藝春秋誌에 게재된 그의 F記에 적혀있다. 아끼기 때 生母를 잃은 그는 養母를 항상 고맙게 여기며, 이번 노벨상장과 메달을 맨 먼저 養母인 시골 어머니에게 갖다 보일 것이라고 했다.

투고요청

우리 同門들이나 同胞들 가운데는 그 학문적 업적이 노벨상에 근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의 연구분야의 최신 동향과 우수한 한국인들의 연구업적을 소개하여 한국의 문화창달에 기여하는 우리 동창회보가 되게합시다

재미서울대동창회보는 동문(필자=독자)들의 자발적인 투고로서 이루어지는 知性人의 友情을 글로써 나누는 場입니다. 同門 여러분 자유롭게 쓰신 다양한 주제의 원고를 보내셔서 풍요로운 동창회보를 만듭시다. ✨원고투고처: 790 Busse R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e-mail: snuausa@ameritech.net ✨web-site: www.snuaa.org

韓醫에 관하여

李雪姬(간호대 73년졸, 간호사/한의사)

편집자주 : 필자는 시카고 남서부 교외에 거주하는데 이번 Dupage Acupuncture Clinic 을 지난 8월 5일에 개원했다. 필자는 간호대학을 73년도에 졸업한 후 지난 20여년동안 간호임상, 간호교육, 간호행정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 Midwes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에서 한의학 석사 과정을 마친 후 同校에서 임상강사로 교편을 잡고 있다. 필자는 鍼術과 方劑를 겸용하여 환자처리에 주력하며, 특히 여성환자들의 婦人病을 많이 치료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 심한 스트레스, 소화기 장애 등도 주의깊게 치료하고 있다.

어느 경우에 韓醫에게 갈 것인가?

간호사이면서 한의학을 공부한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자주 물어본다. "왜 한의학을 하셨나요?" 하면 나의 대답은 "그게 들으니까요"인데 "그럼 洋醫로는 치료가 안됩니까?" 하고 다시 물어온다. 물론 서양의학으로 잘 치료되는 병들이 많고 또한 한의학으로 잘 치료되는 병들이 있다고 알려준다. "그럼 설희씨는 둘 중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글쎄, 그게 어떤 증상인지부터 알아봐야겠지요"가 대답이다.

예를 들면, 50세의 남성이 집마당의 잔디를 깎다가 가슴이 아파오면서 팔이 저리고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난다면 이 사람은 빨리 병원 응급실로 보내져야 한다. 어린아이가 감기기운이 있더니 열이 높고 오르면서 뒷목이 아프다며 고개를 숙이지 못할 때 빨리 의사에게 연락, 응급처방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韓醫로 도울 수 있는 증상들도 많이 있다. 폐경기의 여성이 갑자기 더워하고 밤에 땀을 흘리며 잠을 못자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할 때 보통 호르몬 대체 치료법 (Hormone Replacement Therapy)를 쓰는데, 직계 가족(어머니, 언니)중에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있는 사람들에게 Hormone Replacement Therapy의 방법은 이러한 암발생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는 지난 7월 HRT로 쓰는 estrogen, progesterone이 우리 몸 안에 혈전생성을 유발하여 심장질환 발생율을 높이며 자궁암, 유방암의 발생율을 높인다는 발표를 한 예가 있다. 이러한 경우 한의는 좋은 대체 치료 요법으로써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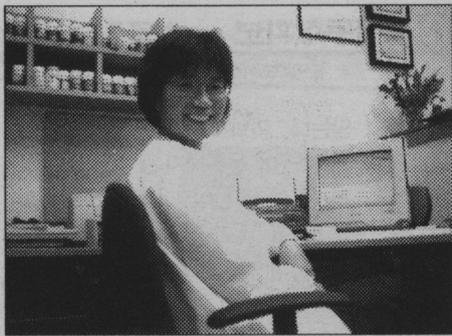
한의는 모든 통증에 잘 듣는다. 특히 오십견, 요통, 편두통 등

종류는 다양하다. Western Medicine은 모든 통증을 진통제나 근육이완제를 써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진통제로 쓰고 있는 Aspirin이나 Advil 같은 Non 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들은 다량으로 쓸 경우 內出血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근육 이완제는 無力感을 초래, 환자들의 정신집중을 방해하여 운전이나 직장 근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 요즘 인기가 좋은 Celebrex는 단가가 높아 환자의 부담이 크다. 끈질긴 통증 치료의 마지막 수단으로 Steroid injection을 쓰는데 Steroid는 약효가 많은 만큼 부작용도 많은 약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약물의 부작용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한의는 대체치료요법 (Alternative treatment)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韓醫의 시술(施術)원칙에 대하여

<證明할 수 없는 것은 事實이 아니다>라는 이념에 기초를 둔 서양과학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韓醫는 원시적이며 근거가 전혀 없는 학문이라고도 여겨지기 쉽다. 누가 침을 맞고 한약을 먹고 효과를 보았다고 하면 보통 "Placebo 효과"이거나 저 사람은 정말 어디가 아팠던 것이 아니고 아마 "psychosomatic한 문제"가 있었겠지 라고 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 한의는 인체의 생리, 병리 및 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그 자체의 독특한 이론 체계와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다. <皇帝內經>이라는 책은 춘추전국시대 이전의 의료성과 치료경험을 체계적으로 저술했는데 많은 내용들은 그 당시의 세계적 수준을 훨씬 초월하였다. 형태학 측면에서 보면 인체의 골격, 혈액의 길이, 내장기관의 대소와 그 용량에 관한 모든 기록이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식관(食管)과 장(腸)의 비례는 1:35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대의 해부에 의하여 확인된 1:37과 매우 근사하다. 또한 心腸을 주신으로 하는 혈액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운행하고 끊임없이 순환한다"고 하여 "혈액순환"을 발견한 영국의 Harvey 보다도 1000여년이나 앞서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西洋醫學은 질병자체를 격리시켜 그 질병자체를 없애려고 한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증상을 알아내고 그 증상에 관련된 원



인을 찾아 병의 이름을 진단한다. 병명을 찾아 진단을 하면 치료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있다.

韓醫는 질병을 따로 격리시켜 보지 않고 질병은 신체의 어떤 부조화나 불균형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병을 치료하기에 앞서 신체의 부조화를 치료하면 병은 자연히 치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병에 이름을 붙이기 이전에 신체의 불균형에 따른 어떤 pattern이라고 진단을 내린다.

첫번째로서 위궤양이라는 병을 보자. 서양의학은 환자의 Subjective symptoms (위통, 위경련, 소화장애)와 Objective symptoms (upper GI, Fibroptic 검사결과)를 보고 peptic ulcer라는 진단을 내린다. 일단 위궤양이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그 치료방법은 어느 환자에게든지 똑같다.

한의학에서는 환자 형태에 따라 병을 구분한다. 만일 두 명의 환자가 같은 위궤양 증상을 가지고 왔을 경우 첫 환자는 아주 말랐으며 얼굴색이 창백하면서도 두 볼은 발그레하다. 항상 목이 마르며 손바닥이 덥고 땀이 난다. 보통 변비 기운이 있고 밤에 땀이 나며 불면증이 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혀는 말라있고 색깔은 붉으며 설태가 전혀 없다. 맥은 세맥이며 빠른 편에 속한다. 이 환자의 진단은 <위음허>이며 치료는 위음을 보하는 방법이 위주이다.

두번째는 환자가 신트립을 자주 하며 통증이 심한 경우이다. 통증은 아주 sharp 하며 갈비뼈 밑으로 배가 창만해 있다고 한다. 밥을 먹으면 밥이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다고 한다. 환자는 신경이 날카로운 편이며 화를 잘 내는 편이다. 맥은 현맥이며 혀는 약간 보라색이 들은 붉은 색이 돈다. 이 환자는 <간기울혈, 간비부조화>라는 진단을 받는다. 이 환자는 우선 간기가 울혈된 것을 소통하게 해주고 비와 간의 조화를 도우면 증상이 많이 나아진다.

이 두 환자를 비교해 보면 한의와 양의가 어떻게 다른 지 알 수 있다. 양의에서는 위궤양이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항생제나 H-Blocker, 혹은 신경안정제를 써서 병을 치료한다. 한의에서는 병을 환자 몸의 어떤 상태의 일부

이라 보고 환자 자체의 pattern 을 치료한다. 위음허로 인한 위궤양 환자는 우선 위음을 보하는 약을 써서 허열을 식히면 밤에 땀이 나거나 손바닥이 덥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것이 없어지고 항상 목이 말라 물병을 찾던 것도 덜

해지며 대변도 딱딱하게 굳어있던 것이 수월하게 풀린다. 간기울혈, 간비 부조화로 인한 위궤양 환자는 우선 간기가 막힌 것을 풀어주면서 간과 비의 조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하면 창만해 있던 배속이 편해지면서 소화가 잘 된다. 밤에 잠도 잘자며 날카로운 신경질도 덜해진다. 환자들은 자주 같은 말을 물어본다. "저번에 주신약, 그거 신경안정제인가요?" 하는데 신경안정제를 쓰지 않고 간기를 유통하게 해주면, 환자는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으며 밤에 잠도 잘자고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마련이다.

한의학이 발달하던 2000여년 전에는 지금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X-Ray, MRI, 혈액검사 같은 것들이 없었다. 따라서 병을 진단할 때 우선 사람의 외모를 보았다. 체격이 충실한지, 허약한지, 피부색이 창백한지, 얼굴이 창백하면서 양볼이 붉은지, 아니면 얼굴전체가 붉은지, 피부가 건조한지, 손톱이 약하게 갈라지는지,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지, 입술이 건조하게 말랐는지, 입술이 부르렀는지, 한숨을 자주 쉬는지, 기침을 자주 하는지, 가래가 있는지, 가래의 색깔이 흰색인지, 노란색인지, 트림을 자주하는지, 신트립을 하는지, 대변의 횡수와 성격은? 소변은? 밤에 소변을 보는지, 수면의 질은? 금방 잠드는지, 잠을 자다가 이유없이 깨어나는지. 여성환자들에게 월경은 중요한 정보자료가 된다. 규칙적인지, 28일 전에 하는지, 그 후에 하는지, 색깔과 양은? 혈어가 섞여 나오는지, 월경통이 월경 전에 심한지, 후에 심한지..... 통증에 대한 분석도 아주 자세하다. 통증이 격심한지? 완만한지? 만지면 통증이 더한지, 덜한지, 움직이면 통증이 더한지, 덜한지, 통증이 한군데에 있는지 아니면 여기저기 다니는지, 열을 가하면 통증이 덜한지. 이러한 정보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얼핏 들으면 상당히 비과학적인 접근법이라고 하기 쉽지만 이러한 진단으로 치료를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한의는 지난 2000여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장상(藏象) 人體 오장(五臟)의 운행에 대한

한의학의 소견
장상이라는 말은 체내에 있는 臟器가 몸밖으로 形象을 드러내다는 뜻이다. 앞서 설명한대로 한의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던 2000여년 전에는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X-Ray, MRI, 혹은 혈액검사가 없었기 때문에 몸밖으로 나오는 증상을 보고 臟器의 이상을 알아 치료했다는 이야기이다. 우리 몸의 五臟(간, 심, 비, 폐, 신) 들은 각기 전문 주관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생리 기능활동을 상호 의존, 상호 제약하여 상호간에 조화와 균형을 잡는다.

♥심(心)
心은 혈액을 주관한다. 심이 혈액을 주관한다는 것은 血을 주관하는 것과 맥을 주관하는 두 개 면이 포함된 것이다. 우리 몸의 혈은 모두 맥에서 운행되는데 혈은 심장의 박동에 의지하여 온몸에 수송되면서 온몸을 적셔주는 역할을 한다. 황제내경 [皇帝內經: 중국 의학사상 최초이며 가장 완비된 고전인데 이는 소문(素問)과 영추(靈樞)라는 두 책을 포괄한 것이며 당시 의학의 성과를 반영하였으며 당시 세계의학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그 중에 원칙적인 사항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활용되는 의학서적이다. 이 책은 전설적인 삼황오제(三皇五帝)의 한사람인 皇帝와 그 신하인 岐伯의 문답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황제가 묻고 기백이 대답하였다. 靈樞는 침경(針經)으로 불릴만큼 針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素問은 침술내용은 적고, 한의학 전반, 陰陽五行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에서는 "혈은 심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심은 온 몸의 혈액을 주관한다."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심장의 박동이 정상적인가 아닌가로 심의 병리를 따질 수 있는데 이 점은 서양의학과 매우 비슷하다. 만일 심기가 부족하고 혈액이 부족하면 얼굴색이 창백하고 맥이 가늘고 무력함 등 외재적인 표현을 보게 된다. 혈액이 부족하거나 기혈이 멎으면 혈이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얼굴빛에 자주색이 돌고 입술과 혀가 검푸르게 되며 앞가슴이 답답하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날 수 있다. 心은 또한 신지(神志)를 주관한다. 즉 심은 사람의 정신, 의식과 사유활동, 사물을 분석, 귀납,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심의 생리적 기능이 정상적이면 정신이 분발되고 신지가 똑똑하며 사유가 민첩하다. 신지를 주관하는 심에 이상이 생기면 불면증이 있고 꿈이 많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며 건강증이 생기기도 한다.

<16면에 계속>

<15면에서 계속>

心の 뜻은 기쁨으로 나타나며 심의 액은 땀으로 나타난다. 땀은 우리 몸의 진액이 양기의 힘을 받아 기화된 후 땀구멍으로부터 배출되는 액체이다. 심은 혀에서 재구(在竈)되었다. 혀는 심의 외부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일 심의 생리적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미각(味覺)에 변화를 일으키고 혀가 뻣뻣해지고 말을 더듬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심의 기능이 정상이면 혀바닥이 붉고 촉촉하게 젖어 있으며 미각이 영민하고 言語가 막힘이 없다. 심에 병이 있으면 혀에 반응이 되는데 심의 陽氣가 부족하면 혀의 모양이 두텁고 색깔은 희미한 붉은 색이 온다. 심의 음이 부족하면 혀는 얇아지고 진붉은 색깔을 띤다. 만약에 심혈에 응어리가 저 막힌다면 혀는 자주빛이 되거나 또는 멍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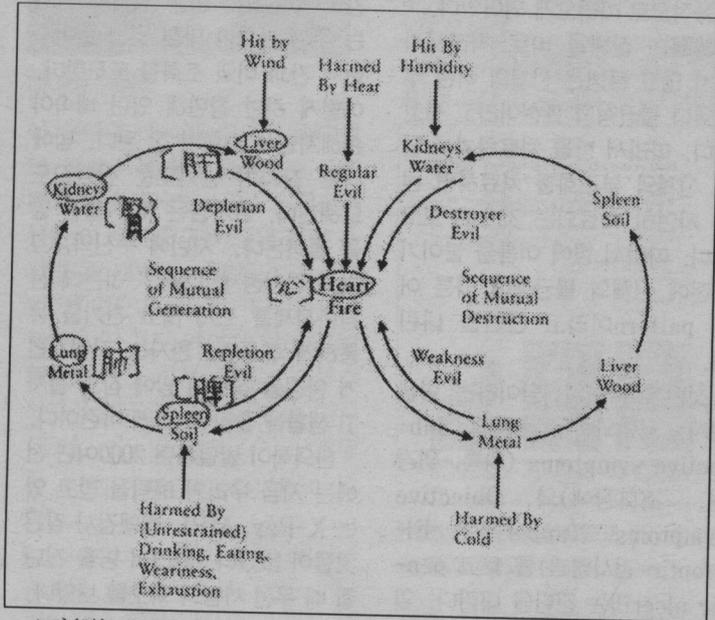
◆ 폐(肺)

폐는 기를 주관하고 호흡(呼吸)을 담당한다. 기를 주관하는 폐의 기능에는 온 몸의 기와 호흡하는 기를 주관하는 이 두가지가 포함된다. 폐는 흡입한 맑은 공기와 비에서 온 수곡의 정기를 결합하여 종기(宗氣)를 생성하며 이 종기는 전신의 氣의 생성에 영향을 준다. 폐가 호흡하는 기를 주관한다는 말은 폐는 몸안의 기체를 바꾸는 곳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폐의 호흡에 의하여 맑은 공기를 받아들이고 체내의 흐린 공기를 배출한다는 말이다. 폐는 또한 수도를 통조하는데 水道는 수액이 순환하고 배설되는 통로이다. 만일 폐의 수도를 소통, 조절하는 기능이 감소되면 수액이 한데 모여 가래가 생성하고 심지어는 수종(水腫)으로 되는 등 병변이 일어난다.

폐의 뜻은 슬픔으로 나타난다. 황제내경 소문에서는 "슬픔은 기를 소모하고 심장의 박동을 급하게 한다. 상초(上焦)가 통하지 않고 영위(榮衛)가 흠어지지 않으며 熱氣가 가슴에 있기 때문에 기가 소모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 폐는 기를 주관하기 때문에 슬픔과 근심은 쉽게 폐를 해친다. 또한 폐가 허할 경우에 기체의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게 됨으로서 슬픔과 근심의 변화가 쉽게 나타난다. 폐는 위기를 주관하며 위기는 피부에 주관하면서 외사의 침입을 막아내는, 즉 방어하고 지키는 역할을 한다. 황제내경 소문에서는 "폐는 피(皮)와 합하며 모에서 나타난다." 고 말하고 있다. 폐의 기능이 정상적이면 피부가 차밀하고 습털이 빛나며 외사의 침습을 막아내는 능력이 강하다. 반대로 폐의 기능이 약하면 위기(衛氣)를 선발하고 정미(精米)를 피모에까지 수송하는 능력이 감소되며 따라서 외사의 방어 기능이 낮아지면서 땀을 많이 흘리거나 감기에 쉽게 걸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폐는 코에서 재구하며 코

와 후(喉)는 서로 통하면서 폐에서 연결되는데 코와 후는 숨이 드나드는 문이다. 폐가 조화롭고 호흡이 잘되면 후각이 영민하고 소리가 뚜렷해진다. 폐의 병리적 변화는 흔히 코가 막히고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가 나고 목안이 간지럽고 목소리가 쉬고 말을 못하는 등 코와 후의 징후로 나타난다.

않는다. 만약 비기가 승청하지 못하면 수곡이 운화되지 못하고 기혈이 부족하여 정신이 피로하고 기운이 떨어지고 배가 찬만하고 설사하는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이 진전되면 오랜 기간의 설사 끝에 항문이 탈락하고 심지어는 내장이 아래로 처져 내려가는 등의 증상을 볼 수 있다.



◆ 비(脾)

비는 운화(運化)를 주관한다. 즉 비는 수곡을 정미로 화하여 정미된 물질을 온 몸에 수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비의 운화기능은 수곡운화와 수액(水液)운화 두개면으로 나눌 수 있다. 수곡을 운화한다는 것은 음식을 소화 흡수하는 것을 말하며 수액을 운화한다는 것은 비가 수액을 흡수, 중계수송, 고루 분포하는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비의 수곡 정미 운화기능이 왕성하면 우리 몸의 소화 흡수 기능이 건전해지고 정, 기, 혈, 진액을 화생(化生)하는데 충분한 영양재료를 공급해 줄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리활동이 진행된다. 반대로 비의 기능이 감퇴되면 소화 흡수기능이 상실되므로 기혈부족, 식욕부진, 묽은 변, 창만한 배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수액의 운화기능이란 흡수된 수곡 정미중의 수분을 제 때에 폐와 신의 기능을 통하여 땀과 오줌으로 체외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비의 수액운화 기능이 정상이면 수액이 체내에 비정상적으로 누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습, 답, 음 등 병리적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비는 승청(升淸)을 주관한다. 승청이란 비의 기가 맑은 것을 위로 올린다는 뜻이다. 즉 수곡정미의 영양물질을 맑은기로 운화하여 그것을 심, 폐, 머리, 눈에 올려서 수송하며 심, 폐의 작용에 의하여 기혈로 화생하여 온몸에 영양을 공급한다는 말이다. 비의 상승작용은 우리 몸의 내장이 일정한 위치를 유지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의 승청기능이 정상이면 수곡정미의 영양물질이 흡수, 수송될 수 있고 우리 몸의 내장기관이 하수되지

비는 통혈(統血)을 주관한다. 즉 비는 혈액이 혈관 안에서 흐르는 것을 통제하며 혈관 밖으로 일출(逸出)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것을 비의 고선작용이라 하는데 이 고선작용이 약하면 출혈을 하게되어 변혈(便血), 뇨혈(尿血), 붕루(崩漏) 등을 초래하게 된다.

◆ 간(肝)

간은 소통과 배설을 주관하고 혈의 저장을 주관한다. 간은 온몸의 기기(氣機)를 원활하게 조절하고 혈과 진액의 순환을 추동한다. 간의 소설기능이 정상적이면 기가 원활하게 조절되고 기혈이 조화되어 경락이 잘 통하고 장부, 기관 등의 활동도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만일 간의 소설(疏泄)기능이 감퇴하면 기가 원활하지 못하여 기가 울결되는 병리현상이 나타나며 가슴, 옆구리, 유방아래, 국부가 붓거나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 만일 간의 승발이 지나치면 간기가 위로 올라오는 증상이 생기는데 머리와 눈에 통증이 있으며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빨갛게 되며 쉽게 화를 내는 증상이 나타난다. 간기가 울혈되면 혈어(血瘀)가 생겨 심한 월경통 혹은 폐경을 초래한다. 간의 울혈은 진액의 수송, 분포, 대사에 영향을 끼쳐 담(痰), 수(水) 등 병리산물을 산생하기도 한다. 간의 소설기능은 비, 위의 정상적 기능에 중요한 조건이다. 간의 소설기능이 감퇴하면 여러 소화기 장애를 초래하는데 신경성 소화불량, 복부장만, 갈비뼈 밑에 통증, 신트림 등이 이러한 증상들이다. 간의 소설기능은 담즙의 분비와 배설을 도우며 담즙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못할 경우 심한 통증과 소화불량, 황달증이 생긴다.

간은 혈의 저장을 주관한다. 간이 혈을 저장하지 않으면 간에 혈이 부족되어 여러가지 병적증상을 초래한다. 간혈이 부족하면 눈이 메마르고 갈갈하며 야맹증이 올 수 있다. 간혈은 또한 근맥을 자양하는 역할을 하며 따라서 간혈이 부족하면 근맥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여 몸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황제내경 소문에서는 "간이 혈을 받아야 시각이 이루어지고 족이 혈을 받아야 걸을 수 있으며 손바닥이 혈을 받아야 주먹을 쥌 수 있으며 손가락이 혈을 받아야 집을 수 있다." 고 말했다.

간의 뜻은 노(怒)로 나타난다. 따라서 간의 음혈이 부족하면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쉽게 노여워한다. 또한 자주 노하면 간이 상한다고도 한다. 황제내경 소문에서는 "간이 병이 들면 양 옆구리가 아프고 아랫배가 당기면서 성을 곧잘 내게 된다." 라고 말했다.

간은 눈에서 재구(在竈)한다. 간의 기능이 정상적이 되는가 못되는가는 흔히 눈에 반영된다. 간의 혈이 부족하면 두 눈이 메마르고 물체가 똑똑히 보이지 않거나 또는 야맹증이 온다.

◆ 신(腎)

신은 허리부위에 척추의 양쪽에 좌우로 하나씩 있다. 신은 정기를 저장하고 생장발육과 생식을 주관한다. 따라서 신은 모든 장부의 음양의 본거지이며 생명의 근원이다. 정(精)이라는 것은 인체의 기본물질이며 신은 이 정기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추고 보관,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신이 저장하고 있는 정기에는 선천적 정기와 후천적 정기가 있는데 선천적 정기라는 것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생식의 정기이다. 후천적 정기라는 것은 태어난 후에 섭취한 음식을 원천으로 하여 생성된 수곡의 정기와 생리활동에 소모된 후 그 나머지 부분이 신에 저장되는데 이 저장된 정기를 말하는 것이다. 선천지정과 후천지정은 그 태원이 각각 다르지만 모두 신에 돌아가며 양자는 서로 의존하고 서로 이용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선천지정이 후천지정의 끊임없는 배육을 받기 때문에 신증정기가 점차 성해지며 유년시기에는 이를 갖고 머리카락이 나며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성호르몬이 분비되고 생식능력을 갖게 되어 청년기에 들어서게 된다. 그 후 신증정기가 왕성하던 곳으로부터 점점 감소됨에 따라 성호르몬도 점차 쇠퇴하고 생식능력도 하강되다 나중에는 소실되며 사람은 중년으로부터 노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치아, 뼈, 머리카락의 성장상태는 신증정기를 나타내는 증표로서 또한 우리몸의 생장, 발육과 노쇠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신증정기는 신음(腎陰)과 신양(腎陽)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신음은 우리몸의 장부조직기관을 자양

하고 적셔주는 작용을 하고 신양은 우리 몸의 장부조직기관을 움직이게 하고 덩겁 해주는 작용을 한다. 이 양자는 서로 제약하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이용하면서 각 장부조직기관의 상태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신음의 경우 속음이 나고 어지러우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허리와 무릎이 약하며 무기력하고 온 몸의 진액이 적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신양허의 경우 피로하고 맥이 없으며 온 몸이 춥고 손발이 차며 허리와 무릎에 차가운 기운을 느끼며 아프고 쇠약하며 성기능이 감퇴되고 온 몸이 붓는 증상들이 나타난다. 신음과 신양은 모든 장기의 음양지본이므로 신의 음양이 균형을 잃게 되면 다른 장기들의 음양도 균형을 잃게 된다.

신은 또한 수액을 주관한다. 황제내경 소문에서는 "신은 수장(水藏)으로서 진액을 주관한다." 고 말했다. 특히 오줌의 생성과 배설은 신증정기의 기화(氣化)작용과 관계가 있으며 인체내의 진액대사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은 또한 납기(納氣)를 주관한다. 신이 납기를 주관한다는 것은 신이 폐가 흡입한 정기를 섭납하고 납기함으로써 체내의 기체의 정상적인 교환을 보장한다는 말이다. 즉 폐는 기를 내보내고 신은 기를 받아들이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신의 뜻은 공(空)이다. 즉 사물을 대할 때 겁이 많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 신은 골을 주관하고 수의 생장을 주관하며 그 변화는 머리카락에 나타난다. 황제내경 소문에서는 "신은 골수를 낳는다." 라고 하였다. 소아의 신문이 늦게 닫히고 골이 약하고 무력한 것 노인들의 골절이 약하여 뼈가 쉽게 부러지는 것 등은 모두 신증정기가 부족하여 골수가 부족한 것과 관계된다.

신은 귀와 두 음에서 재구(在竈)한다. 두 음은 전음과 후음으로 나누는데 전음은 오줌을 배설하고 생식을 하는 기관이며 후음은 대변을 배설하는 통로이다. 오줌의 배설은 방광에서 하지만 반드시 신의 기화에 의뢰해야만 비로써 완성이 된다. 소변이 잦고 소변을 못참고 소변이 적거나 혹은 너무 많은 것 등이 모두 신의 기능과 관련된다. 대변의 배설은 대장의 기능이기도 하나 역시 신의 기화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신음이 부족할 경우 장액이 마르기 때문에 변비가 오며 신양이 부족할 경우 변비가 오거나 혹은 심한 설사가 올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우리 몸의 오장(五臟)에 관한 자료와 많은 내용들은 인회하 著, 中醫學 기초이론, 朴正一의 6인 譯 (北京: 北京醫科大學出版社, 1983년 8월)에 근거하였음을 밝힌다.

Korean American's picture of success

李起春(약대 45년졸)

[편집자주: 李起春 동문은 한인 이민 100주년을 맞아 1948년 유학생으로 시카고에 도착한 이래 시카고 이민사회의 성장과 발전과정에 참여한 그의 回想을 여기 편집자의 초청에 의하여 집필하였다.]

The year 2003 marks some 30 years of immigrant life for an estimated 100,000 Korean-Americans in the Chicagoland area who represent the first wave of Korean immigrants under the liberalized US immigration laws. As late arrivals, we Koreans have come of age in a modern society, presenting pictures of success and travail in our adopted country. These pictures are part of our planned festivities commemorating the year 1902 arrival of 150 Koreans, non-quota immigrants who worked in the pineapple plantations in Hawaii in 1902.

< I >

As a so-called "old-time Korean," I have been asked to provide a thumbnail history of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in the Chicago area from 1946 to 1970. I came to America in 1948 on a non-immigrant student visa. At the time, a Korean enclave as such didn't exist for the approximately 50 Koreans (all of whom were on bona fide students' visas) enrolled in various schools. This student-based Korean population didn't change much until the mid-fifties mainly because the Korean War (1950 to 1953) had suspended Korean immigration, the exceptions were the privileged few such as children of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thus, obtaining a coveted passage to America was as hard as shooting down a star, in the words of a Korean expression. This was especially true of the post-war period from 1945 to 1948, when no American dollar exchange system had been instituted yet. Prospective exchange students had to obtain full scholarships from an American school or arrange travel documents that evidenced an iron-clad, financial sponsorship, covering the student's entire stay abroad.

< II > A Brief History of Korean Immigration

The U.S. immigration laws have come a long way from the days when Asian immigration was virtually nil. For instance, a 1790 naturalization act stipulated that

only whites could become U.S. citizens. In 1882, Congress went so far as to pass the infamous Chinese Exclusion Act, which was to be repealed in 1943, coinciding with the destruction by fire of Angel Island in the heat of World War II. The 1924 U.S. immigration law, or known as "the national origin quota system" banned all Asian immigrations, thus cutting of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The McCarran-Walter Act of 1952 nullified the racial restriction of a 1790 naturalization act, allowing non-Caucasians to be naturalized, but still restricted the number of immigrants according to a quota based on national origin. It was not until 1965 that the passage of the immigration Act eliminated the national-origin quota system resulting from the hue and cry raised by Asian-American communities. The so-called cease-fire notwithstanding, the Korean War had a salutary effect on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from the mid-50s through 1964. This period saw a steady increase in Korean immigrants up through 1965, culminating with the passage of the watershed act, called the Hart-Celler Act, especially for Asians, that abolished discrimination in immigration quotas based on national origin and eliminated the Asian exclusion provision, that had been in effect since 1924.

< III > Post Korean War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An important factor that led to the resumption of Korean immigration from 1955 to 1964 wa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ising from the Korean War. U.S. servicemen [family] constituted the largest category of Korean immigrants during this period. During and after the Korean War, a large number of U.S. soldiers were stationed in South Korea. Many of them married Korean women and later brought them to the U.S. Korean children adopted by Americans constituted another major category of Korean immigrants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between 1950 and 1964.

Annual Korean immigrants numbered a few thousand in the middle 1960s, but the number



gradually increased in the late 1960s and early 1970s. It passed 30,000 in 1976 and sustained an annual flow of more than 30,000 in the 1980s, making Korea the third largest source country for U.S. immigrants after Mexico and the Philippines.

Conceding a great undercount of Koreans in the 1970, U.S. Census (69,130), the Korean population in 1970 may not have reached the 100,000 mark. However, nearly 700,000 Koreans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between 1970 and 1993. The 1990 U.S. Census estimated the Korean American population to be close to 800,000, a total that was probably more than one million in 1995, thus making Koreans the fourth largest Asian ethnic group in the United States, after the Chinese, Filipinos, and Indians. Of the 800,000 Koreans recorded by the 1990 U.S. Census, only 27 percent were born in the United States.

< IV > Occupational Preferences

A consequence of the immigration Act of 1965 was the introduction of occupational preferences for immigrants from countries in the Eastern Hemisphere. These preferences included professionals, scientists and artists of exceptional ability, and for skilled and unskilled workers in occupations that were in short supply in the United States. A large number of Korean professionals—especially medical doctors, nurses, scientists, pharmacists, and engineers—immigrated between 1968 and 1976, bringing with them their immediate families, siblings, and parents.

Also, Korean students who entered the United States for further study and who later changed their status to permanent residents were an important category of immigrants in the intermediate

period between 1950 and 1964. A number of Koreans in the area, this writer included, were able to become permanent residents during this period.

< V > The Korean Methodist Church

In the forties and fifties, the one and only Korean church in the Chicagoland area was neither a steel-glass modern structure nor an edifice with a church steeple. Located near the Halsted and Oakdale intersection, it was a rather old, unpretentious two-story structure hemmed in on both sides by similar-looking Ravenswood neighborhood homes. Except for special occasions, the size of its congregation was necessarily small, but the Rev. Eun Taik Yi's warm personality and the atmosphere of camaraderie among Korean natives was the welcome treat, especially for those who often felt lonely and forgotten, far from home.

Worshiping took place in the upper floor sanctuary. Occasionally, dignitaries would visit and we would have birthday celebrations. For such events, the pews whose capacity was limited to 50-people. The recreation room downstairs accommodated the spill-over. In inclement weather Rev. Yi found himself preaching to his own family members. The sparsely furnished recreation room—a ping-pong table and several chairs—doubled as a "wedding reception room" for hard-pressed young couples as well. Rev. Yi performed the wedding ceremony for my wife and me. We had met a year before at the church. Among our wedding guests were Dr. and Mrs. George L. Webster, the late Dean of the 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Pharmacy in Chicago, my alma mater. I felt honored by their presence. Unfortunately, though, they didn't stay for our reception. Sometime afterwards, I debated with myself whether or not they really had "an important commitment" to attend to as they said they did or whether my coaxing was persuasive enough. Or, perhaps the bare-bones reception itself had something to do with it.

< VI > Growth of Korean Churches in Chicago

Thanks to the liberalized immigration law, the Korean population in the area has grown dramatically in the sixties and seventies, as has the growth of Korean churches. By the mid-six-

ties, the estimates of Korean churches of various denominations, large and small, ranged from 150 to 200. Many of them had rental arrangements with large churches, utilizing the idle hours of their host churches. Such phenomenal growth is attributable to the dual roles the church plays, namely as a place of worshiping and socializing.

< VII > Lawrence Avenue or "Seoul Drive"?

For those who have not driven down Lawrence Avenue in the last-say-20 years surprise is in store for them. Lawrence Avenue was in a decline as is true of many of the city's old era shopping areas. There were boarded-up windows, and vandalized or dilapidated storefronts, indicating a shop keeper's demise. Today, the storefronts are bright and colorful. Gone are the unsightly paper signs that said "moved". In their places are a brightly lit showcases of new wares along with ethnic signs and hallmarks to lure curious onlookers inside. What's more, the stores are thriving!

Lawrence Avenue is clean and well-lit and it is eye-pleasing to see the line-up of stores—elegant gift shops, tailor shops, drug-stores, ethnic restaurants, acupuncturists, and on and on. It is small wonder that such a city beautification program for Lawrence Avenue has caught the eyes of city officials, who have bestowed on the thoroughfare the name SEOUL DRIVE, making it the crown jewel of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of Chicago.

< VIII > The South side

Not to be outdone by North Side merchants, some venturesome Koreans made inroads in the scattered areas of the South Side at about the same time that businesses along Lawrence Avenue were thriving. Initially, for South Side merchants, their staple was Korean-made wigs. This business was so successful that even a person of limited means was able to stand on his feet in short order. As with any kind of fashion, the wig sales, too, saw their hey day; they peaked toward the mid-80s.

Generally speaking, we Koreans are a people of strong stamina and an unflinching tenacity. As a result of their enterprising spirit they have earned American's

<18면에 계속>

<17면에서 계속>

proverbial sobriquet: "hard-working Koreans." One business failure seldom deters a Korean from taking on another business venture. As a case in point, when wig sales declined, they turned to dry cleaning establishments. Approximately 70% of the dry-cleaners in the area now are owned by Koreans. Some of the owners are ex-school teachers and even Koreans who were former healthcare professionals in their homeland.

<IX> Korean Generosity

As a people, Koreans are generous, reciprocity-minded. In the hearts of those Koreans who own their South Side stores, their clientele should find truly warm spots because the Korean shop-owners are cognizant of their customers' multi-faceted problems, including the commonality called "minority-existence." An anonymous Korean minister is reportedly quoted as having preached that Koreans and other Asian-Americans should feel ever grateful to African-Americans for the sufferings they have endured as minorities in America, without which the miseries of today's Asians in America would have been one hundred fold. Another school of thought is that black scholars along with outstanding black leaders such as—but not limited to—Martin Luther King, Jr. have helped whites' raise their level of tolerance toward non-whites in this country.

<X>The Korean-African-American Relationship

Korean merchants manifest their feeling toward African-Americans in the form of almsgiving for the benefit of their business-neighborhood churches and/or scholarship funds for the needy. With a few exceptions, most of these contributions are made in the name of the appropriate Korean-merchants Associations to which they belong.

Several years ago a group of Korean clergymen led by Rev. Young Sam Kim met with a group of black ministers at Rev. Jesse Jackson's Operation Push Office. Their hope was that a meeting would lead to increased ecumenism among the different faiths and promote an "exchange pulpit" program by which ministers would visit different churches on a reciprocal basis. At a first glance, it seemed to be a genuine good-will gesture bound to be met with an open-arm acceptance. Unfortunately, it received a lukewarm response and went home empty handed.

Hindsight tells me that perhaps if Rev. Jesse Jackson had been with them, the meeting might have been fruitful. Rev. Jackson and Rev. Young S. Kim maintain a longstanding friendship.

Although the Korean clergymen-initiated "Exchange pulpit" program failed to materialize,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has an ongoing program designed to promote goodwill between overseas Koreans and their host countries. Under the aegis of the Overseas Korean Foundation, the annual program calls for a select group of 15 undergraduate black students and 15 black graduate students to enroll in designated institutions of learning in South Korea for specified number of years, all expenses are borne by the Foundation.

<XI> An Appeal to the Press for Police Protection

Korean businesses need police protection

The above caption made a banner headline for the commentary page in the March 18, 1990 issue of Chicago Sun Times. This was in response to this writer's letter detailing a rash of tragic victims of rampant crimes in the Korean-American business community on the South Side, and Lawrence Avenue.

An excerpt from the article reads:

During February, the Korean-American business community experienced a rash of armed robberies, rapes, murders or attempted murders, including the deaths of two store owners and one non-Korean store employee resulting from gunshot wounds sustained in their own Stores. Only a fortnight earlier, armed bandits ransacked nine shops on Lawrence Avenue, terrorizing the whole of Korea Town. Although there are no hard facts to link the Lawrence Avenue episodes and the more recent two murder-robbery cases, the earlier terrors provided a foreboding for the Korean community. One may argue that those incidences of crimes may have been unfortunate coincidences, not necessarily targeted for Koreans. In light of the numbers, etc., such a theory is statistically untenable.

The article goes on to remind the reader that hard-working Koreans rejuvenated the once-moribund Lawrence Avenue and that they are now stoking the embers of life and hope in such areas as West Madison and 63rd Street, and that Chicago's citizenry should be appreciative of

the Koreans' entrepreneurship. Yet, as the newest members of ethnic minorities, we Koreans have no "big brothers" in the City Council who are receptive to our needs. In this situation we hereby enlist help of our print media friends in the hopes of getting beefed-up police protection for the merchants in those economically deprived areas. The Sun Times article concluded.

As with earlier European immigrants, many of these Korean merchants, including owners of dry-cleaning establishments, have their children enrolled in top-notch high schools in the Chicago area and many prestigious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What's more, their children are excelling at these schools.

<XII>Korean Service Organizations

Some of the immigrants chose the Chicagoland area for their home because of family ties—relatives who had settled in the area earlier. However, many of them arrived here without any family connections or friends to look after. For these helpless immigrants, problems were often compounded by—but not limited to—a lack of housing and/or employment hampered by their inability to speak the language of their adopted country. In addition, healthcare needs for senior citizens and people with physical handicaps posed challenges for Korean immigrants. But the talents and resourcefulness of young Korean came to the fore, setting up appropriate service organizations to care for the needy. Needless to say, accolades are due all those service organizations for the magnificent job they have been doing in aiding those folks in dire need. The Senior Apartment Complex (Mu Kung Ha) being managed by Korean-American Community Services will go down in the annals of Korean Community of Chicago as the epitome of Korean-style compassion for fellow countrymen. The recently dedicated "Center For Seniors" near the Foster and Kedzie intersection is another example of a senior daycare center. It is aptly dubbed "The Paradise for Aged."

<XIII>The Kim Sisters

In the sixties and seventies the Kim Sisters became an American household name thanks to Ed Sullivan Show. The Korean-born singers, drummers, and dancers made over 200 appearances on the legendary weekly TV variety show. There is no gainsaying that most Americans

knew this multi-talented, three-sister team, although the name Syngman Rhee might not register well with some Americans today.

One day, while I was a Mercy Hospital pharmacist my physician friend Dr. Herbert Nash, an ear, nose and throat specialist, came to the pharmacy window and asked if I had fixed the medicine for a Kim sister. He had just removed her tonsils. How dumbfounded I was! During their regular performance at the Palmer House's Empire Room, one of the famous sisters was suddenly taken ill with a high temperature. She was brought into our emergency room, was diagnosed with garden-variety tonsillitis, and was to be cared for by the best-known physician in the field, Dr. Herbert Nash. I made a few visits to her during her stay in the hospital. So fortuitous was Ai-Ja Kim's (the youngest of the three) recovery, that she was back on the stage following a few days of recuperation.

One evening at her invitation, Dr. Nash and I were guests of honor seated in the VIP row of Empire Room, watching the usual Kim trio's performance. They danced, sang, tooted, plucked and hammered countless musical instruments. They clowned, sang and danced some more, bounced and laughed. As the laughter simmered down, the trio put on funny hats, and walked down straight toward us, performing a serenade.

"Ladies and gentlemen, the Kim sisters are showing their gratitude to Dr. Herbert Nash and their fellow countryman pharmacist K.C. Lee of Mercy Hospital, where Ai Ja Kim recently had her aching tonsils removed by Dr. Nash!" It was the booming voice of the stage manager. With that, the packed audience applauded. We rose from our seats and bowed to them I never felt so elated. "Are all the Korean girls as talented as the Kim Sisters?" Dr. Nash asked. "Without American tutelage and generosity, they would have been relegated to an orphanage, because their father was captured and killed by the communists." I said.

<XIV>Positives and Negatives of being a Korean in America

True, we Koreans pride ourselves on being Koreans as I had felt while watching the Kim Sister's performance. However, as an image-conscious people, we feel a certain chagrin or even a

collective sin when a Korean becomes grist for the media mill in connection with an egregious scandal. In the sixties, for a time a day hardly went by without hearing about Tong Sun Park, who euphemistically called himself a "Washington lobbyist." A distinguished-looking man in his forties, Mr. Park was a de facto personal emissary of another Park, ex-army general who had preened himself as an elected president after having the nation's constitution overhauled. With an advantage of speaking English fluently, Tong Sun Park was known to have been greasing the palms of most Beltway high-muck-a-mucks, in trying to gain their favor, thus helping his strong-man boss' Washington connections. According to grapevine source, his spoken English was so good that he was known to have hob knobbed with any lawmakers in town at the place of his choosing.

While Tong Sun Park was still in Washington, one day an anonymous Korean-language newspaper bylined a wealthy Korean gentleman's exposure to Washington night life. This Korean man hopped into a waiting taxicab in front of his hotel. Although he was not too proficient in spoken English, his body language came across to the taxi-man as "Take me to a fun place." the taxi-driver asked his customer if he spoke Japanese or Korean. "I Korean," he replied. "You have to 'Dong'(which almost sounds like money in Korean)—Sun Park(advance pay)' to me, sir." "You have to Dong Sun Park to me, sir" the taxidriver repeated. By Korean custom, Mr. Park goes by "Park Dong Sun" rather than Dong Sun Park, therefore, it had never occurred to him that the driver was referring to the famous Mr. Park Dong Sun. Nor was he aware of his newfangled connotation being used in America.

Thinking that he wanted Dong (money) in advance a slight mispronunciation of "dong" the wealthy Korean traveler asked laconically, "How much?" "When you people grease politicians' palms how much do you pay? One hundred dollars maybe?" The driver blurted out without pausing. Without hesitation, the well-dressed Korean man handed to him a fresh \$100 greenback. Of course he did not realize that he would have to pay a gain a far larger sum at the other end, this time to another person.

남가주 소식

남가주 동창회 신년총회

2003년 2월 15일(토) 오후 6시 30분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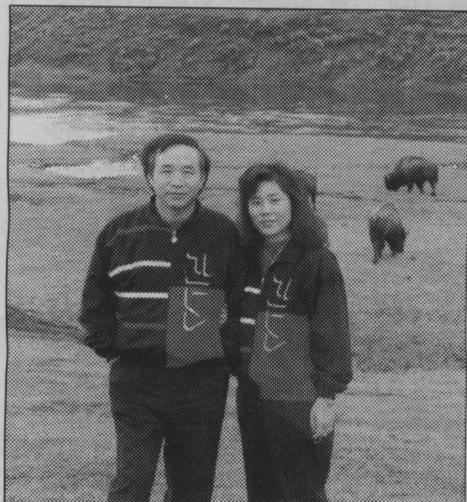
次期회장 객철(법대 64입)동문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임낙균, 약대 64입)는 2003년 2월 15일(토) 오후 6시 30분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동문들께서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신, 구 회장 이취임식이 있는데, 차기회장은

은 객철(법대 64입)동문이다. 남가주 총동창회 정기총회, 회장 이취임식
일시: 2003년 2월 15일(토) 오후 6시 30분
장소: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 (3515 Wilshire Bl., L.A. CA 90010)

同門동정

임용오(醫大 64년졸) 동문
정신병 피병 환자 판별법 창안



간편한 정신병 피병환자 판별법을 창안한 임용오동문 부부

임용오(醫大 64년졸) 동문은 남가주의 Patton State Hospital에서 법의학전문 정신과 의사로(Forensic psychiatrist)근무중인데 최근 개인의人權을 존중하는 미국 司法제도에 있어서 두통거리의 하나인 범죄혐의자의 精神健康상태의 鑑定에 있어 간편하고도 획기적인 방안을 개발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즉, 법정에서 犯罪혐의자를 刑法上の 犯罪행위(Criminality)로 起訴하는데 있어서는 혐의자에게 필요한 法的인 責任을 물을 수 있는 正常人인가의 여부가 兇악범죄인에게 있어서

도 재판절차상 변호인에게 용인되는 爭點이다(The issue of penal code 1370 is whether a person/patient is mentally incompetent to stand trial or competent). 그가 창안한 감식방법은 "피병환자 판별을 위한 6가지 정신건강상태 판별법칙(Formula 6M Detection of Malingering)" 이라고 부르는데 재래식 감식 방법은 오직 정신병 증상의 판별에 의존함으로써 이의 정확한 판별에는 오랜 시간과 판별을 위한 특별요건(환자의 동의, 정신병 징병 환자를 판별하기 위한 문제지를 시험하고 점수를 매기고 그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잘 훈련된 臨床醫의 존재)의 충족이 필요하지만 이 판별법(6M Formula)은 관측대상자의 Mental Illness, Medication, Mad Reaction, Memory Problem, Meticulousness, Evasive Motivation 등의 변수에 따라 특징은 환자에게서 관찰되는 정신질환증상(psychiatric symptoms)에 의존하지 않고 형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여 피병을 부리는 즉,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하는 意圖(motivation)를 파악함으로써 "정신병 환자"의 피병여부의 眞僞(true or false malingering

남가주 동창회 동문들에게 이메일 주소 드립니다

남가주 동창회는 동문들간에 대화를 촉진하고 유용한 정보를 나누기 위하여 남가주 총동창회 website (www. snua.net)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원하는 동문들에게 개인별 E-Mail 주소를 無料로 제공한다 하니 동문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있다.

연락처: Webmaster 조무상 동문(법대), e-mail 주소는 mcho@prosis.net 이며 전화 818-248-4983

남가주 총동창회 Website 전문직 상담자 추천 요망

Website 사용 가능하신 분으로

각 단과대학 전문별로 두 분씩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남가주 동창회 사무국

백옥자 사업국장 213-999-5911

otivation)를 가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 이 판별법은 관측판별 대상자의 주장(claims)과 경험하고 관측되는 行態(behavior) 간의 일관성(discrepancies or inconsistencies)에 주목하는 방법이다. 그 결과, 피병환자(MNP: Malingering Non-psychotic Patients)와 진짜 정신질환자(P: Psychotic)를 가려내는 것인데 측정시간도 몇 분 안 걸릴 뿐만 아니라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직원(nurse, social worker, psychologist etc.)중 모든 사람이 거의 아무때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林동문은 그가 창안한 이 식별법을 지난 해 9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열린 Southern California Forensic Conference에서 발표하여 그 방면의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금년 3월 13일 Asiloman에서 있을 California Forensic Conference에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필자 연락처: 909-425-7853>

온타리오 동창회 조직개편

2003년 3월 1일 신임회과 30명의 이사선임

온타리오 동창회는 금년 1월 25일(토) Toronto "LA Contest Banquet Hall"에서 음대동창회 주관으로 열리는 新年會 겸 총회에서 동창회회칙을 개정하고 조직을 재정비하기로 하였다. 이번 총회를 마지막으로 온타리오 동창회는 지금까지 단과대학 순으로 20여 년간 동창회를 맡아오던 "順番制度"를 끝내고 2003년부터 "理事會制度"로 변경하게 되어 약 30명의 이사선임 작업에 들어갔다. 그간 재미총동창회에서 보내준 미주

동창회 회칙과 한국총동창회에서 보내온 會則을 참고로 하여 法大 동창회 김봉수 회장님의 수고로 새 會則草案을 제정하고 회칙 개정위원회(위원장 李爾柄, 약대 63년졸)의 심의를 거쳐 온타리오 동창회 總會에 제출한다. 각 단과대학 동창회회장님들과 선출이사의 첫모임을 3월1일에 李爾柄 회칙개정 준비위원장 자택에서 총회를 갖고 신임 동창회장을 선출하며 금년도 예산과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투고자: 이이병 동문

☎ 416-385-0107>

김건진 동문 남가주 차기 수석 부회장에 피선

금년 1월 18일(토) 오후 6시 30분 J.J. Grand Hotel에서 열린 남가주 동창회 신년理事會에서 남가주 동창회 차기 首席부회장(次次期회장)선출이 있었는데 열린 선거전에도 불구하고 화기 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투표가 진행되어, 개표결과 김건진(문리대 영문과 62년입) 후보가 19표를 얻어 18표를 얻은 김영(수의대 63년입)후보에 壓倒的(?)인 승리를 거두고 재미총동창회 지부 중에서 공릉과

같은 거대한 남가주 총동창회를 내년에 이끌 重責을 맡게되었다. 김건진 동문은 현재 남가주 문리대 동창회장이며, 남가주 중앙일보 부회장이다. 남가주 동창회는 김건진 동문에게 축하를 드린다. 그리고, 이번 이사회에서는 새로 이취임한 각 단과대학 동창회장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 新任회장(♠)과 지금까지 수고하신 前任회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의 숫자는 입학연도임).

남가주 단과대학 동창회 신규회장단

- ♠가정대- 김혜인 (69) ◎윤순재(60)
- ♠간호대- 하선희(70) ◎김수향(69)
- ♠공대- 이종도(66) ◎정황(64)
- ♠상대-이명선(58) ◎심상은(54)
- ♠음대-윤길숙(49) ◎임선영(53)
- ♠치대-이수남(63) ◎이장길(63)
- ♠대학원- 하상원 ◎최추봉



<사진위>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차기 수석부회장에 선출된 김건진(문리대 62입) 동문의 당선인사.

<사진 아래>수석부회장선출을 위한 개표를 진행중인 선거관리위원. 왼쪽부터 박양중(문리대 61)동문, 임낙균 회장(약대 64), 문홍식(수의대 65)동문, 김지영 총무국장(사대 69)

訃告

李鍾奎(京城醫專 28년 졸) 동문 別世

미주 의대 동창회의 최고원로 동문이시던 李鍾奎(京城醫專 28년 졸)박사께서 2002년 7월 3일 별세하셨습니다. 재미 서울대 총동창회는 유가족들께 삼가 弔意를 표합니다.

밴쿠버소식

밴쿠버 동창회 송년총회 성황리에 개최 신임회장 柳東星(공대 조선공학과 58년입)동문

밴쿠버 동창회 송년정기총회가 지난해 12월 8일 오후 5시에 102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Executive Plaza Hotel에서 성황리에 열려 이임하는 黃澤九(미대 彫塑科 64년 졸) 회장의

후임에 柳東星 동문(공대 조선공학과 58입)을 선출하였다. 임원진은 아래와 같다.

*회장 - 유동성(Dong Sung Yu, 공대 조선공학과 58년입) 전화 604-435-8937(H), 604-666-

141(B) e-mail: dongsyu@shaw.ca *부회장 - 이상호(Sang Ho Lee, 공대 화학공학 60년입) 전화 604-936-2133 e-mail: canshlee@hotmail.com *총무 - 김현승(Hyun Seung Kim, 인문대 독문과 79년입) 전화 604-945-5634(H) / 604-512-6876(O) e-mail: hyun@wrap-zone.com *재무 - 인태욱(Tae Wook Inne, 경영대 경영학과 82년 입) 전화 604-437-3940(H) / 604-643-7755(O), e-mail: i-taewook@hot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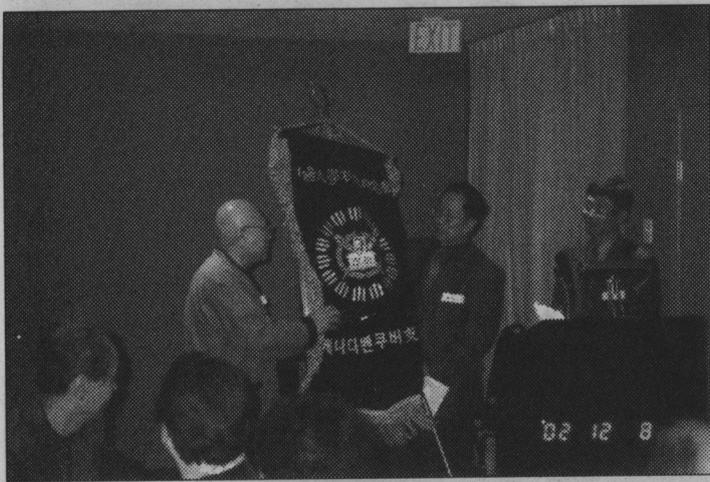
*장학위원회: 최신근(위원장, 59입) 구자학(58입) 한 대준(74입) 동문

*관악상 위원회: 위원장은 박하일(59입) 동문이며 위원 추후선임 예정



정기총회에 온 밴쿠버 동문들

유동성 회장 취임사



신임 2003년도 회장 유동성 동문(공대 조선공학과 58년입·사진 왼쪽)이 2002년도 회장 황택구 동문(미대 조소과 57년입·사진 가운데)으로부터 동창회기를 인수받고 있고 사회자는 3년간 동창회 실림꾼으로 일한 박병우 총무.

새해에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강령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월 8일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금년도 제 12대 동창회장의 책임을 맡겨주신 유동성(공대 58)입니다. 불초한 사람이 아직 생업과 사생활이 분명한 까닭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다만 임원들과 협동하여 성의껏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동창회는 창립 이래 열한 돌을 거듭하는 동안 외형적으로도 성장이 지속되어 이제는 등록원수가 240명에 이르고, 안으로도 조직과 활동이 궤도에 올라서 회칙 제2조에 정한바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활동하여 온 결과로 안 밖으로 신망을 모아 이러한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역대 회장단의 노고를 바탕으로 하여 동문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협력하신 덕분입니다. 특히 고령의 대선배님들께서 숭선 참여하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에 우리 동창회가 무게가 실리고, 그로 인하여 소망이 더하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황택구 회장님이 비전을 제시한 것처럼 지난 10년간 "참여의 성장"을 이룩하였으니, 앞으로 10년간은 "영광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창회는 學緣으로 모인

밴쿠버 동창회 2003년도 사업계획

- 1월 7일 신·구 임원 인수인계
- 2월 1일 소식지 발행(44호)
- 4월 26일 소식지 발행(45호)
- 6월 21일 소식지 발행(46호)
- 7월 19일(토) 하계 야외회 (Warner Loat Park, Burnaby)
- 7월 27일(일) 야드세일
- 8월 30일 소식지 발행(47호)
- 9월 7일(토) 대선배 초청의 밤
- 11월 22일 소식지 발행(48호)
- 12월 13일(일) 정기총회 및 송년회 (能動館 Richmond, Bridgeprt Rd 소재) 예정

순수한 친목단체이므로, 선후배간에 서로 존경하며 돕는 친목활동을 으뜸사업으로 꼽고 봉사하겠습니다. 동창회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뽐내는 이들의 모임이 아니고, 모교와 조국을 사랑하고, 주변사회에 협동하며, 각자 본분을 지키며 생업에 충실한 서울대 동문들의 친목단체일 뿐입니다. 더구나 우리 동문들은 관문을 통과하여 검증 받은 높은 지성을 지닌 분들이므로 대화하면 이해가 통하고, 개성이 선명하여 서로 본받을 점이 많고, 각자의 분야에서 출중하게 정진하는 분들이므로 마

황택구 회장 이임인사

동문여러분께, 11대 회장단 임기 마치면서 인사말씀 올립니다.



단이 마땅히 해야 할 임무도 점차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원 수백명의 동창회 운영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또한 동창회는 몇몇 임원들만의 단체가 아닙니다. 임원

올 가을 단풍이 유난히 곱습니다. 초가을부터 계속되는 청명한 날씨가 가을 색깔을 더욱 짙게 물들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밴쿠버지부 동문회원 여러분의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종사하시는 생업도 날로 융성하리라 믿사옵니다.

엇그제 2002년 새날을 맞은 듯 싶은데 어느덧 그 많은 날들이 흘러갔는지 이제 50여 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동창회 일을 맡은 11대 회장단은 여러모로 부족한 미력이나마 동창회 업무에 온갖 심혈을 기울였으나 결코 동문회원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큼 임무를 완만히 수행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1대 회장단은 동창회를 운영하면서 비록 역대 회장단에 버금가는 업적은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동문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뤄낸 회원명부 개정 발행, 元老先輩님 초청의 밤 행사 개최, 동문회원 年會費 납부 최고기록(10월 31일 현재 116명) 수립등의 성과를 큰 보람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밴쿠버지부는 해마다 가시적(可視的)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회원수 증가에 따라 회장

들이 고된 생업에 시달리면서 동창회 임무까지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그야말로 애로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동문회원 여러분께서도 조금은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태까지 방관적 태도로 일관하시던 동문회원들의 참여와 협력이 더욱 절실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동창회의 꾸준한 발전과 왕성한 활동은 곧 우리의 자존심과 긍지를 지켜주는 방패이며 창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11대 회장단은 2002년도 임기를 마치면서 동문회원 여러분께 동창회 발전을 위한 배전의 협력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회장단을 성원하여 주시고, 바쁘신 중에도 여러 행사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동문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환절기에 동문회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1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밴쿠버지부 회장단 일동 올림.

황택구 회장, 유동성 부회장, 박병우 재무/총무, 김은중 총무

음을 열고 사귄 수 있습니다.

우리 동창회지부의 정례사업인 소식지 발행, 동문 경조활동, 여름 야외회, 장학기금마련 야드세일, 대선배 초대 만찬회, 장학금 수여, 관악상 수여, 총회 및 송년회, 기타 공익사업 출연 등 활동이 바로 그러하다는 실정입니다. 동문들께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만났을 기회가 잦아지고, 자주 만나야 친목이 두터워질 것입니다.

젊은 후배님들도 많이 참여해서 동창회에 활기가 넘치게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금년도도 저와 함께 동창회에 봉사하기로 다짐하신 부회장 이상호 동문(60), 총무 김현승 동문(79), 재무 인태욱 동문(82)께 감사하며 동문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밴쿠버동창회 장학생 모집

동창회 장학위원회(위원장 최신근(59), 위원 구자학(58), 한대준(74) 동문)은 금년에도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장학금 수여의 취지는 동문자제 중에서 미래의 이 민사회를 이끌어갈 俊才를 발굴하여 장학금을 수여하여 격려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학문과 사회활동에 더욱 정진하게 하고 다른 자제들에게도 모범이 되게 하여 2세 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문 여러분들께서는 캐나다, 미국 등에서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2세들을 장학생으로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란다. 연락처: 최신근장학위원장 604-431-5917

뉴욕지역 소식

동창회 송년총회 성황리 개최 정택수동문(문리대 50년졸) 古稀 축하 2002년 12월 28일 197명의 동문가족 참석

뉴욕지역 동창회(제 24대 회장 金鍾律, 사대 55년졸)의 송년총회가 지난 달 28일(토) 저녁 7시에 뉴저지의 대원식당(The Palisadium, 700 Palisadium Dr. Clifton, NJ 07010)에서 열려 197명의 동문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송년총회 회순> ▶1부는 양순우 부회장과 봉주회 총무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개회사-양순우 부회장 ○국기에 대한 경례 후 교가제창-지휘 박상원 ○동창회장 인사-김종을 회장 ○감사패 증정-김종을 회장이 제 23대 회장 한창섭 동문과 이사장 추재욱 동

문에게 증정 ○축가-테너 이용훈, 소프라노 손현희, 피아노 이승윤 동문 출연

▶2부는 노용면 이사장의 축배로 시작된 만찬이 화기애애한 가운데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는 古稀를 맞은 정택수 선배(Golden Club 회장, 문리대 50년졸)님께 참석동문들은 모두 중심으로 축하를 드렸다. 이어 참석자들을 각 단과대학 회장들이 소개하였고 이어서 진행된 여흥시간에는 박양명 악단의 반주에 맞추어 동문가족들의 노래와 춤이 이날 분위기를 고조하였다. 이 날 특별출연에는 송현희와 Mrs. 이수호 동문이 열창하였다. 그리고 이 날 참석자들을 위하여 경품추첨이 있었다. 뉴욕지역 동

창회는 이 날 성공적인 송년총회를 위하여 경품과 특별기부금을 출연한 다음과 같은 기관단체와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항공 (합철호 동문)-서울왕복 항공권 ★Charles Schwab-Duffle bag & Tea Cup Sets ★사범대학 동창회-Florida 왕복 항공권 & 3박 4일 Hotel 투숙권 (★아리랑 여행사) ★뉴욕골프센터(이전구 동문)-Golf 용품

특별 기부금
각 단과대학 동창회 (간호대, 공대, 농대, 문리대, 상대, 약대, 대학원 각 \$300씩 기부)

이재량 동문(상대) \$900, 공화삼 동문(농대) \$200, 서영숙 동문(간호대)은 서울 왕복 항공권 당점의 기쁨으로 뉴욕동창회에 \$400 기부하였고 김태호 동문(약대)은 플로리다 3박4일 항공권 당점의 기쁨으로 \$200을 동창회에 기부하였다.

◆제 24대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창회 임원

회장 김종을(사대), 부회장 양순우(법대), 총무 봉주회(공대), 이사장 노용면(의대), 감사 Edward 강

봉사대) 김장수(약대)
◆각 단과대학 동창회장단
간호대 서영숙, 문리대 최용렬, 사대 정영희 약대 성기호, 치대 박희병, 공대 박선섭, 미술대 한규남, 상대 최수용, 음대 박상원, 대학원 이수호, 농대 신응남, 법대 양순우, 수의대 전병로, 의대 정인용, Golden Club 정택수



뉴욕지구 동창회 회장 金鍾律(사대 55년졸 사진 左)이사장 盧路冕(의대 55년졸)



위의 네 사진은 뉴욕 동창회 총회에 와서 送舊迎新의 기쁨을 나누는 동문들

2002년도 밴쿠버 송년총회 순서

장소 : Executive Plaza Hotel, Aspen-Birch Room
405 North Road, Coquitlam
전화 : 604-936-9399
일시 : 2002년 12월 8일 (일) 오후 5시

- 1부 : 정기총회
 - 사회-재무/총무 박병우
 - 개회 선언...사회
 - 회장 인사...회장
 - 2002년도 신입동문 소개...사회
 - 경과 보고...총무
 - 재무 보고...재무
 - 장학사업 경과보고...장학위원장
 - 장학생 시상...회장
 - 관악상 경과보고...관악위원장
 - 관악상 시상...회장
 - 기타 안건...회장
 - 경조규정 개정
 - 신임회장 선거...회장
 - 신임회장 인사...신임회장
 - 동창회기 인계...구.신임회장
 - 교가제창...일동
 - 폐회 선언...사회
- 2부 : 송년모임
 - 사회 : 박 병우
 - 식사 및 여흥
 - 경품 추첨



총회를 사회중인 총무겸 재무 박병우 동문(사회대 경제학과 76년입, 지난 3년간 밴쿠버의 알뜰 살림꾼)

에 한인신용조합 매트코타온지점 주차장에서 18명의 동문이 낸 자선기증품 판매로 수익금 \$764.51을 확보.

◆ 원로선배 초청의 밤
9월 20일 금요일에 Flamingo House 레스토랑에서 부부동반하신 26명의 원로선배님들을 모시고 덕담을 들으며 부부동반한 스폰서 후배 15명이 모여 선후배간의 유대관계 강화

◆ 송년모임 및 정기총회
12월 8일 일요일에 Executive Plaza Hotel에서 102명의 동문가족이 모임.

◆ 慶·弔事 축하 및 조문
○최정일 동문(문리대 54) 장손자 탄생
○김지구 동문(상대 60) 차남 결혼
○장영철 (법대 62), 김종립 (사대 66) 부부동문 장손자 탄생
○김 훈 동문(문리대 54) 장남 결혼

- 김삼명 동문(농대 61) 따님 결혼
- 김종정 동문(농대 59) 장모상
- 최정일 동문(문리대 54) 장인상
- 박인자 동문(사대 64) 별세
- 박정길 동문(약대 58) 별세
- 엄승용 동문(상대 54) 장녀 웨일리덕터 개업
- 곽재은 동문(음대 89) 독창회 개최
- 조종철 동문(공대 71) 개업
- 김은중 동문(인문 80) 개업
- 조영재 동문(사회대 83)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황택구 동문(미대 57) 개인미술전 개최

이어서 장학위원회로부터 (위원장 김훈 동문, 문리대 54입) 장학사업의 보고가 있었는데 작년 2월에 장학위원회를 구성한 후 심사결과 장학금 수혜자로 박병우 동문(사회대 76년입)의 장남 박재웅군(UBC 1학년, Faculty of Science)이 선발되었음을 김 훈 장학위원장이 보고하였고 황택구 회장이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 이어 관악상 위원회 (위원장 문영석 동문, 농대 57년입)는 2월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들을 심사한 결과 동문 부문에 崔順模 동문(의대 49년입), 비동문 부문에 황승일 변호사를 선발하여 이 날 포상하였다. 同門부문 수상자인 최 순모 동문은 Riverview 정신병원에서 33년간 정신과 전문의사로 활약하여 斯界에서 名聲이 높으시며, 지역 韓人社會에 다년간 봉사하였고, 1997년 제6대 동창회장으로 일하면서 동창회 발전에 공헌하였다. 非同門 부문 수상자인 황승일 변호사는 1990년 UBC Law School 을 졸업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지역 동포들의 법률사무를 돕고 있으며, 지역 동포사회에서 다방면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동포들의 권익을 옹호한 공적이 높이 평가되었다.

訃告

박정길(약대 58) 동문 別世

박정길(약대 58) 동문 12월 4일 지병으로 별세하셨다. 유족은 부인과 UBC 재학중인 남매가 있다. 재미서울대 총동창회와 밴쿠버 동창회는 유가족께 삼가조의를 표합니다.

밴쿠버 동창회는 빈소에 문상하고, 장례식장에 동창회 조기를 게양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 날 총회에서 박병우 총무 겸 재무는 지난 2002년도에 황택구 회장 주재로 12번의 동문회와 임원회의를 통하여 집행한 2002년도 동창회 업무 및 행사 경과보고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 밴쿠버 소식지 발행 및 동창회보 배포 5회

(1) 소식지: 제39호(1월), 제40호(4월), 제41호(6월), 제42호(8월), 제43호(11월)

(2) 동창회보: 서울 총동창회보 및 미주 동창회보

◆ 野遊會
7월 27일 토요일에 Warner Loat Park, Burnaby에서 열려 동문 및 가족 106명 참석

◆ 야드 세일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8월 11일 일요일

워싱턴DC 소식

조영남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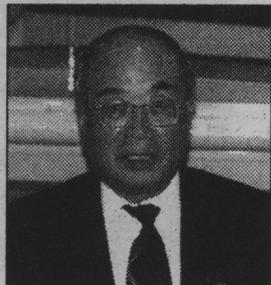
2003년 3월 2일(일) 오후 7시
조지 메이슨 대학 콘서트 홀

2003년 3월 2일(일) 오후 7시에
는 버지니아 페어팩스 소재 조지
메이슨 대학 콘서트 홀에서 인기
가수 조영남(음대 64년입) 동문의
콘서트가 개최된다. 이 콘서트는
워싱턴 지역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한인
들이 함께 참여하고 축하할 수 있

도록 우리 동문회가 후원하는 행
사이다. 이 행사를 위해 방은호 이
사를 주축으로 한 임원진들로 구
성된 음악회 준비위원회가 발족되
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티
켓은 A석, B석, C석이 각각 35
불, 25불 15불에, 12월 중순부터
각 단대 동문회장을 통해 판매되
며, 내년 2월부터는 일반 예매처
에서도 예매가 가능하다. 동문들
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거
를 바란다. <연락처 이영목 회장
703-748-0269>

박윤수(문리대 48년입) 박사 퇴임기념만찬 3월 3일 저녁 6시

워싱턴 지역동창회의 원로 동문
이시고 워싱턴 지역 한인 이민 100
주년 기념사업회장으로 수고하시
는 박윤수 박사(문리대 물리학과
48년입, 재미서울대총동창회 초대
회장 역임)가 오래동안 근무해오
던 미해군성 기술행정관직에서 이
번에 은퇴하게 되어 이를 기념하
는 만찬이 2003년 3월 3일 저녁 6
시에 있을 예정이며 장소는 추후
발표될 것이다. 장소문의: 이영목



회장 703-748-0269

李英默 동문 "우리들의 肖像畫" 판매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

이영목 동문(공대 섬유과 59년
입, 워싱턴 지역동창회장)이 한인
이민 사회의 동포들의 생활상을
박진감있게 묘사하여 한인 이민사
회에서人氣를 크게 모으고 있는
소설집 "우리들의 肖像畫"가 워싱
턴 DC지역 한인 이민 100주년 기
념 사업회가 출판하여 판매되고

있는데 이 수익금 전액은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에 사용될 예정
이다. 책 가격은 25불이며 이 책
의 구입희망자는 수표와 함께 워
싱턴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
회 (PO Box 1262 Falls
Church, VA 22041) 로 보내면
된다.



한인 이민 사회의 애환을 그린 소설집 출판회에서의 저자 이영목동문(사친 맨오른쪽)



공과대학 동창회
워싱턴 지역 공과대학 동창회
(회장 장효강, 공대 전자과 66년

입)가 2003년 2월 8일(토) 오후 6
시에 동창회장 장효강 박사택에서
있을 예정이다.

訃告

김효성 동문 (공대 51년입) 別世

김효성(공과대학 금속공학, 51년입) 동문께서
2002년 11월 8일 별세하셨습니다. 재미서울대총동창회는
유가족들께 삼가 弔意를 표합니다.

김영길 한동대 총장 환영 간담회

국내에서 원숙한 인격을 갖춘 우
수한 인재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김영길(공대 60년
입) 한동대 총장의 워싱턴 방문을
환영하는 동문들의 간담회가 오는
2월 3일 월요일 오후 6시에 워싱
턴 중앙장로교회 교육관에서 워싱
턴 지역 서울대 동창회 주최로 열
릴 예정이다.

사범대 동창회 송년회

사범대학 동문회(신임회장 정요
셉)는 지난 11월 15일 연말모임을
가졌다. 20여명의 동문들과 가족
들이 모여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건강강좌와 골프 강좌를 들으며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
요셉 동문회장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8445 Old Columbia Rd.
Laurcl, MD 20723
전화 301-617-0129

상대 동창회 송년회

상대 동문회(회장 정유상)는 지
난 12월 7일(토) 오후 4시 메릴랜
드 엘리컷시티 소재 정유상 동문
회장의 자택에서 연말모임을 가졌
다. 선물교환 등의 순서도 가지면
서 훈훈한 연말을 함께 보냈다.

문리대 동창회 소식

문리대 동창회(회장 오인환)에
서는 지난 번 발간된 회원명부를
100여명의 동문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주소확인 후 반송되지 않는
동문들에게만 발송하고 있으므로
주소가 변경된 동문들은 연락바란
다. 다음은 반송된 동문명단이다.
강영자, 고여일, 김관, 광명수,
김건, 김근진, 김우열, 서무중,
오세영, 한숙희

또한 회원명부 발송을 위한 우
편요금 기증도 동시에 받고 있다.
현재까지 이종삼(30불), 김홍라
(10불), 이규양(10불), 최동현(5
불), 유홍열(50불) 동문이 성금을
기부하였으며 더 많은 동문들의
도움을 기다린다.

현재 총동창회에서 활동중인 문
리대 동문 이사진은 13명(강웅조,
김영기, 김정현, 박윤수, 박일영,
오인환, 이병국, 임문빈, 최동호,
최호택, 한인섭, 송상희, 안승건)
으로 동문 수에 비하여 적은 편이
다. 더 많은 동문들이 총동창회 이
사로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필라 소식

鄭丁壽 동문(의대 62년졸, 미주의대동창회장) 자랑스런 서울의대인으로 선정

의과대학 동창회와 모교가 공동
으로 주관한 제 12차 同窓의 날 행
사가 2002년 10월 21일 모교대강
당에서 열려 정정수 동문(의대 62
년졸, 허쉬 의대 임상교수, 미주
의대동창회장)이 의대 16회 동기
생인 이순형(전모교학장) 동문과
지제근(모교 병리학과 교수, 대한
의학회장) 동문과 함께 "자랑스런
서울의대인"으로 선정되었다.

올해 동창의 날 행사는 졸업 40
주년을 맞은 16회 동창(1962년 졸
업)들이 主賓이 되어 'Home
Coming'행사로 진행됐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이종욱 학장과 본회 이길여 회장,
명예교수와 원로동창 등이 대거
참석하여 졸업 40주년을 맞은 16
회 동기회를 歡迎하고 격려했다.
모교와 동창회의 환대를 받은 16
회 동기는 이종욱 학장에게 모
교 발전기금과 동기회 기념 문집
을 전달하여 答禮했다. 이어 모교
와 병원을 소개하는 영상물 관람



및 단체기념 촬영을 마친 동기생
들은 뒤이어 거행된 합춘회관 준
공식에 모두 참석, 회원들의 동참
으로 결실을 본 회관의 구석 구석
을 둘러보고, 동창회에 대한 자부
심도 키웠다. 한편 16회 동기는
이날 공식행사를 마친 뒤 3박 4일
간의 일정으로 설악산 일원으로
단체 여행을 하며, 우정과 친목을
다졌다.

플로리다 同門동정

朴慶姬 동문(음대 57년 입) 피아노 독주회

박경희(음대 57년입) 동문이
2002년 11월 22일에 Florida
Palm Beach Garden의
Frenchman's Creek Main
Hall에서 Piano 독주회를 가졌
다. 박경희 동문은 1957년 경기여
고를 졸업하고 모교음대를 61년 2
월에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수학하
였으며 61년 12월에 渡美하여 S-
tate Univ. of NY at Buffalo
에서 Master of Fine Art 학위
를 받았다. 차동문은 한국에서 문
교부 콩쿨 입상, 조선일보 주최 신
인음악회 출연, 음대 오케스트라,
시립교향악단의 獨奏者로 출연하

였다. 미국
에서는
Buffalo
Commu-
nity
Music
School
Buffalo,
N Y 과
Peabody
Conservatory of
Preparatory Dept (Baltimou,
Maryland)에서 교수로 재직하였
으며 은퇴후 Palm Beach,
Florida로 내려와서 毎年 Piano
Recital을 가져왔다. 夫君은 한용
현(서울의대 48년졸) 동문이며 그
는 은퇴 후 油畫 작품활동을 시작
하였는데, 매년 Frenchman's
Creek에서 미술 전시회를 통하여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 동문여러분 소식 많이 보내주십시오

뉴스레터를 내면서

새해를 맞이하여 동문 여러분과
동문 가족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깃들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뉴스레터가 첫 선을 보입니다. 이
뉴스레터는 어떤 특정인이 기사를
쓰거나, 또는 그의 생각하는 바를
펼치는 그 어떤 유인물과는 다릅
니다. 그저 우리 동창회 임원들이
준비한 하얀 화폭 위에 여러분의
소식, 동정, 그리고 알리고 싶은
이야기를 채워 나가는 우리들의

게시판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
와 같이 뉴스레터는 매 분기마다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 뉴스레터
가 명실공히 워싱턴 동문회의 게
시판으로써 제 역할을 하기에는
여러 동문들의 한 명 한 명에 달려
있음을 주지하시고 다시 한 번 동
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
다. 아무쪼록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게
시판에 실릴 소식들을 많이 보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동창회장 이영목(공대 61입)

시카고지역 소식

동창회 활동적인 22대 집행부 출범

張基南(문리대 62년입) 회장 젊은 동문 전진배치

同門들간의 화목한 단합과 임원들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분업으로 그 조직적인 활동이 재미 서울대 총동창회 지부가운데 模範을 보이고 있는 시카고 지역동창회는 2002년 11월 30일 총회에서 22대 회장으로 선출된 장기남(문리대 62년 입)동문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여 내달 2월 9일에 제 1차 임원회를 시작으로 새해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미주내의 모든 지역동창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한 동창들의 노령화와 신입 동문의 감소추세 속에서 어떻게 동창회 활동을 확대, 발전하여 나아가갈 것인가란 문제를 시카고 동창회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금년에도 새로운 동문들을 많이 찾아내고, 동문들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며, 시카고 韓人社會에 奉仕하는 조직으로서 모범적인 동창회의 활동을 펴기 위하여 "한번 동창회 임원이면 영원한 임원이다"는 원칙이래 많은 동문들의 동창회 활동의 참여를 추진하여 온 신입 張동문은 금년 1년간 동창회를 위하여 수고할 임원진을 구성하였는데 이번에 구성된 임원진의 특징은 "한국의 선거를 통한 世代革命"의 추세를 反映하였는지 지금까지 시카고 동창회의 발족부터 계속하여 수고하여 오신 元老 동문들을 자유롭게 하고, 선배들의 활약아래 지금까지 뒷전에서 활동하여 오던 50대 중반의 젊은(?) 동문들을 전진 배치하여 동창회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함께 봉사할 임원진으로는 수석부회장에 전현일(농대 66년 졸)동문이 선출되었는데, 全 동문은 오랫동안 시카고 동창회의

살림꾼으로 "萬年財務"의 功德을 쌓아 내년도의 시카고 지역동창회의 회장수업을 시작하였고, 2인의 부회장으로는 최희수(문리대 67년 입)동문과 강영국(수의대 67년 입)동문이 선출되었는데 최희수 동문은 그간 모교의 學制變更으로 서울대 역사 속에 "大學중의 大學"으로 기억되는 文理大의 시카고 동창회 "萬年總務"로 수고해왔으며, 熱情적인 봉사정신으로 동문 선후배간에 신임이 두터운 강영국 동문은 20대 회장단에 부회장으로 수고하였지만 이번에 시카고 동창회를 力動的으로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동문들의 여망에 의하여 다시 부회장으로 召喚(?)되었다. 또, 22대 집행부의 활동을 독려할 監事로 이철주(치대 77년 입)동문과 한의일(공대 66년 졸)동문이 수고하게 되었다. 또한, 고문진 구성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시던 원로 동문들로부터 시카고 동창회의 熾발을 이어갈 "젊은" 전임 회장단을 추대하였는데 이분들은 16대부터 21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張회장은 시카고 동창회를 "젊고 푸르게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카고 동창회의 가장 큰 행사인 송년총회를 보다 흥미롭고 다양한 내용의 행사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우선 지금까지 원로동문 가족들에게 인기있는 舞蹈會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의 동문들이 부담없이 대화를 나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좌석배치의 새로운 구상을 하고 또 동창회 역사의 변화와 개별동문들의 발전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개별동문들의 회귀한 사진첩에서 모은 사진을 슬라이드 쇼로 바꾸어 식별하는 행사

등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구성된 동창회의 22대 회장단의 임원진은 시카고 동창회의 中興을 이루는 한해가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돌샘>

시카고동창회 22대 임원진

- ◆회장 장기남(문리대 62년입)
630-321-1943(H), 312-357-0831(W)
- ◆수석부회장 전현일(농대 66년졸)
630-933-0601
- ◆부회장 강영국(수의대 67년입)
708-361-1526, 708-599-4800
- ◆부회장 최희수(문리대 67년입)
773-777-0575
- ◆총무 사남순(간호대 75년졸)
847-291-9375
- ◆재무 김 영 (문리대)
630-655-2320 630-707-1106
- ◆간사 김용주(공대 77졸) 이소정(음대 84년입) 심명원(음대 86년입) 김재환(사대 76년졸) 이정훈(공대) 이형준(농대 88년입, 한국일보 기자)
- ◆감사 이철주(치대 77년졸)
한의일(공대 66년졸)
- ◆고문 (전임 회장중에서 추대) 소진문(치대 62년졸, 16대 회장) 박창만(공대 60년졸, 17대 회장) 구경희(의대 65년졸, 18대 회장) 김정주(문리대 64년졸, 19대 회장) 조대현(공대 61년졸, 20대 회장) 한재은(의대 65년졸, 21대 회장)
- ◆장학생 선발위원(2년직)
유임위원(2001-2002): 서승환(치) 설상수(문) 진관보(의) 임이섭(미) 이강엽(문)
- 신임위원(2002-2003): 김광재(문) 이소정(음) 이흥미(약) 최호승(사) 한의일(공)
- ◆장학기금 관리위원(3년직)
유임위원(2000-2002): 박종희(의, 위원장) 김용주(공) 장기남(문)
- 신임위원(2002-2003): 이철주(치) 박영규(농)
- ◆2004년도 동창회 회장 선출위원회
조대현(공, 위원장) 박영규(농) 구경희(의) 최일주(공) 최길용(문) 최호승(사) 오수환(의)

2003년 행사 계획안

- ◆2월 9일(일) 오후 3시/ 제 1차 임원회 (장기남 회장자택)
- ◆3월 22일/ 제 1차 이사회 (Oak Brook Hills Resort Hotel)
- ◆4.5월/ 제 2차 임원회 (추후 발표)
- ◆5월 24일(토)/ 춘계골프 대회 (Willow Crest Golf course)
- ◆5월 30일-6월 2일/ 미주총동창회 평의원회 (L. A. Sheraton Hotel)
- ◆6월 21일(토)/ 하계 야유회 (작년과 같은 장소 Busse #12)
- ◆8월/ 제 3차 임원회 (추후 발표)
- ◆9월 13일(토)/ 추계골프 대회 (Willow Crest Golf course)
- ◆10월 4일(토)/ 제 2차 이사회 (Oak Brook Hills Resort Hotel)
- ◆10월/ 제 4차 임원회 (추후 발표)
- ◆11월 29일(토)/ 총회 및 송년회 (Radisson Hotel)

장기남 신임회장 취임인사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21년 전 훌륭한 의지와 목적과 희망을 가지고 서울대학교 시카고지역 동창회를 창립하여 그 동안 많은 발전과 좋은 전통을 쌓도록 수고하신 선후배 동문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전임 회장님들의 훌륭한 업적을 대과 없이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무거운 책임감에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존경하는 선후배님들의 아낌없는 예지와 슬기로 많은 지도 편달을 기대하며 2003년도 본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우리 동문 한 분 한 분이 서울대 동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남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인격과 탁월한 선후배님들의 의미있는 삶을 배워가며 추억 가득한 학창시절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동창회가 되리라 자부합니다.

그 동안 동창회에 전혀 참여치 않거나 관심 없이 외면하던 동문들도 이제부터는 모두 참여하시어 삶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아름다운 친구들의 추억을 엮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돈과 권력에 찌든 사람들이 아니고 훌륭한 친구들과 매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들 동창회에 참여하시어 훌륭한 선후배 친구들과 좋은 시간 즐기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고 이 좋은 추억이 삶에 활력소가 되고 기쁨과 평화가 항상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서울대학교 재미동창회 시카고 22대 회장 장기남

이용락 총동창회 회장 송년총회 격려사 시카고 冠岳誌 발간을 축하합니다

지금까지의 隔年 발간의 전통에 따라 금년에도 시카고 冠岳誌가 간행된 데 대하여 전체 동문들과 함께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시카고 지역동창회는 1991년에 미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발족보다 9년이나 앞서 1982년 창립되었으며 이 때 저 자신도 시카고 지역동창회의 창립 발기위원의 일원이었던 기억을 지금도 기쁨으로 간직하며, 그 이후 여러 동문들의 힘을 모아 어느 지역동창회보다 和合하여 內實 있는 동창회로 지속적인 발전을 계속하여 온 것을 同門의 한 사

람으로서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제20대 조대현 회장님과 제21대 한재은 회장님이 이끌어 오신 시카고 지역동창회는 지금까지의 시카고 전통에 따라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산하의 어느 동창회보다도 동문 회원들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동창회이며, 전체 동문들의 熱과 誠을 모아 獎學事業 및 地域社會 奉仕活動을 펴며 해마다 새로운 동문을 찾아내고 世代가 다른 젊은 학생회원들을 환영하여 生動하는 동창회로 계속발전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이 곳 시카고에 본



부를 옮겨온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그 기간 사업인 재미서울대 동창회보가 그간 그 면모를 일신하여 격조있고 내용있게 간행할 수 있도록 物心兩面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우리 시카고 동문들께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를 대표하여 중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또한 지난 8월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1년여간의 준비를 거쳐 母校와 서울의 총동창회의 재정후원으로 母校 "음악대학 학생 미주 순회공연단"의 첫 공연을 시카고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하고 이 연주단의 後輩들을 따뜻하게 환영하신 우리 시카고 동문들의 協力과 誠心을 모신 한재은 회장님, 장기남, 김동희 부회장님과 시카고 음대 동창회원들께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이 음악회를 위하여 수준 높은 연주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전 미주 타 지역의 동창회에 그 모범을 보이고 크고 작은 배려로서 이 음악회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게 한 이소정 동문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나온 冠岳誌는 지난 2년간의 우리 시카고 동창회의 歷史일 뿐 아니라 동문들의 玉稿를 모은 文集의 역할을 겸하고 있어 "知性人의 友情을 글로써 나누는" 우리 동창회만이 갖는 矜持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간행에 수고하신 여러 동문들께 감사하고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새해에도 시카고 지역동창회의 모든 同門들의 가정에 健康과 幸運이 함께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02년 11월 30일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李龍洛(공대 53년졸) 배상

관악지 배포처
한재은 전임회장
847-428-4929

시카고 소식

2002년도 주요행사 요약 보고 (이승자 총무)

★1월 12일-제 1차 임원회 (한재은 회장대)
임원간 상견례, 업무 인수 인계, Newsletter 발간 토의,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신입이사 후보 선출, 미주 총동창회 협조관계.

★3월 23일-제 1차 이사회(Radisson Hotel)
총 70여명(부부 포함) 참석. 임원진 소개, 2002-2004년도 신입 이사 인준, 2002년도 사업 계획안 및 예산 인준, 장학기금 관리위원 인준, 장학생 선발위원 선출 및 장학금 인준, 미주 총동창회 평의원 선출, 차차기 회장 선출 위원회 선출 인준.

★5월 11일 제 2차 임원회(김동희 부회장대)
재미 총동창회 평의원회 준비(6월 14일-16일, Oak Brook Hills Hotel & Resort), 춘계 Golf Outing 준비(6월 16일), Picnic (6월 22일)준비, 모교 음대생 미주 순회공연 주제 문제 등 토의.

★6월 14일-16일 -미주 총동창회 평의원회(Oak Brook Hills Hotel & Resort)
6월 14일-15일 양일간에 걸쳐 재미 서울대 총동창회 창설 10주년 기념 심포지움과 제 11차 재미 총동창회 평의원회 개최되어 재미 총동창회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다음날 열린 평의원회에서는 재미 총동창회의 사업 전반에 관한 심의 및 의결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를 위하여 시카고 일원의 동문들이 평의원회 진행을 뒷받침하였고, 15일 저녁에 열린 만찬에는 고병철 동문(UIC정치학 교수)의 남북한 관계에 대한 특강이 있던 후, 타지역에서 온 평의원회와 시카고 지역 동문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미 총동창회의 발전과 진목을 다짐하는 만찬과 음악회가 성대히 열렸는데, 이 음악회는 시카고 음대동창회의 이소정 동문이 주관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감사를 받았다.

★6월 16일 - 춘계 골프대회(Willow Crest Golf Club)
재미 총동창회 평의원회에 참석한 내빈을 포함 성대히 거행되었는데 컴퓨터에 구성된 동문(Net)과 강영국 동문(Gross) 및 Mrs. 이수인(여자부 Gross) 등이 수상하였으며, 타 지역에서 온 손님들 중에서는 남

가주에서 온 오홍조동문(재미 총동창회 수석 부회장) 내외가 우승하였다(자세한 기록 동창회보 100호 73면 참조).

★6월 22일 - 여름 아우회(Busse South Forest Preserve Grove #12)
동문, 가족, 친지 및 guest등 120여명 참가, 동문 소개 및 푸짐한 점심식사와 운동경기

★8월 16일 모교 음대대학 미주 순회 연주단 공연 (10명의 학생 연주자)
North Park University, Anderson Hall에서 300여명의 교민이 모인 가운데 고국의 얼이 담백 실린 아름다운 연주회였음.

★9월 7일 - 학생동문 환영회(장기남 수석 부회장대)
약 15명의 학생동문이 가족들과 참석하여 선배 동문들과 대화를 나눔.

★9월 7일- 제3차 임원회(장기남 수석 부회장 대)
2차 이사회 보고, 춘계 Golf 대회건 토의, 기타 안건으로 장학생 선발 관계 보고, 지역 사회 봉사 활동, 2차 이사회 준비(장소), 관악지 발간, 연말 총회 및 party 등 토의

★9월 21일-추계 골프대회(Willow Crest Golf Club)
쾌청한 날씨, 성공적인 골프대회의 저녁식사

★10월 5일 제 2차 이사회(Oak Brook Hills Hotel and Resort)
총 61명(부부포함) 참석, 차차기 회장(2004년도) 선출/인준, 차기 회장단(2002년도)선출/인준, 장학생 선발 중간 보고, 관악지 발간 진행 보고, 장학금 현황 보고, 신수정, 이경선 음악회 입장권 판매 및 기타행사 보고.

★11월 2일-제 4차 임원회(황치용 부회장대)
연말 총회 및 파티준비, 관악지 발간 준비.

★11월 7일 - 신수정, 이경선 피아노 바이올린 듀오 리사이틀이 열렸다.

★11월 30일 2002년도 총회 및 연말 파티(Radisson Hotel)
장학금 수여, 관악지 배우, 신입 회장단 소개



2002년도 동창회 이사명단

(☆는 2002년도 이사회비 내신 분이며, 감사드립니다)

◆2000-2002 (30명)

강영국(수☆) 강창만(의☆) 김봉현(법☆)
김사직(상) 김운경(치☆) 김영자(간) 김이순(공) 김정주(문☆) 김태기(의) 김현규(의) 김호범(상☆) 반응균(의) 배건재(공☆) 송순영(문☆) 송재현(의☆) 심기창(문) 윤우중(의) 이강업(문) 이기억(문) 이병주(상) 이승자(사☆) 이화영(공☆) 임근식(문☆) 임현재(의☆) 전현일(농☆) 조철원(문☆) 진관보(의) 최길용(문☆) 최순분(간☆) 최순용(문☆)

◆2001-2003 (29명)

강수상(의☆) 구행서(공☆) 김광재(문) 김동희(공☆) 김석학(약) 김윤범(의☆) 김윤태(의☆) 김인원(의☆) 노재욱(의) 문병훈(사☆) 박홍근(공) 배영섭(의☆) 소진문(치☆) 송원희(미☆) 양호승(농) 오병진(의☆) 육길원(사) 이용락(공☆) 이윤모(농☆) 이철주(치☆) 장기남(문☆) 전경철(공) 정광훈(공☆) 정승규(공☆) 조대현(공☆) 조중형(의☆) 최호승(사☆) 한의일(공☆) 한재은(의☆)

◆2002-2004 (30명)

강화영(문☆) 구경희(의☆) 김길중(의☆) 김선영(음) 김선철(의) 김윤하(공☆) 김해중(의☆) 김해묵(문) 노영일(의☆) 박 숙(의) 박영규(농☆) 박창만(공☆) 서승환(치☆) 신석균(문☆) 오수황(의☆) 윤덕상(치☆) 윤석한(치) 이광선(의☆) 이소정(음) 이수인(의☆) 이승훈(공) 이영우(문☆) 이흥미(약☆) 임이섭(미☆) 장윤일(공☆) 정지희(문☆) 정 호(공☆) 최일주(공☆) 한종하(의☆) 황치용(문☆)

◆추가로 이사회비 내신 분(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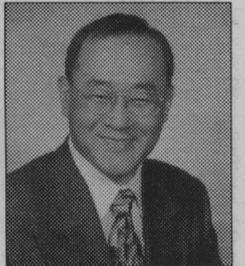
곽영로(수☆) 김정길(의☆) 이기춘(약☆)

◆2002년도 당연직 이사 (14명) *(10명)

은 선출이사 겸 당연직 이사 (21대 회장단과 단과대학 회장단) : 한재은*(의, 회장) 장기남*(문, 수석부회장) 김동희*(공, 부회장) 황치용*(문, 부회장) 박홍근*(공) 유태원(농) 최길용*(문) 송원희*(미) 지명식(사) 곽영로(수) 이기춘(약) 김선영*(음) 노영일*(의) 이철주*(치)

(사진) ①연말총회에서 장학생들과 함께 기념촬영. 왼쪽부터 한재은 전임회장, 장학생 양범모, 김세영, 이선영, 강석민, 고대용, 장기남 신임회장 ②연말총회에 온 동문가족들. 뒷줄 왼쪽부터 강영국 신임부회장, 조대현, 전현일 수석부회장, 박영규, 한재은, 장기남. 아래줄 왼쪽부터 Mrs. 박영규, Mrs. 전현일, Mrs. 장기남, Mrs. 한재은, Mrs. 조대현, Mrs. 강영국등은 ③ 뒷줄 왼쪽부터 이윤락, 최일주, 박영규, 이흥미 Mr. 이흥미(이소연씨), 아래줄 Mrs. 김봉현, 김봉현 동문 ④ 뒷줄 왼쪽부터 Mrs. 서승환, 장기남, Mrs. 조시호, 조시호(전 휴스턴 동창회 회장, 재미 총동창회 종신이사, NW와 UC에 자녀들이 재학중임), 강영국, 아래줄 왼쪽부터 이철주, 곽영로(수외대) 동문부부

한재은 21대 회장 이임인사



친애하는 先後輩 여러분,

제가 서울대학교 재미동창회 시카고지부 회장일을 시작한지도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올해에는 예년 행사 외에 재미총동창회 평의원회의가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시카고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었었고, 본국의 음악대학 학부/대학원 미주 순회연주단의 시카고 공연이 처음으로 시도되었는바, 이를 物心兩面으로 지원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미주순회 연주단의 시카고 공연은 주어진 준비기간이 워낙 짧은데도 불구하고 300석의 연주홀이 가득차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공연 program 자료 및 진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이 챙겨주신 이 소정 교수 및 음악대학 동문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연주단의 숙식을 제공하여 주신 장기남 수석부회장 및 김동희 부회장 부부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저의 미흡한 점을

채워주심과 동시에,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힘든 일들을 맡아주신 여러 임원내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을 통하여 가깝게 알게되었음을 회장 임기 중 크나큰 보람 중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지난 1년 중 아깝게도 조석재(문리대 55년입학), 이재선(문리대 61년졸업), 이동찬(미대 61년졸업) 동문 세 분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명복을 바랍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차기 장기남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심으로 동창회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성탄과 새해를 맞아 동문 여러분 家內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서울대학교 재미동창회 시카고지부 21대 회장 한재은

◆2002년도 21대 집행부 임원 명단
수석부회장: 장기남(문) 부회장: 김동희(공) 황치용(문) 총무: 이승자(사) 재무: 김영(문) 편집간사: 육길원(사) 웹마스터: 임진서(사) 홍보간사: 김인원(의) 특별간사: 조철원(문), 최순분(간), 김선영(음) 학생

간사: 김소영(사), 이대기(사), 장현영(약) 감사: 전현일(농), 이수인(의) 고문: 문병훈(사), 송재현(의), 이용락(공), 강수상(의), 최일주(공), 송순영(문), 박창만(공), 조대현(공), 박영규(농), 김정주(문), 구경희(의)

뉴잉글랜드 소식

동창회 送年총회

1월 18일 少數精銳 모여 단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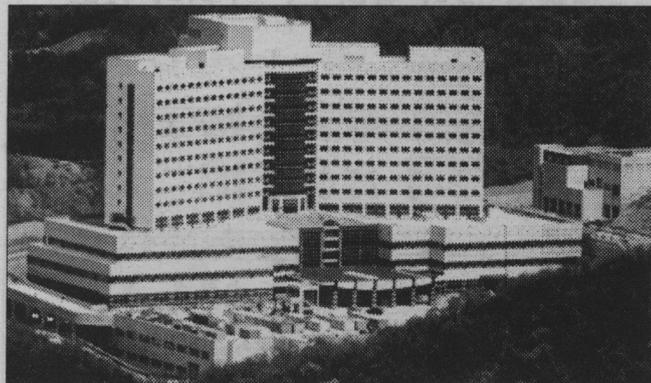
서울대학교 재미 동창회 뉴잉글랜드지부 (지부장 이재신·사진, 공 57입)는 2003년 1월 18일 에 매세추세츠주의 렉싱턴에 위치한 Lexington Lodge of Elks에서 2003년 총회 및 신년 파티를 가졌다. 추운날씨로 인하여 예상보다 적은 인원인 40여명이 모였으나, 오랜만에 동창들이 서로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정기총회에서는 예년과 같이 장학금 수여, 노인학교와 노인회에 성금전달을 했으며, 노인학교에서는 지부장인 이재신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지부장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것을 토의하였으나 회원의 정족수 미달로 다음 회장단과 총회로 미루기로 하였다. 이어서 진행



된 신년파티에는 뉴욕의 라디오 서울에서 동네방네라는 프로그램을 맡고있는 MC를 초청하여 즐거운 여흥과 댄스파티로 참석한 모든 회원과 가족들이 지루하고 추운 매사추세츠의 겨울밤에 재미 있고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모교소식

「분당 모교병원」 준공 국내 첫 노인·성인질환 특화병원



분당 모교병원(원장 成相哲)이 지난 12월 4일 金大中대통령 내외와 金成豪보건복지부장관, 모교 朴容昭병원장 등 각계 인사 2백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1996년 3월 공사를 시작한 이래 6년만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준공된 분당병원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 및 성인질환을 위한 국가중양 의료

센터이며, 국내 의료기관 중 최초의 노인 및 성인질환 특화병원이다.

분당 成相哲병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모교 朴容昭병원장은 『급증하는 노인의료 수요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전문 의료기관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라며 『분당병원의 준공은 국내 의료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축사를 했다.

8백여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분당 병원은 교수 1백20여 명을 포함해 1천3백여 명의 직원이 하루에 3천여 명의 외래환자 진료를 맡게 되고, 23개 과목을 진료한다.

자율적 독립경영체제로 운영되는 분당병원은 노인 및 성인 질환에 대한 국가 의료센터 기능, 완벽한 디지털 의료시스템 구축, 질병별 전문센터 운영,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진료 및 응급센터 역할 등을 수행하며 국내 의료수준을 한 단계 올려 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첨단 디지털 병원 시스템 구축은 분당병원의 최대 장점이다. 환자의 진료 데이터를 전산으로 보관하는 전자의무기록장치(EMR)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CT와 MRI 등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의료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PACS), 온라인 처방전달시스템(OCS) 등이 마련돼 있다. 의료기기 시험가동과 모의 환자를 통한 진료시스템 점검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에 개원, 본격적으로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朴容昭원장 등 모교 병원 임직원

분당병원 건립 공로로 훈장·표창

모교 병원 임직원 24명은 지난 12월 21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실에서 국내 최초 노인전문병원인 「분당 모교병원」 건립 공로로 朴容昭원장이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훈장 및 장관표창을 받았다.

차원장과 더불어 분당 成相哲병원장이 황조근정훈장, 鄭利成 행정처장이 국민훈장 동백장,

朴榮培 前분당병원 건립추진본부장이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吳秉熙 前기획조정실장과 분당병원 개원준비단 尹浩鏞사무국장이 각각 대통령 표창, 盧宰圭 前분당병원 건립추진본부장이 국무총리표창, 분당병원 개원준비단 金哲鎭진료기획처장 등 17명이 각각 장관표창을 받았다.

시력 상실 환자 모임 「RP협회」

인공망막 연구진에 기금 전달

한국RP협회(회장 南惠云·89년 法大卒)는 지난 12월 14일 모교 병원 임상의학연구소를 방문해 안과 鄭欽과장이 이끄는 인공망막 연구진에게 연구기금 1백만원을 전달했다.



협회원들은 임상의학연구소 李鎭學소장과 鄭欽과장, 소아안과 劉英碩교수, 徐鍾模안과전임의의 안내로 인공망막 연구진의 연구내용과 시설을 견학했으며, 향후 긴밀한 상호 협조관계 유지를 약속했다.

한국RP협회는 망막색소상피변성이라는 질환(국내 10만~2백50만명 추산)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환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2001년 3월 발족했다.

인문대학 李泰秀학장 선임 자연대 학장에 金夏奭교수 입학관리본부장에 金完鎭교수

지난 12월 6일 행정대학원장에 吳然天교수가 재선임됐으며, 입학관리본부장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金完鎭교수가 선임됐다.

이어 12월 7일 모교 인문대학 학장에 철학과 李泰秀교수가, 16일 자연과학대학 학장에 화학부 金夏奭교수가 취임했다.

인문대 李학장은 67년 문리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육사 교수를 거쳐 81년 모교에 부임했으며, 교무처장과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자연대 金학장은 67년 문리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미일리노이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77년 모교에 부임했으며, 기초과학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행정대학원 吳원장은 74년 문리대 정치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에 합격, 내무부·경제연구원 등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83년 모교에 부임했으며 현재 조세협회장, 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금입학관리본부장은 76년 상대 경제학과를 졸업, 버클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모교 교무부학장을 지냈다.

수리과학부 故 閔虎基 명예교수

유가족이 발전기금 3억원 기탁

모교는 지난 11월 28일 5월 별세한 자연대 수리과학부 故 閔虎基 명예교수의 유가족들이 학교발전기금으로 3억원을 기탁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는 閔교수가 생전에 늘 자신의 재산을 모교 발전을 위해 쓰고 싶다고 밝힌 것이 계기가 됐다.

며 남다른 사제의 정을 쌓았다.

종교학과 鄭鎭弘교수
문화관에서 고별강연



국내 대표적인 종교학자인 인문대 종교학과 鄭鎭弘교수(사진)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지난 12월 10일 문화관 국제회의실에서 고별강연을 가졌다. 鄭교수는 『종교에 의문을 던지면 안된다는 종교계의 종교학 비판에 대해 학생들은 침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鄭교수는 1960년 모교 문리대 종교학과를 졸업, 20세기 대표적 종교사가인 엘리야데의 종교문화연구를 한국적 현실에 적용하며 종교학자로서 명성을 쌓아나갔고 1982년 모교에 부임했다. 그동안 덕성여대·명지대 교수, 한국종교학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鎭)



인문대 李泰秀학장



자연대 金夏奭학장



행대원 吳然天원장



입학관리본부 金完鎭본부장

교직원, 바자회 열어 온정 모아 암투병 前동료·결핵환자에 성금

모교 교직원들은 지난 연말 암투병중인 전직 동료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결핵환자돕기 등 불우이웃과 함께 하는 훈훈한 세모를 보냈다.

모교 의대 교수와 간호사, 의무복지가 등 3백50여 명으로 구성된 韓淸후원회(회장 宋仁誠)는 지난 12월 6일 병원내 임상의학연구소에서 불우환자 진료비 마련을 위한 일일차집 및 「서울 재즈 아카데미」 회원들이 연주하는 음악공연을 열었다. 이날 일일차집 수익금과 기부금을 합쳐 4천여 만원이 모아졌다.

1992년 결성된 韓淸후원회는 매년 봄, 가을에 각각 바자회와 일일차집을 열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기금 10억원을 모아 지금까지 저소득층 환자 5백50여 명에게 치료비 6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또 교직원 10여 명은 지난 12월 10일 난소암으로 자택에서 요양중인 김현숙씨를 찾아 2백50여 명의 정성이 담긴 1천2백여 만원을 전달했다.

교무처를 거쳐 약학대학 학장실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7월 난소암 판정을 받았다. 수술

을 받은 김씨는 11월 결국 사표를 제출하고 요양에 들어갔다.

김씨의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교직원들은 입시업무로 어느 때보다 바쁜 상황에서도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섰다. 이에 교내 인터넷 사이트인 정보광장에는 모금을 하자는 내용과 격려의 글 등이 쇄도했다.

교내 가톨릭 교우회 「대건회」는 지난 12월 8일 경기도 광탄 소재 결핵환자 수용시설 「시몬의 집」을 방문, 1백20여 명이 모은 20kg 쌀 7포, 옷 3상자, 성금 3백70만원 등을 전달했다.

대건회는 1984년부터 격년으로 결핵환자돕기 일일차집을 여는 등 20여 년 가까이 사회봉사 활동을 해왔다.

동 정

수 상

▲洪允淑(46년 京城師範入·예술원 회원)=지난 12월 9일 춘강기념사업회가 수여하는 제16회 춘강상(예술부문) 수상자에 선정됨.

▲陸東蒼(50년 師大入·서전 회장)=지난 12월 10일 조선훈에서 열린 서울사대부고동창회 정기총회에서 2002년도 「자랑스런 부고인상」을 수상함.

▲趙東華(54년 藥大卒·월간 출판인)=지난 12월 16일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에서 문화예술인의 친목회인 虛行抄모임이 수여하는 제3회 허행초상을 수상함.

▲劉東洙(56년 齒大卒·모교 치 의학과 명예교수)=오는 1월 20일 서울고총동창회 총회 겸 신년하례회에서 「올해의 자랑스러운 서울인상」을 수상한다.

▲宋壽男(58년 師大卒·단국대 교수)=지난 12월 7일 동송동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에서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가 수여하는 2002 올해의 최우수 예술인상(무용부문)을 수상함.

▲鄭環喜(59년 文理大卒·前한 국일보 논설위원)=지난 12월

6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송건호 전집 출판기념회에서 제1회 송건호 언론상을 수상함.

▲金允植(59년 師大卒·모교 국 어국문학과 명예교수)=지난 11월 29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대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10회 대산문학상(평론부문)을 수상함.

▲趙長熙(60년 工大卒·美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지난 12월 10일 조선훈에서 열린 서울사대부고동창회 정기총회에서 2002년도 「자랑스런 부고인상」을 수상함.

▲尹炳權(61년 工大卒·영종산업 사장)=지난 11월 30일 제39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석탑 산업훈장을 받음.

▲李台燮(62년 工大卒·한국원 자력문화재단 이사장·국제라이온스협회 국제 제1부회장)=지난 12월 3일 한국언론재단에서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관하는 「2002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사회복지·봉사부문)을 수상함.

▲鄭興淑(63년 家政大卒·중앙대 교수·한국복식학회 회장)=지난 12월 23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02 월드 컵대회를 빛낸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음.

▲金聖吉(64년 法大卒·변호사·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지

난 12월 10일 제54회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법무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음.

▲金 旻(64년 音大卒·모교 음 대 학장)=지난 12월 3일 타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파라디스문화재단이 제정한 제10회 우경문화예술상(음악부문)을 수상함.

▲閔丙九(65년 工大卒·모교 의 공학교실 교수)=지난 12월 11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매일경제신문사와 국제산업협력재단이 공동주최한 제5회 산업협력대회에서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음.

▲吳世和(65년 文理大卒·한국화학연구원 응용화학연구부장)=지난 12월 20일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과학재단과 동아시아언스가 주관한 제2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시상식에서 진흥상을 받음.

▲李在祥(65년 法大卒·이화여대 교수·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지난 12월 10일 제54회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법무부로부터 황조 근정훈장을 받음.

▲車正一(65년 法大卒·법무법인 화백 고문변호사)=오는 1월 20일 서울고총동창회 총회 겸 신년하례회에서 「올해의 자랑스러운 서울인상」을 수상한다.

▲李柱晟(65년 大學院卒·성신여대 교수)=지난 11월 13일 독일 Reutlingen대에서 「Friedrich List Medal」을

편집주간석

새해를 맞아 불러보는 우리의 校歌

이병기 작사
현제명 작곡

Moderato

가슴마 다 성스러운 이-념을 품 - 고
단 일해 온 말 울르는 조-출한겨 - 레

이 세상의 사 는진 리 찾 는이길 을
창 조하기 좋 아하 는 명 석한머 리

씩씩하 게 나 아가 는 젊 은오 뉴 들
새 문화 와 새 생명을 이 루어 가 며

이 겨레 와 이 나라 의 크 나 큰 보 람
즐 겨하고 사 랑하는 우리 의 조 국

뛰 어나 는 인 재-들-이 다 모여 들 어
뛰 어나 는 인 재-들-이 다 모여 들 어

더 욱더 욱 움 성하는 서울대 학교
온 누리 에 빛 을내 는 서울대 학교

받음.

▲金芝河(66년 文理大卒·명지대 석좌교수)=지난 11월 29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대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10회 대산문학상(시부문)을 수상함.

▲朴贊龍(67년 師大卒)=지난 12월 4~8일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한국발명진흥회 주관으로 개최된 「2002년 서울 국제발명 전시회」에서 금상과 두 개 부문 은상을 수상함.

▲金準次(63년 音大入·서울 챔버앙상블 대표)=지난 12월 7일 동송동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에서 한국예술평론

가협의회가 수여하는 2002 올해의 최우수예술인상(음악부문)을 수상함.

▲金曉明(68년 文理大卒·모교 철학과 교수)=지난 12월 12일 모교 호암교수회관에서 冽巖 朴鍾鴻선생기념사업회가 제정한 제21회 열암학술상을 수상함.

▲金樂中(68년 藥大卒·모교 약 과 교 수)= 지난 12월 20일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과학재단과 동아시아

언스가 주관한 제2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시상식에서 이 학상을 받음.

▲朴貴媛(72년 醫大卒·모교 의

羊의 심성으로 지혜로운 삶 살고파

李信子(31년생·55년 美大卒·미대동창회장) 갤러리 우덕 고문

1931년 생이니 2003년에는 6번의 양띠 해를 맞게된다. 오랜 교직생활을 끝내고 곧이어 새로운 일터로 온 지도 5년이 넘었으니... 그리고 내 작업과 연관된 갤러리에서 바쁜 생활을 하면서 가끔 나이를 잊을 때가 많다. 일에 치여서 쉬고 있을 때가 많지 않으니 그만큼 행복하다거나 할까!

새로운 세기와 함께 미대 동창회에서 기획한 「서울대학교와 새천년」이라는 전시는 미대 동문들의 단합된 미의 축전으로 화합을 시도한 전시회이기도 했다. 바야흐로 세계화 글로벌 시대의 큰 물결이 온 세계를 바꾸어 놓을 기세로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해야 할 일이 벅두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밀려오고 있다. 내가 일궈나가는 섬유미술의 전개 과정과 조형미술



로서의 특수성에 대한 집필을 마감하는 일. 평생을 해오고 있는 작업을 한자리에 모아 작품집을 발간해야하는 일과 출판전 그리고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전시와 일본에서의 한국의 미 보자기 전 등을 출품해야하는 일이 모두 상반기에 정해진 일정이다. 올해도 작년같이 바빠질 것 같다. 나이와 상관없이 작품활동을 많이 하다보니 나를 보고 모두가 젊은 언니라고들 한다. 남성 후배들은 나를 가리켜 왕언니라고 하니 이 또한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양띠 해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어려운 고비를 근면함과 노력, 성실함으로 잘 넘기고 살아 왔다. 앞으로도 주어진 일에 충실하며 양띠의 심성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을 영위할 것이다. 양띠해 서울대 동문들 모두 건강하시고 모교의 발전을 위해 사랑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희망과 의욕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는 한해가 되시길 빈다.

앞으로 국가대사에 큰 몫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도록 모두 힘을 모읍시다.

만 평

李元馥

2003년, 서울대 대비약의 해로!



과학교실 교수)=지난 12월 16일 연세의료원 알렌관에서 한국과학기술자협회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과학자상(의학의료부문)을 수상함.

▲金鍾勳(73년 工大卒·한미파슨스 대표)=지난 12월 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02년 한·일 월드컵 관련 공로자 훈·포장 전수식에서 서울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관리한 공로로 체육포장을 받음.

▲鄭泰煥(74년 師大卒·문화관광부 차관보)=지난 12월 23일 2002 한·일 월드컵대회 유공자 포상수 여식에서 황조근정훈장을 받음.

▲鄭夢準(75년 商大卒·국회의원·월드컵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지난 11월 27일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음.

▲李南基(76년 大學院卒·SBS 제작본부장)=지난 12월 4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이 수여하는 제2회 성대언론대상(동문언론인부문)을 수상함.

▲高光坤(82년 醫大卒·가천의대 교수)=지난 12월 23일 모교 병원 임상 의학연구소에서 열린 모교 의대 내과동문

회 모임에서 제4회 함춘내과 학술상을 수상함.

▲金大植(85년 自然大卒·모교 물리학부 교수)=지난 12월 3일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수여하는 제6회 젊은 과학자상(물리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됨.

▲姜訓(93년 社會大卒·한국일보 기자)=지난 12월 16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제12회 환경인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함.

▲홍영인(96년 美大卒·조각가)=오는 2월 19일 관훈동 모란 갤러리에서 석남미술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22회 석남미술상을 수상하며, 25일까지 작품전을 갖는다.

▲李重根(5기 AMP·부영 회장)=지난 12월 2일 중앙대 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서민임대주택 보급 및 전국 50여 개 학교에 기숙사와 강당 등 교육 시설을 지어 기증한 공로로 중앙대로부터 제10회 「참 경영인상」을 수상함.

▲張興淳(44기 AMP·터보테크 사장)=지난 12월 24일 롯데호텔에서 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제정한 제1회 올해의 테크노CEO상을 수상함.

▲李敬俊(50기 ACAD·KTF 사장)=지난 12월 16일 연세의료원 알렌관에서 한국과학기술자협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과학자상(정보통신부문)을 수상함.

이동·선임

▲李承宇(63년 工大卒·성신여대 외래교수)=지난 12월 2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9대 원장으로 취임한 후 4~6일 건설회관에서 「제3회 건설 CALS/EC대회」 및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

▲洪允杓(64년 文理大卒·연세대 교수)=지난 12월 17일 열린 국어학회 제29회 전국학술대회 겸 평의회의에서 임기 2년의 회장에 선출됨.

▲尹汝民(64년 商大卒·美Seton Hall대 국제금융 교수)=최근 4년간 유엔 산하기구인 훈련 및 연구담당 기관(UNITAR)에서 학술담당 고문으로 활약한 공로로 Senior Special Fellow에 임명되었으며, 일본 히로시마에 아태지역 UNITAR센터 건립을 책임지게 됨.

▲金滿精(65년 文理大卒·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상임부회장)=지난 12월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케이블위성방송협회(CASBAA) 연차총회에서 동북아담당 부회장에 선임됨.

▲安三煥(66년 文理大卒·모교 독어독문학과 교수)=지난 12월 14일 성균관대 6백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한국독어독문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李顯樂(66년 商大卒·前 동아일보 주필)=최근 세종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좌교수에 위촉됨.

인하대 정보통신대학원 李一恒원장

세계 펠로우 3개 부문에 추대



인하대 정보통신대학원 李一恒(70년 工大卒)원장(사진)이 지난 10월 25일과 11월 17일 미국 광학회(OSA)와 미국 전기전자공학회(IEEE)에서 각각 최고의 명예인 펠로우(Fellow)에 추대됐다.

지난 1996년 영국 왕립 전기공학회(IEE)의 펠로우에 추대된 바 있는 李동문은 이번 추대로 세계 펠로우 3관에 오른 셈이다.

「펠로우」는 가장 탁월한 세계 정상급의 학술업적과 공헌 및 지도적 학술지위를 성취한 극히 소수의 석학에게만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이다.

정보통신과 반도체의 기초 과학과 공학에서 세계 선도적 개척과 학술공헌을 인정받은

李동문은 모교 전기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예일대 응용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프린스턴대, AT&T를 거치며 3백50여 편의 국제논문과 국제 기초강연, 초청강연을 발표했으며, 광범위한 인용을 받고 있다.

이번 펠로우 시상식은 오는 3월 25일 미국 애틀랜타시 Georgia World Congress Center에서 거행된다. (變)

▲李鍾受(71년 文理大卒·한성대 대학원장)=지난 12월 17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7대 회장에 취임함.

▲趙錫俊(77년 自然大卒·미디어전략연구소장)=최근 세계적인 PR회사 플래시먼힐러드 코리아 상임고문에 위촉됨.

▲鄭俊基(77년 醫大卒·모교 핵의학교실 교수)=지난 11월 27일 창립된 한국PET(양전자단층촬영)협의회 초대 회장에 선임됨.

▲全相敦(79년 農大卒·前스포츠투데이 편집국장)=지난 12월 3일 스포츠 컨설팅과 마케팅 전문회사인 (주)더스포츠 사장으로 취임함.

▲柳金祿(80년 行大院卒·군산대 교수)=지난 11월 30일 고려대에서 열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9대 회장에 취임함.

▲高永會(81년 工大卒·성장특허법률사무소 대표)=지난 11월 22일 열린 대한기술사협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됨.

▲姜讀秀(87년 自然大卒·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지난 12월 5일 한국환경기자클럽 총회

新刊

오해와 건강
—黃俊植 著



한국건강 가족 실천운동본부 명예 총재인 黃俊植(52년 醫大卒·우리의원 원장)동문이 오해, 증오심, 용서 등을 다스릴 수 있는 정신건강의 심리철학서를 내놓았다. 黃동문은 이 책에서 오해는 대개 감각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많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으로 자기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정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나의화사·값13,000원)

붉은 악마의 원조
치우천황(蚩尤天皇)
—高潛煥 著



악마들의 응원기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치우천황의 실체를 역사적 기록을 통해 상세하게 정리했다. 高동문은 『치우천황이 4,600여 년 전 배달국의 14대 천황으로, 백전백승의 신화로, 동양의 군신으로 추앙받은 역사적 인물』이라고 말한다.

붉은 악마 이야기, 치우천황의 일대기, 중국에서 본 치우천황, 월드컵 이후 치우천황의 부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메트로신문사·값10,000원)

상생상멸(相生相滅)
—許信行 著



경제학자 출신으로 농림수산부장관을 역임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許信行(66년 農大卒)사장이 회갑을 맞아 과거 40년간에 걸친 연구과정에서 체득한 상생상멸의 원리를 책으로 펴냈다.

이 책은 동양사상인 음양설과 서양의 변증법 이론은 물론, 電氣에 있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작용 및 소립자 세계의 쌍생성과 쌍소멸 현상까지를 총망라하여 하나의 보편적 원리로서 일반화시키고 있다. (범우사·값8,000원)

디지털로 여는 e-편한 세상
—諸葛政雄 著



대림 I&S 諸葛政雄(72년 商大卒·한국 M&A 협회장)부회장이 그동안 신문 등 각종 매체에 기고했던 자신의 IT관련 칼럼을

한데 모아 단행본으로 엮어 출간했다.

諸葛부회장은 이 책에서 디지털이 세상에 몰고 온 변화와 디지털로 인해 앞으로 나타날 변화상을 설명하면서 디지털이 개인의 삶과 기업의 경영에 미친 영향과 그것이 궁극적으로 만들어낼 세상이 다름 아닌 더욱 편리한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열매출판사·값8,000원) (정리=安興燮기자)

◆서울총동창회보를 보기 원하십니까?
<http://www.snua.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에서 제15대 회장에 선출됨.

▲吳世賢(87년 工大卒·인젠 컨설팅본부장)=최근 정보보호전문업체들의 본부장 모임인 정보보호전문업체실무협의회 회장에 선출됨.

▲薛均泰(90년 行大院卒·前국민신용카드 수석부사장)=지난 12월 10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초대 이사장에 임명됨.

▲姜武燮(52기 ACAD·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지난 12월 13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제30차 연차학술대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李萬萬(1기 APICP·서울고검 사무국장)=지난 12월 11일 법무부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임명됨.

행사·출간

▲白樂皓(52년 藝術大卒·모교 명예교수·청운대 초빙교수)=최근 스키를 타는 소나타, 랑게의 꽃노래, 슈베르트의 즉흥곡 등 14개 작곡이 수

록된 피아노 독주 음반을 출판함.

▲李吉女(57년 醫大卒·경원대 총장·가천길재단 회장·가천문화재단 이사장·本會 副會長)=지난 12월 6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여성재단 창립 3주년 기념식에서 소외된 여성의 건강지원사업 등에 쓰일 「씨앗기금(가천모성보호기금)」 1천10만원을 기탁함. 또 16일 전북 전주코아리 베라호텔에서 전라교 황석연 교장 등 3명에게 제6회 전북교육대상을 시상함.

▲崔喜準(59년 法大卒·한국문예진흥원 감사·가수)=지난 12월 6일 충북 영동 황간전주교회에서 수재민 1천여 명을 초청, 그동안의 아픔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콘서트를 가짐.

▲田秀一(62년 法大卒·광운대 교수·한국부패학회 회장)=지난 12월 27일 광운대 참빛관 국제회의실에서 「김대중 정부의 반부패 정책 평가와 차기 정

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제12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함.

▲李玉姬(64년 音大卒·서울튜터앙상블 음악감독)=지난 12월 15일 예술의전당 리스아틀리에서 바이올리니스트

皮虎英(83년 音大卒)동문, 비올리니스트 金到妍(92년 音大卒)동문 등과 함께 서울튜터앙상블 송년음악회를 가짐.

▲元佑鉉(65년 法大卒·고려대 교수·한국언론법학회 회장)=지난 12월 16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2회 한국언론법학회 정기총회 및 「온라인 프라이버시의 보호 동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함.

▲全奉求(68년 音大卒·경원대 교수)=지난 12월 7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가곡 「나그네」 「진달래」 「산유화」 등으로 독창회를 가짐.

▲張萬基(68년 經大院卒·인간

개발연구원장)=지난 12월 26일 롯데호텔 에 메탈드롬에서 모교 鄭雲燦총장을 초청, 「한국의 미래와 서울대학교의 새 비전」을 주제로 제1280회 인간개발경영자연연구회를 개최함.

▲金順杜(69년 獸醫大卒·한국야쿠르트 사장)=지난 12월 26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성금 1억원을 전달함.

▲李啓卓(72년 行大院卒·한국지역복지정책연구회 회장·경희대 객원교수)=지난 11월 9일 「국가재해보상 대책방안과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함.

▲金基道(72년 新大院入·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지난 12월 9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02년 방송기자클럽

보도상 시상식을 가짐.

▲李永泰(74년 行大院卒·대구미래대학교 교수·한국법학회 회장)=지난 12월 20일 부산신라대 세미나실에서 「IT산업과 법」이라는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가짐.

▲李秀美(81년 音大入·소프라노)=지난 12월 28~29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2002 조수미 마이 스토리 - 겨울 밤의 고백」을 개최, 피아노 연주 솜씨를 선보임.

▲崔鍾根(88년 工大卒·모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지난 12월 6일 심해에서 油井의 압력을 효율적으로 조절 관리하는 기술인 「수중양수 시추 시스템의 유정제어법」을 해외 연구진과 공동 개발, 최근 미국 특허를 받았다고 밝힘.

(정리=安興燮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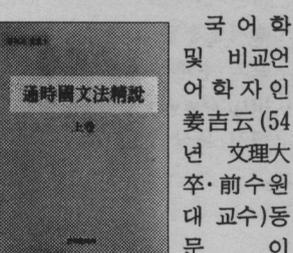
新刊

김봉환변호사 회고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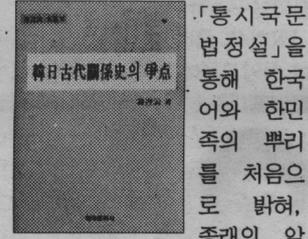


한양합동법률사무소 金鳳煥(50년 法大卒)변호사가 4선 국회의원 시절과 50년 변호사 생활의 편린들을 한 권의 책에 담았다. 총 5부로 나눠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도 모교 법대를 입학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야기부터 온갖 지혜와 정열을 바친 6~9대 국회의원 활동상과 정계 은퇴후 안국화재, 보험공사 등에서 고문변호사로 바쁜 나날을 보낸 내용 등을 소개하고 있다. (보고사판·비매품)

通時國文法精說(上·下)



姜吉云(54년 文理大卒·前수원대 교수)동문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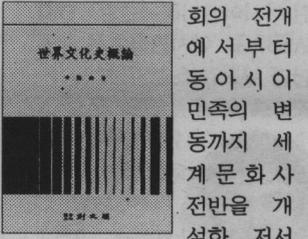


「통시국문법정설」을 통해 한국어와 한민족의 뿌리를 처음으로 밝혀, 종래의 알타이어족설을 부인하고 한국어는 길약어와 동계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까지 이조어에 의해 해독되어온 향가 해독을 신리어로 재구하여 비로소 향가해독다운 해독을 하고 있으며, 훈민정음의 음운체계에 대한 종래의 잘못된 인식 즉 이중모음설 및 어두자음군설을 부인하고 지금과 큰 차이가 없는 단모음 및 어두단자음임을 비교언어학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일고대관계사의 쟁점」은 한·일의 역사바로잡기에 새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왜국은 가락국의 분국이었고 가락국이 망한 뒤에는 백제의 분국이였다는 사실을 저술하고 있다. 임나일본부, 광개토태왕비문, 이소노가미시궁의 철지도 등 한·일 고대관계사의 쟁점을 비교언어학적 방법을 결들여 명쾌하게 해결했다. (한국문화사판·통시국문법정설 값 각권 30,000원, 한·일 고대관계사의 쟁점 값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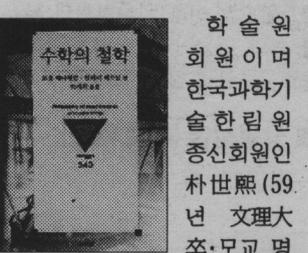
世界文化史概論

경기대 교수를 역임한 申翰雨(55년 師大卒)동문이 고대사



회의 전개에서부터 동아시아 민족의 변동까지 세계 문화사 전반을 개설한 저서를 펴냈다. 이 책은 동·서양사에 대해 시대별로 서술돼 있으며, 인도의 고전문명을 비롯해 아시아와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중국과 그리스의 고전문명을 기술하고 근대유럽과 현대사회까지 세계문화사를 풀어냈다. (창문각판·값12,000원)

수학의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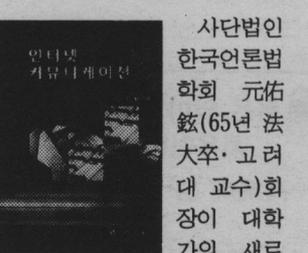


학술원 회원이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인 朴世熙(59년 文理大卒·모교 명예교수·本報 論說委員)동문이 포을 베나세랴 교수와 힐러리 퍼드담 교수가 엮은 20세기 「수학기초론」의 가장 중요한 성과를 집대성한 이론서를 번역 출간했다.

「논리주의」, 「직관주의」, 「형식주의」 등 수학의 기초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이론적 움직임(러셀, 브라우워, 힐버트 등), 수학의 본성과 대상 그리고 진리의 문제를 다룬 철학자들의 견해(커리, 퍼드담, 카르

F, 피인, 램펠, 에이어 등), 그리고 현대의 유명한 수학자들의 이론들(괴델, 푸앵카레, 프레게) 등 현대 수학의 이론적 동향과 쟁점들을 이 책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총 1천5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수리철학, 논리학, 현대수학사상 등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아카넷판·값4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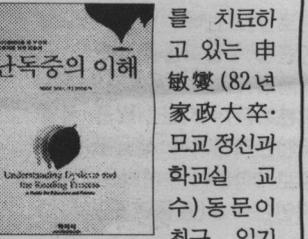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 元佑鉉(65년 法大卒·고려대 교수)회장이 대학가의 새로운 교과목으로 등장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소개하려고 각 전문분야의 저자들과 함께 공동 집필했다. 국내외에서 활발히 전개되어 온 뉴미디어 기술발전이 따른 정보매체와 정보사회를 조명하고 사회 각 분야에 침투되어 우리의 일상생활과 의식에 자리잡은 인터넷의 영역을 소개하고 있다. (박영사판·값20,000원)

난독증의 이해

모교 어린이병원에서 소아·청소년 심리상담 및 학습장애



를 치료하고 있는 申敏燮(82년 家政大卒·모교 정신과학교실 교수)동문이 최근 읽기 장애아를 둔 부모와 치료자를 위한 지침서를 번역 출간했다. 이 책은 하버드 의대 교수를 역임한 매리온 샌더스 박사가 펴낸 책으로, 難讀症의 특성 및 증상, 치료방법 등을 기술해 놓았다. (학지사판·값13,000원)

公演

洪惠道 피아노독주회



독일에서 활동하던 피아니스트 洪惠道(85년 音大卒·예원예고 감사)동문이 귀국 독주회를 갖는다. 이날 공연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0번 E장조 op. 109」,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BWV.988」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재미서울대동창회보 유료광고 안내

재미서울대동창회보는 현재 매월 5,600부가 인쇄되어 북미주(미국, 캐나다)와 母國에도 매월 배포되고 있습니다. 재미동창회보는 우리 동문들이나 관심있는 업체들에게 유료광고를 접수, 게재합니다. 광고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흑백광고

- 전면: 한번에 \$500, 일년에 \$5,000
- 1/2면: 한번에 \$300, 일년에 \$3,000
- 1/4면: 한번에 \$175, 일년에 \$1,750
- 1/8면: 한번에 \$100, 일년에 \$1,000

◆ 직종별 분류광고

한번에 4줄당 \$25, 추가 한줄에 \$5, 일년에 \$300+\$

◆ 칼리광고

뒤표지 전면에 게재할 수 있으며 한번에 \$1,000

◆ 전문광고문안이나 내용의 제작에 따른 추가비용은 광고주와 협의하여 정함

◆ 광고문의처: 재미서울대동창회 회보편집실 전화 847-981-1464, 팩스 847-981-1465

재미서울대동창회보 광고위원장 강영국(수익대 67년입)

재미 동창회 지부회장 / 동창회보 지국장 명단

지부	회장	총무 / 동창회보 지국장
뉴욕	김종을 B:914-714-0587 F:914-686-0186	한창섭 B:212-594-0493 H:201-848-8665
남가주	임낙균 B:213-365-9669 H:310-530-4353	백옥자 B:213-999-5911 F:213-365-1686
샌프란시스코	정조용 B:408-496-6838 H:408-972-4026	임승래 B:415-777-1133 H:510-537-5369
시카고	장기남 F:312-357-1002 H:630-321-1943	이승자 B:773-553-1930 H:847-564-5948
뉴잉글랜드	이재신 B:508-577-9424 H:508-923-0031	변종원 H:508-366-2743 B:508-389-1760<ext.3038>
조지아	김재철 B:770-944-2775 H:770-579-5615	문중현 B:770-409-8844 H:770-449-0301
미네소타	김태환 B:612-863-4060	남세현 B:651-733-7287 H:651-768-8939
워싱턴 DC	이영목 B:703-578-6806 H:703-748-0269	유홍렬 B:202-283-5247 H:703-204-2798
워싱턴주	이혜숙 B:253-927-8668 F:253-627-2542	고희선 H:425-787-0292
휴스턴	김영창 B:713-431-6071 H:713-859-8182	이재용 E-mail:Paul.j.lee@earthlink.net
달라스	이병규 B:817-251-8789 H:972-304-0748	강성호 B:972-570-0234 H:214-496-9393
아리조나	윤성수 H:480-283-9806 yunss@cox.net	최윤근 B:480-967-9461 H:602-502-9988
하와이	정재훈 B:808-951-7242 H:808-926-6089	정광수 B:808-956-7653 H:808-395-1678
유타	한성양 B:801-272-7444 H:801-485-2065	황선중 B:801-582-1695 H:801-582-1695
오레곤	정성국 B:503-226-6467 H:503-524-7741	라재관 B:503-696-3422 H:503-645-5550
필라델피아	김용식 Fax:610-664-3447 C:215-771-2957	신영근 F:610-917-7005 H:610-519-9695
히트랜드	이상문 B:402-472-3915 H:402-483-0221	장명우 F:402-472-5290
중부펜실베이니아	이수경 B:814-833-1587 H:814-234-5529	이 옥 B:814-862-0494
캐롤라이나	김기현 B:919-560-6451 H:919-560-5012	Fax : 919-560-5012
캐나다/온타리오	이의병 B:416-385-0107 H:416-250-6908	노정희 B:905-886-4152
캐나다/밴쿠버	유동성 H:604-435-8937	김형승 B:604-415-9011 H:604-945-5634
캐나다/에드먼튼	정기진 B:780-437-7669	김명호
로키마운틴즈	김봉전 C:303-229-3332 F:303-623-2910	
오하이오	최인갑 F:614-447-3844 H:614-436-5780	

동문 사업제 안내

장관

Pusan Pipe America
이병준(상 55인)
(562)692-0600
Sant Fe Springs, CA

골프클럽

New York Golf Center
이정규(총 60인)
(212)564-2255
New York, NY

공인회계사

Young Sik Oh Cpa
오영식(법 72인)
(201)569-1177
Englewood Cliff, NJ

이범선(상 48인)
이경림(상 64인)
(212)768-9144
New York, NY

Young Tail Choi EA
최영태(문 67인)
(212)695-0206
New York, NY

Delloitte & Touche LLP
김낙구(상 67인)
(213)688-5585
Los Angeles, CA

Wesley Y Chung
정일화(상 55인)
(212)736-6590
New York, NY

이규선(상 68인)
CPA, CFA
(703)642-2900
Annandale, VA

공익사업

IBECONS INT L
김제철(공대 58인)
(212)460-2815
New York, NY

교회

진리교회
김태철목사(공대 76인)
(718)225-1000
New Hyde Park, NY
(L.I.E. Exit 33 South)

국제금융

Sit/Kim International
Investment Associate
김병수(상 55인)
(212)750-7215
New York, NY

PTC International
이태영(법대 60인)
(410)962-8409
Baltimore, MD

금고

Alco Lock & Safe
정인식(상 58인)
(212)867-3377
New York, NY

금융/용지

무역

Nina America Inc.
강석권(법 61인)
(212)683-6462
New York, NY

EAC Trading Inc.
윤경옥(약 50인)
(516)466-5678
Great Neck, NY

Oregon Hide Co.
조형원(수 55인)
(503)620-1001
Lake Oswego, OR

G. A. Marketing Company
지인수(상 59인)
(310)216-7929
Los Angeles, CA

법포시

최형우 변호사
최형우(법대 69인)
(718)463-3500
Flushing, NY

한국서적 전문 서울서점
권혁진(문 60인) 장임
(773)463 7756

김용화 변호사
김용화(법대 69인)
(212)869-7000
New York, NY

병원 내과

Joon J Bang, MD
방준재(의 63인)
(718)768-1264
Brooklyn, NY

병원 수의사(동물병원)

Charles H. Sung, DVM DVM
성홍환(수의 75인)
(330)534-8383
Hubbard, OH

병원 신기과

Rim and Sul, MDPC
임춘수(의 57인)
(313)882-2922
Grosse Pointe,

병원 신장내과

Kenneth Song
송관호(의 58인)
(212)423-4817
New York, NY

병원 위장내과

Chang Ho Suk
석창호(의 66인)
(718)461-6212
Flushing, NY

병원 치과

Sung Bo Hong, DMD
홍성보(치 63인)
(201)871-0007
Tenafly, NJ

보석

Gold Plus
서재숙(음 65인)
(212)354-8988
New York, NY

보험

KOI 종합보험
김성희(상 67인)
(213)387-5252
Los Angeles, CA

한미종합보험
박일순(상 59인)
(718)458-3551
Jackson Hts, NY

한양종합보험
한영우(공 59인)
(718)463-9100
Flushing, NY

부동산

Cosmo Realty
이재택(법 60인)
(201)944-4949
Palisades Park, NJ

C-21 Infinity
이재원(법 60인)
(201)944-5353
Palisades Park, NJ

REMAX(최망부동산)
최 호(문 61인)
(201)461-3525
Palisades Park, NJ

Gateway Title Co.
박인수(총 64인)
(213)388-3333
Los Angeles, CA

ERA Premier Properties
변만식(사대 49인)
(703)750-0000
Annandale, VA

로얄 부동산
엄무광(문 65인)
(800)474-0200
SKOKIE, IL

Pacific Hotel Motel
Specialists, Inc.
(HMBA American Hotel Broker)
김동호(총대 58인)
(206)972-3675
Everett, WA

설계

Booming World Design & Engineering
김상익(공 49인)
(310)539-7760
Court Lomita, CA

Queens Plumbing Supply
김승호(공대 71인)
(718)392-0111
L.I.C. NY

업적

Care Tex Industries, Inc.
김봉창(약 50인)
(562)602-6567
South Gate, CA

인수합병

S. Y. Shipping
김종표(법대 58인)
(592)467-5455
Artesia, CA

용지

Equitable Financia Service
원영배(미 74인)
(213)368-5705
Los Angeles, CA

Hanin Federal Credit Union
이영일(문리 57인)
(213)368-9000
Los Angeles, CA

의료기관

MASH
심상근(상 54인)
(213)487-5695
Los Angeles, CA

의류

Jeffrey Allen Corp.
이기영(총 70인)
(201)863-5160
Secacus, NJ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광(상 61인)
(201)440-8500
Moonachie, NJ

인터넷사업

KS E biz
장세완(총 69인)
(201)722-4796
River Vale, NJ

선물점

MODERN GIFTS &
DUNDEE SHISEIDO
지명식(사대 65년 입)
Tel: 847-559-1005
Northbrook, IL
UPS, Mail Order 가능

인터넷사업

Aladdin USA
이형렬(문 79인)
(323)692-9888
LA, CA

지동지 부동

Knox-Seeman Whse, Inc.
서동영(사대 60인)
(310)327-1006
Gardena, CA

잡지

Amkor Anam
정홍택(상 61인)
(214)580-1879
Philadelphia, PA

주류상

Smithtown Wines & Spirits
이지원(문리 73인)
(613)265-1121
Smithtown, NY

학원

Kumon Educational Institute
김형덕(상 57인)
(718)358-0538
Flushing, NY

민의원

Joong-Ang Medical Center
이수호(보건의료원 71인)
(718)353-6207
Flushing, NY

브롱스 약국/시호 한의원
박경룡(약대 63인)
(718)733-1399
Bronx, NY

화장품

Revicci(레비치)
신정택(약대 52인·화장품, 약품개발)
(973)994-1421
Short Hill, NJ

화선

Flowers On Lexington
박상원(음 65인)
(800)2525-way
New York, NY

Seward Florist
김수향(간호 72인)
(626)287-6161
San Gabriel, CA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명단
01	남가주	232 <p>김현겸(치대 56입) 전동희(공대 58입) 김성호(법대 64입) 정민영(의대 51입) 고영련(사범대 57입) 김용일(보건대학원 65입) 전병희(약대 55입) 허영진(문리대 62입) 최왕욱(공대 69입) 이채진(문리대 55입) 박진득(농대 67입) 송정자(의대 73입) 윤용길(공대 55입) 최재윤(문리대 54입) 김태윤(법대 53입, 전년도 납입, 추가납입) 이창신(법대 57입) 김선기(법대 59입) 이상욱(치대 66입) 민희숙(간호대 74입) 정민영(약대 66입) 김창덕(약대 53입) 최영순(간호대 69입) 최희봉(상대 56입) 김진호(약대 64입) 김동훈(의대 71입) 김선주(사범대 49입) 박정모(문리대 66입) 정종훈(치대 74입) 전희택(의대 60입) 박남수(문리대 74입) 김재무(상대 58입) 최수명(문리대 59입) 장동호(공대 53입) 남홍범(공대 59입) 김정화(미대 63입) 김성환(의대 71입) 김광은(음대 56입) 주 훈(음대 ?) 김준일(공대 62입) 김종표(법대 58입) 신정식(상대 64입) 박희규(수의대 55입) 김현직(농대 58입) 박제인(약대 60입) 이정규(농대 69입) 이송희(간호대 47입) 김두휘(문리대 58입) 최종권(문리대 59입) 김영배(미대 61입) 이기재(사범대 52입) 이종희(공대 53입) 박재택(상대 52입) 강봉창(약대 50입) 선우동훈(문리대 54입) 권처균(공대 51입) 김순길(법대 ?) 서재섭(상대 53입) 신광재(공대 73입) 김태호(상대 57입) 이승(공대 59입) 임낙균(약대 64입) 민경택(의대 61입) 호기원(치대 70입) 최순자(약대 53입) 박영근(상대 56입) 곽철(법대 64입) 최준호(치대 58입) 신정현(미대 59년입) 서관석(미대 67년입) 이양구(상대 57입) 이홍표(의대 60입) 방윤자(문리대 59입) 임재영(공대 59입) 박익순(\$50 수의대 74입) 김창섭(\$100 약대 44년입) 최예섭(치대 45년입) 강항운(농대 52년입) 김옥권(미대 76년입) 배효식(문리대 52년입) 이명선(상대 58입) 오인근(약대 59입) 유진형(상대 48입) 이범식(공대 61입) 최명룡(음대 ?) 김재신(음대 60입) 이동성(의대 53입) 박태호(치대 66입) 탁혜숙(음대 67입) 이효경(치대 63입) 홍훈정(음대 70입) 이병희(수의대 75입) 노봉식(음대 ?) 오형원(의대 53입) 송길장(사범대 58입) 이정욱(공대 52입) 강배영(상대 54입) 황봉찬(문리대 48입) 김창무(음대 53입) 김은희(치대 50입) 고재천(공대 57입) 김 동의(법대 57입) 김광자(약대 62입) 조만연(상대 58입) 김혜인(가정대 69입) 김종원(문리대 69입) 이호일(의대 60입) 강영만(상대 72입) 서동영(사범대 60입) 이동휘(공대 63입) 김태웅(의대 63입) 배재호(공대 58입) 나민주(음대 65입) 정현진(간호대 72입) 황석우(의대 53입) 윤병인(의대 64입) 박범순(가정대 70입) 윤진수(의대 57입) 노병일(경성법학전문 41입) 김생철(법대 54입) 김성복(공대 59입) 임선영(음대 57입) 안승호(공대 71입) 이완규(공대 54입) 김일선(사범대 67입) 정기정(상대 69입) 권대원(대학원 59입) 윤방현(사범대 53입) 최재현(수의대 66입) 이상학(공대 59입) 김학천(치대 71입) 노명호(공대 61입) 고용규(의대 67입) 김윤결(자연대 77입) 임용오(의대 57입) 탁의용(상대 58입) 김삼익(공대 46입) 조정시(공대 60입) 박명근(상대 63입) 정황(공대 64입) 김원탁(공대 65입) 신동국(수의대 76입) 김정협(치대 59입) 도영미(사범대 52입) 김병자(치대 57입) 하기환(공대 66입) 이경호(공대 67입) 심상은(상대 54입) 이건택(경영대 72입) 서경만(의대 51입) 윤경민(법대 55입) 박취서(약대 60입) 이승재(상대 67입) 한원민(의대 59입) 홍성애(의대 60입) 신한경(약대 56입) 김정에(간호대 69입) 김원경(약대 59입) 장동석(문리대 66입) 이해란(미술대 72입) 장진성(약대 66입) 양은석(음대 70입) 김상열(공대 57입) 김선주(사범대 50입) 신우식(치대 ?) 신무수(치대 63입) 백만일(공대 64입) 강신호(사범대 49입) 김세담(법대 55입) 정동구(공대 57입) 고석규(치대 65입) 신우천(치대 64입) 양은혁(상대 56입) 정복근(\$100, 사범대 69입) 차민영(의대 78입) 김동호(치대 ?) 이강훈(치대 65입) 손학식(공대 61입) 김동산(법대 59입) 정경화(의대 70입) 박계영(공대 57입) 김은종(상대 59입) 이정재(수의대 45입) 김건진(문리대 62입) 오재인(치대 33입) 최호준(의대 77입) 권길상(음대 46입) 이호준(공대 55입) 오길평(치대 61입) 이현세(법대 68입) 김선명(공대 75입) 김희재(사범대 66입) 최복영(사범대 56입) 이성호(의대 72입) 김영(수의대 63입) 조성윤(법대 46입) 홍진(간호대 55입) 김용채(문리대 61입) 신정자(사범대 63입) 박인창(농대 65입) 김희봉(공대 72입) 노상규(공대 60입) 송두빈(사범대 57입) 김영기(의대 54입) 김군빈(법대 56입) 이난경(음대 66입) 남정우(치대 48입) 이건설(치대 54입) 우원섭(치대 65입) 김일영(의대 65입) 한종철(치대 62입) 강동순(법대 59입) 한홍택(공대 60입) 신상화(공대 58입) 박임하(치대 56입) 박혜옥(간호대 69입) 이근원(공대 67입) 임문빈(상대 58입) 조종웅(공대 45입) 엄세욱(간호대 69입) 권기상(경영대학원 72입) 육중훈(상대 67입) 강경수(법대 58입) 정원훈(상대 38입) 임택선(공대 52입) 김석구(공대 66입) 최승규(간호대 65입) 문덕수(공대 73입) 최승륜(상대 53입) 서치원(공대 69입) 지인수(상대 59입) 이환진(상대 68입) 임택선(공대 52입)</p>
02		1 김항자(약대 61입)
03	새프린시스코	4 박세록(의대 57입) 황동하(의대 65입) 정조웅(공대 60입) 홍경삼(문리대 61입)
04	뉴욕 (NY, NJ, PA)입부CT)	203 <p>엄종열(미대 65입) 송기인(의대 60입) 고강희(약대 56입) 송병문(공대 66입) 윤병우(문리대 67입) 강충무(\$100, 사범대 65입) 김중현(법대 61입) 김창수(약대 64입) 이영재(상대 58입) 조달훈(사범대 66입) 최태식(\$50, 의대 74입) 이진구(농대 60입) 허병렬(사범대 42입) 이준행(공대 47입) 최일단(미대 55입) 박승규(의대 55입) 김순자(\$50, 약대 63입) 김영만(상대 59입) 윤인숙(간호대 63입) 현영수(음대 61입) 임건식(음대 54입) 최일단(미대 55입) 손주현(의대 61입) 석창호(의대 66입) 김문경(약대 65입) 김재민(약대 57입) 조희재(음대 58입) 강 효(음대 63입) 손영철(공대 68입) 이태상(문리대 55입) 유숙현(간호대 61입) 강영선(공대 50입) 홍선경(의대 58입) 한용진(미대 56입) 문미애(미대 56입) 정연희(미대 64입) 변영석(의대 65입) 신남철(인문대 81입) 김현기(공대 62입) 민준기(\$50 공대 59입) 배상규(약대 61입) 김학수(상대 65입) 장기선(약대 61입) 윤영섭(의대 63입) 최영혜(간호대 64입) 김태호(약대 63입) 서종웅(약대 70입) 조상근(법대 69입) 박대규(법대?) 윤준식(법대 58입) 유택상(문리대 58입) 박경원(미대 66입) 박성일(상대 58입) 박진수(의대 58입) 강우정(음대 62입) 조시래(문리대 57입) 고석원(문리대 50입) 최승웅(의대 61입) 이명해(의대 79입) 김영덕(공대 53입) 이봉상(약대 59입) 연봉원(문리대 61입) 최정에(간호대 66입) 김관준(약대 46입) 최재홍(의대 67입) 팽선섭(공대 61입) 김익성(상대 52년입) 윤봉균(사범대 54년입) 이영숙(간호대 56년입) 최형무(법대 69년입) 이유찬(의대 58년입) 윤여민(상대 60년입) 김규화(상대 63년입) 김훈일(공대 60년입) 윤갑석(공대 53년입) 권영대(공대 69입) 송관호(의대 58입) 배명애(간호대 45입) 윤현남(공대 63입) 노경희(간호대 66입) 문길용(음대 45입) 소무영(상대 65입) 유재은(미대 71입) 반영철(\$100 약대 58입) 차국만(상대 56입) 김현중(공대 63입) 조대영(공대 61입) 정진우(의대 72입) 서병선(음대 65입) 송용길(신문대학원 69입) 김원복(문리대 50입) 손갑수(약대 59입) 임문수(공대 72입) 백윤자(간호대 64입) 김양호(의대 57입) 이기준(\$100 문리대 66입) 선우지민(약대 54입) 조문혜(약대 59입) 김학자(간호대 63입) 임석태(법대 48입) 이정애(미술대 57입) 이영연(상대 58입) 성백문(공대 61입) 선종철(의대 57입) 이대영(문리대 64입) 최석진(사범대 54입) 전재우(공대 75입) 이종성(의대 58입) 정택수(문리대 45입) 김양수(미술대 69입) 김석식(의대 56입) 박상원(음대 69입) 강상진(의대 59입) 남상래(간호대 65입) 백영복(간호대 69입) 이필영(사범대 54입) 장미숙(치대 85입) 황문하(수의과대 76입) 박건호(의대 57입) 한승원(미술대 60입) 전병삼(약대 54입) 김용재(의대 60입) 오정환(의대 55입) 이재원(법대 60입) 홍명희(간호대 61입) 이연찬(의대 52입) 허재순(사범대 54입) 김정빈(약대 54입) 조정현(보건대학원 64입) 현건설(공대 55입) 이경태(공대 63입) 조경호(의대 66입) 리준국(공대 47입) 조성무(공대 56입) 김현희(간호대 63입) 이승호(상대 63입) 이경림(상대 64입) 조충열(의대 60입) 한호(상대 66입) 조숙자(간호대 59입) 남일우(법대 57입) 이명희(의대 60입) 최창식(의대 61입) 변광록(간호대 72입) 김광호(의대 72입) 정일화(상대 55입) 김영용(치대 60입) 조규웅(의대 66입) 이정은(의대 58입) 박순영(법대 56입) 김영일(의대 69입) 최수용(상대 55입) 오준영(상대 49입) 최한용(농대 58입) 이홍제(의대 68입) 전성진(사범대 58입) 탁명양(약대 56입) 서상철(의대 56입) 최구진(약대 54입) 송재한(약대 61입) 윤정욱(약대 50입) 김우영(상대 60입) 송영순(사범대 60입) 이기영(농대 70입) 장동만(문리대 63입) 나연수(사범대 53입) 유희근(법대 71입) 김충정(상대 64입) 김주은(공대 71입) 강재현(상대 70입) 김한중(의대 56입) 이재택(법대 60입) 권후열(상대 73입) 최한선(공대 56입) 이충호(의대 63입) 윤순철(사범대 44입) 김상각(상대 57입) 이정자(간호대 63입) 강석권(법대 61입) 이견미(문리대 60입) 변찬의(상대 63입) 나찬국(의대 64입) 김진승(문리대 53입) 성기로(약대 57입) 심정섭(의대 53입) 김기훈(상대 52입) 김희국(약대 54입) 최휘웅(문리대 64입) 김병술(약대 52입) 조종수(공대 64입) 이국진(사대 51입) 전민욱(간호대 66입) 이정순(법대 53입) 최영태(문리대 67입) 노용면(의대 55입) 한용호(법대 52입) 이문휘(문리대 54입) 김세환(공대 65입) 박창익(농대 64입) 전희근(의대 54입) 이덕인(미술대 56입) 허선행(의대 58입) 김영두(농대 61입)</p>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지역번호	지부명	명단
05	시카고(IL, IN, WI, MO, MI, OH)	137 주명순(간호대 64입) 민영기(\$120, 공대 65입) 이지연(의대 68입) 정광훈(공대 64입) 정경근(농대 59입) 신석균(문리대 54입) 박창만(공대 56입) 문조훈(약대 62입) 광영로(수의대 76입) 임영신(의대 52입) 정승규(공대 60입) 이인선(미대 72입) 이법세(의대 57입) 최희수(\$100, 문리대 67입) 김현규(의대 47입) 정남재(사범대 56입) 조 철(공대 49입) 홍규식(문리대 64입) 이윤모(농대 57입) 제현수(사대 65입) 이법구(공대 59입) 이소희(의대 61입) 이수인(\$120 의대 56입) 조형원(약대 54입) 김정일(의대 57입) 육태식(의대 61입) 김택수(의대 57입) 장 철(의대 71입) 남상용(공대 52입) 강태수(의대 65입) 최호승(작년도 선납) 한재은(의대 59년입) 지명식(사범대 65년입) 구자원(법대 55년입) 이영모(의대 59년입) 이태석(의대 67년입) 이한중(의대 61년입) 장병호(의대 66년입) 한경희(간호대 67입) 이건정(공대 73입) 이규달(의대 68입) 이종일(의대 71입) 윤호윤(의대 63입) 이한홍(의대 68입) 임현재(의대 59입) 황치룡(문리대 65입) 박영준(문리대 67입) 최순분(간호대 56입) 구행서(공대 69입) 임무광(문리대 61입) 오상현(의대 71입) 김정근(의대 61입) 한성수(의대 56입) 최인갑(작년도 선납, 공대 61입) 김영호(의대 77입) 장재찬(의대 59입) 장세근(의대 57입) 박정일(의대 61입) 조중행(의대 63입) 박숙(의대 64입) 이설희(간호대 73입) 최순강(음대 65입) 이수자(간호대 66입) 전현(문리대 60입) 이정일(농대 57입) 이소정(음대 84입) 고성서(경성사범 38입) 배건재(공대 53입) 김일훈(의대 51입) 이재풍(의대 58입) 정길화(의대 65입) 신영규(의대 57입) 이상일(의대 54입) 김승희(법대 55입) 김택수(의대 57입) 광노균(상대 55입) 송용덕(의대 57입) 김형수(농대 68입) 김유식(의대 64입) 이종기(농대 55입) 서영일(의대 68입) 강영국(수의대 67입) 김용성(상대 54입) 백영구(행정대학원 61입) 김현석(문리대 69입) 한의일(공대 62입) 김상기(문리대 61입) 배영섭(의대 54입) 임재일(농대 64입) 안정희(간호대 75입) 장시경(약대 58입) 진보린(약대 56입) 서상현(의대 64입) 김앤드류(상대 50입) 백준철(공대 62입) 김현욱(문리대 67입) 박준환(의대 57입) 박중수(수의대 58입) 이영웅(의대 62입) 장홍(문리대 61입) 고영철(의대 45입) 성흥환(\$160, 수의대 75입) 김윤화(음대 72입) 서승환(치대 61입) 손기용(의대 55입) 김한철(사범대 61입) 김세종(경영대 79입) 김용우(공대 58입) 박홍근(공대 64입) 허서룡(의대 60입) 정병욱(의대 59입) 김병윤(문리대 65입) 이용락(공대 48입) 전영자(미대 58입) 하계현(공대 64입) 계명수(의대 69입) 박연희(간호대 65입) 김정주(문리대 64입) 임근식(문리대 56입) 이승자(사범대 60입) 김갑중(의대 57입) 정의철(의대 55입) 유준석(의대 53입) 조 철(\$50 공대 49입) 정 태(\$100 의대 57입) 이덕수(\$100 문리대 62입) 최승정(공대 60입) 이진주(문리대 55입) 송재현(의대 48입) 안창현(의대 55입) 유석홍(상대 61입) 서경원(공대 53입) 구경희(의대 59입) 안은식(문리대 55입) 유효명(\$100 의대 58입) 김정수(문리대 69년입) 홍혜례(사대 76년입) 도상탁(\$100, 의대 56년입) 최애옥(간호대 47입) 한의생(수의대 60입) 문성길(의대 63입) 윤민중(의대 53입)
06	워싱턴 DC (MD, VA)	51 김재동(인문대 70입) 김영기(법대 50입) 임필순(의대 54입) 진금섭(\$61, 약대 57입) 김국(농대 75입) 오기창(법대 50입) 장윤희(사범대 54입) 남광순(음대 64입) 심준보(상대 55입) 이재승(의대 55년입) 김기봉(공대 63년입) 조남현(의대 64년입) 문홍숙(간호대 55년입) 변만식(사범대 49년입) 고무환(법대 57년입) 소속영(간호대 64년입) 이내원(사범대 58입) 석균범(문리대 61입) 김충규(의대 60입) 박성대(문리대 71입) 이정섭(의대 48입) 오광동(공대 52입) 신상균(의대 52입) 김용덕(의대 53입) 김창호(법대 56입) 김창웅(법대 60입) 광홍(의대 45입) 이정의(의대 59입) 배병권(상대 55입) 김훈진(치대?) 홍인희(공대 58입) 엄승용(농대 57입) 박평일(농대 69입) 장병규(사회과학대 76입) 최동현(문리대 50입) 조병선(의대 71입) 광태조(음대 64입) 오인환(문리대 63입) 안미애(가정대 81입) 박은희(미대 72입) 강경구(사범대 49입) 김정환(문리대 60입) 최경수(문리대 58입) 박홍우(문리대 65입) 박명영(의대 66입) 전경철(공대 55입) 유개일(약대 60입) 주 일(의대 46입) 전병택(상대 69입) 이경희(\$80 약대 82입) 황수택(의대 65입) 이혜숙(문리대 64입) 서공주(음대대학원 59입) 윤재명(의대 65입)
07	워싱턴주 (WA)	14 김영일(공대 53입) 이대원(사범대 58입) 유성렬(공대 72입) 전계상(공대 40입) 맹병규(문리대 70입) 채태용(법대 55입) 최두환(공대 83입) 최유환(사범대 57입)
08	휴스턴 (HOUSTON)	18 육복수(공대 69입) 이신광(약대 77입) 전중희(공대 56입) 신용선(공대 55입) 박승균(의대 59입) 탁순덕(사범대 57입) 조시호(문리대 59입) 유금영(법대 50입) 김성철(의대 61입) 최광욱(문리대 73입) 이은설(문리대 53입) 노인규(의대 57입) 이규진(약대 60입) 명인성(공대 50입) 박민자(사범대 58입) 김충열(의대 5입) 최관일(공대 54입) 강영빈(\$120 문리대 58입)
09	달라스 (DOLLAS)	3 김태훈(공대 57입) 김인호(공대 47입) 이병규(약대 61입)
10	미네소타 (MN)	10 강선병(상대 48입) 권승림(공대 52입) 김태환(의대 58입) 권학주(치대 59입) 왕규현(의대 56입) 박상빈(공대 71입) 문일지(공대 61입) 김권식(공대 61입) 남세현(공대 67입) 조형준(문리대 62입)
11	조지아 (GA)	12 계광무(공대 63입) 김용자(사범대 64입) 김용건(문리대 48입) 오경호(농대 60입) 김만복(문리대 72입) 유우영(의대 61입) 조덕성(공대 71입) 장병건(보건대학원 64입) 이철남(의대 50입) 백성식(약대 58입) 이관호(공대 45입) 윤민자(음대 65입)
12	아리조나(AZ)	6 오덕겸(의대 58입) 박성숙(간호대 59입) 이은수(경영대학원 73입) 서기권(공대 70입) 박양세(약대 48입) 이용길(의대 62입)
13	유타 (UT)	3 김 연(\$50 문리대 54입) 이정민(문리대 48입) 김의기(문리대 58입)
14	하와이 (HI)	9 임양수(\$50 사범대 62입) 김승태(의대 63입) 구자현(사범대 53입) 구해근(문리대 60입) 최치덕(법대 59입) 김용진(공대 50입) 신동인(공대 58입) 김동립(사범대 55입) 박성재(상대 49입)
15	오레곤 (OR)	10 조형원(수의대 55입) 최태인(사범대 59입) 성성모(사범대 67입) 한영준(사범대?) 김삼만(음대 46입) 나제관(공대 72입) 장윤자(공대 50입) 이태호(문리대 61입) 김상순(상대 67입) 최동근(문리대 50입)
16	기타 (서부)	9 이학은(약대 57입) 박종익(사범대 83입) 류광현(문리대 58입) 최원웅(약대 62입) 안동욱(자연대 72입) 이순환(의대 53입) 김갑전(의대 54입) 박용호(의대 59입) 홍지호(공대 53입)
17	기타 (중부)	
18	기타 (동부 & 캐나다)	16 이수정(음대 88입) 한용현(의대 48입) 박경희(음대 57입) 박종선(공대 60입) 이종진(공대 55입) 김주웅(의대 63입) 윤영욱(의대 57년입) 김정권(의대 55입) 김수산(의대 52입) 김연국(수의대 74입) 오인석(법대 58입) 김기욱(공대 79입) 조무정(약대 62입) 조동립(의대 56입) 김미현(문리대 52입) 손정호(의대 53입)
19	필라델피아(PA)	40 김재술(약대 62입) 이행우(? 50입) 김용국(의대 58입) 김사영(약대 56입) 주기목(수의대 68입) 강영배(수의대 59입) 김태영(약대 55입) 정학량(약대 56입) 이승환(공대 56입) 문상규(의대 62입) 임광상(공대 57입) 장 호(문리대 69입) 박장생(의대 54입) 지재원(사범대 68입) 이만택(의대 58입) 최 환(공대 68입) 송영두(\$100, 의대 56입) 오진석(치대 56입) 이규호(공대 56입) 이윤성(수의대 81입) 김희섭(의대 55입) 김영우(공대 55년입) 심기련(상대 57년입) 이재희(상대 88입) 이성숙(가정대 74입) 조영호(음대 60입) 이삼민(문리대 58입) 윤정나(음대 57입) 김세경(미대 62입) 김주진(법대 54입) 안지영(문리대 71입) 문대욱(의대 73입) 전방남(상대 73입) 김중규(치대 69입) 진병화(의대 57입) 서진석(의대 62입) 유찬남(의대 58입) 전무식(\$50, 수의대 61입) 염극용(의대 60입) 김형달(의대 70입) 이은희(\$50, 의대 54입) 도운희(농대 61입) 최인섭(의대 72입) 김성빈(문리대 59입) 강경식(문리대 55입) 김경석(문리대 70입) 박현자(음대 62입)
20	뉴잉글랜드 (MA, RI)	27 김문소(농대 61년입) 두선자(간호대 75년입) 한병의(문리대 60입) 인준식(사대 55입) 김종성(경영대 76입) 배성호(의대 65입) 박중건(의대 62입) 채도경(의대 59입) 권이덕(공대 68입) 이희규(공대 69입) 윤상래(수의대 62입) 김호영(약대 52입) 문형성(의대 65입) 김영일(사대 59입) 이재신(공대 57입) 김재호(상대 56입) 김유경(음대?) 김병국(공대 71입) 노인규(의대 52입) 김장태(문리대 53입)
21	하트랜드	13 설원중(의대 60입) 박해송(음대 68입) 이상강(의대 70입) 오명순(가정대 69입) 배규영(사범대 68입)
22	펜실베이니아	1 박세화(의대 76년입) 지일성(의대 61입) 신두식(의대 58입) 김호원(치대 52입) 임하진(의대 79입) 이상문(상대 57입) 구명수(간호대 66입) 오태요(의대 56입) 이수경(자연대 81입)
23	케롤라이나	4 정양수(의대 60입) 박태진(의대 62입) 한광수(의대 57입) 정일환(의대 63입)
특별기부금		
계		823

금년에도 재미서울대 총동창회와 동창회보 간행을 후원하여 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동창회는 전 동문의 네트워크를 위해 Data Base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동문은 이 설문지를 기입한 후 오려서 동창회 사무실로 우송바랍니다.

재미 동문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설문 및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공개 여부 설문 2002. 7. 1 ~ 2003. 6. 30 회보 구독료 납입서

재미 서울대 전 동문들의 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모교 지원사업 및 동문 지원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문에 간단히 답하시어 동봉의 반송봉투를 이용 설문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창회보를 받지 않는 주변 동문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본 설문지 여백에 적어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성명 : 한글 _____ 영문 _____
2. 모교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3. 졸업전공 : _____ 대학 _____ 학과 _____
4. E-mail 주소 : _____
5. 새 자택 주소 : _____
6. 새 자택 전화번호 _____ Fax. _____
7. 직장주소 : _____
8. 직장 : Tel. _____ Fax. _____
9.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에 공개 무방 (), 가급적 동문들에게만 공개 원함 ().
10. 동문 자료 은행구축과 모교와 조국을 위한 지적 봉사단의 자료를 위하여 귀 동문의 자세한 이력사항을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동창회보 일년 구독료 \$ 60은 동창회보 발간 사업 뿐 아니라 모교지원을 위한 업무 및 재미 동문 지원사업을 위하여 긴요한 재원입니다. 재미 총동창회 집행부는 모든 회원들을 위하여 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 유지하겠습니다.

본인은 2002. 7. 1 ~ 2003. 6. 30 구독료 \$60을 함께 우송합니다.

Yes. ()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No. ()

수표 보내실 곳 : SNUAUSA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12. 소속 지역동창회 이름 : () 지역동창회

1

재미서울대 동창회보 구독료 \$60(2002.7. 1. ~ 2003. 6. 30 회계년도)을 납부합니다.

2

미주 관악후원회 4차년도 후원 이사회비 出捐書

본인은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활동재원 확보와 미주동창회보의 지속적인 월간발행을 후원하기 위하여 결성된 「미주관악후원회」 회원임을 명예스럽게 생각하며, 제 3차년도 관악후원회비를 아래와 같이 보냅니다.

●매년 불입 후원이사

- 년 \$ 200이상 (금액명기 \$)
- 년 \$ 500이상 (금액명기 \$)
- 년 \$ 1,000이상 (금액명기 \$)

●일시불 종신후원이사

\$ 3,000이상 (금액명기 \$)

▷이 후원금은 세금 보고시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후원금에 대한 세금보고용 영수증은 별도로 송부하겠습니다.
: \$ 250 이상만)

3

母校와 後進을 위한 기금 出捐書

본인은 영원한 서울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모교와 후진을 돕기 위한 1백만달러 기금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음과 같이 기금을 낼 것을 동의합니다.

- ◎총액(금액명기 \$)
- ①일시불 ()
- ②3년 분할 납입 ()
- (\$)씩 ()회 분납

▷이 기금은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미 총동창회는 재산을 이 1백만달러 기금에 남겨주실 유언 (A Will) Program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Check Payable to :

SNUAUSA(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Check 보내실 곳 :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ausa@snuaa.org